

수원시 인구·가구 이동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Analysis of Migration Characteristics and its Effect Factors in Suwon

허경재

연구진

연구책임자 허경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박관아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연구 자문위원

김리영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호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왕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장)

이인재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자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2022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김선희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22년 10월 31일

발행 2022년 10월 31일

ISBN 979-11-6819-066-5 (9330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허경재. 2022. 「수원시 인구·가구 이동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비매품

국문요약



■ 서론

○ 연구의 배경

-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속되어 자연적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사회적 인구 증감의 중요성 대두
- 수원시도 2017년 인구 정점(주민등록인구 120만 명) 이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원도심 쇠퇴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해 지역별 인구 양극화 현상 심화
- 인구·가구 이동 현상을 파악함으로써 인구·가구 구조 변화 대응, 생활SOC 등 기반시설 수요 추정, 도시 미래 전략 구상을 위한 기초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
- 이에 따라 인구·가구 이동 현상 및 지역 차이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여 지역별로 요구되는 도시계획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연구의 목적

- 도시정책 수립을 위해 인구·가구 이동량 및 이동방향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주택공급, 교통망 구축, 교육수요 예측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마련
- 주거유형 다변화, 상업시설 재구조화, 생활SOC 재배치와 같이 수원시 도시계획 분야의 수요자 중심 후속 연구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수원시 인구이동 특성

○ 수원시 인구이동 중 수도권 내 이동이 전체 이동량의 약 90%차지

- 수원시 인구이동 총량은 연평균(2001년~2020년 평균) 약 26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까지 증가한 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수원시 내 이동은 동내 이동이 약 22%, 수원시 내 구간 이동이 약 37%, 수도권 내 이동이 약 30%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내에서 발생하는 이동이 전체 이동량의 약 90%를 차지

- 수도권 지역에서의 인구이동의 크기를 비교하면, 경기남부>서울>인천>경기북부 순으로 이동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남부는 순유출의 영향이, 경기북부, 서울시, 인천시는 순유입의 영향이 우세



(단위: 명)

〈그림 1〉 수원시 인구이동 추이

- 신도시 건설, 인접 도시 내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이 수원시 인구이동을 유발
 - 수원시 인구는 용인 및 화성시의 주택공급시기에 일부 순유출이 발생하였으며, 수원시 내부 주택개발사업(광교지구, 호매실지구, 권선지구)의 입주시기에는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나 인접 도시의 주택공급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추정
 - 수원시 내부에서는 철도교통 개통, 수원시 내 주요 사업체 이전, 주택매매가격 증감 등

의 이슈가 있었으나, 인접 도시 주택공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 인구 순유입은 직장 및 교육사유에서, 주택은 2011년~2015년을 제외하고 순유출
 - 수원시에서 다른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주택'요인이 좀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 수원시로 들어오는 경우는 '직업' 및 '교육'요인이 좀 더 높게 형성
 - 수원시에 주택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 수원시 내 주택공급이 많아진 2011년~2014년에는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시기에서는 모두 순유출
 - 한편, 직업사유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순유입량은 감소하는 추세
- 수원시 1인 가구 및 청년가구는 지난 20년간 순유입, 그 외 가구유형은 시기별로 상이
 - 수원시 1인 가구는 지난 20년간 모두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7년을 기준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
 - 1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2인가구, 3·4인가구, 다인가구)는 시기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원시 내 주택공급이 활발했던 2011년 이후부터는 순유입이 진행되다가 2015년부터는 모든 가구에서 순유출
 - 수원시 청년 가구의 순이동 이주패턴은 1인 가구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데, 2001년 이후 모두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7년을 기준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
 - 중장년가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순유입이, 노인가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두 가구유형 모두 2018년 이후 급격히 유출

■ 신도시·원도심 인구이동 특성

- 수원시 신도시는 타 시도로의 외부이동이 약 53%, 원도심은 약 29%를 차지
 - 수원시 신도시는 연평균(2009년~2020년) 약 7.6천 가구가 수원시에 매년 순전입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원도심은 매년 약 1천 가구가 순유출
 - 신도시는 대부분의 사유에서 전입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도심의 경우 주택사유로 전출이, 직업사유로 전입이 우세
 - 신도시의 경우 타 시도 간 이동이 전체의 이동량 중 약 20.0%, 경기도 내에서의 이동이 약 32.8%로 약 52.8%가 외부이동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원도심의 경우, 타 시도 간 이동이 14.4%, 경기도 내에서의 이동이 약 15.2%로 전체 중 29.6%가량만 외부에서 이동

○ 신도시 가구이동은 인접지역 산업단지 및 주택공급에 의해 발생

- 2009년 이후 수원시 신도시에 직업사유로 이동한 가구를 살펴보면, 서울 및 수도권 중부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순유입하였고, 2015년부터는 화성시 및 수원시 남단에 위치한 경기도 지역으로 순유출

- 한편, 청년1인가구는 특별히 2018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에서 순유입이 다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8년 이후 용인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인한 사업체 증가와 정보통신업 관련 산업의 종사자 증가와 높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주택사유로의 순이동을 살펴보면, 모든 가구유형에서 2011년 광교지구 입주시기 이후 순유입 급격히 증가. 2015년부터는 인접지역의 주택공급으로 순유출이 발생.

○ 원도심은 이주사유 중 주택목적으로 유출하는 가구가 가장 많으며, 광교지구 보다는 권선구로의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 원도심의 직업사유 이동은 시기별로 상이하나, 주로 권선구, 장안구에서 유입하며, 영통구로는 유출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이후로는 수원시내 모든 구로 유출
- 수원시 원도심의 주택목적으로 이동하는 가구를 살펴보면, 광교지구가 위치한 영통구로의 유출보다 권선구로의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결론

○ 수원시 이주 현상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

- 수원시를 오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도시계획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본 연구는 이러한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한 수원시 인구·가구 이동의 기초적 연구임
- 이주를 유발하는 사유는 많을뿐더러 단일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주의 시기·장소·방법 등을 결정하게 되므로, 향후 후속 과제를 통해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이슈를 대상으로 연구를 확장하고자 함

주제어: 이주, 주거이동, 가구 특성, 신도시·원도심, 지역여건

차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3절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8
제2장 수원시 인구이동 특성	11
제1절 수원시 인구이동	13
제2절 행정구역별 인구이동	15
제3절 시기별 인구이동	19
제4절 이주사유별 인구이동	20
제5절 가구유형별 인구이동	22
제6절 수원시 인구이동 특성 간 교차분석	28
제3장 신도시·원도심 인구이동 특성	45
제1절 신도시·원도심 권역 설정 및 인구이동	47
제2절 신도시 지역여건과 이동 요인	66
제3절 원도심 지역여건과 이동 요인	75
제4장 결론	85
제1절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87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91

표 차례

〈표 1-1〉 MDIS 제공 국내인구이동통계 데이터	7
〈표 2-1〉 수원시 인구이동량 추이	14
〈표 2-2〉 시도 간 평균 전입·전출량	15
〈표 2-3〉 수도권 인구이동	18
〈표 2-4〉 이주사유별 인구이동 추이	21
〈표 2-5〉 가구원수별 인구이동	23
〈표 2-6〉 가구주 연령별 인구이동	26
〈표 2-7〉 가구원수별 직업 및 주택사유 가구이동	29
〈표 2-8〉 가구주 연령별 직업 및 주택사유 가구이동	32
〈표 2-9〉 가구특성별 세부분석 정리	42
〈표 3-1〉 수원시 원도심 및 신도시 설정	48
〈표 3-2〉 신도심 및 원도심 가구이동	49
〈표 3-3〉 신도시 및 원도심 행정구역별 인구이동	51
〈표 3-4〉 이주사유별 가구이동 추이	53
〈표 3-5〉 신도시 가구원수별 인구이동	56
〈표 3-6〉 가구주 연령별 인구이동	58
〈표 3-7〉 원도심 가구원수별 인구이동	60
〈표 3-8〉 원도심 가구주 연령별 인구이동	62
〈표 3-9〉 신도시와 원도심 이동량 비교('09~'20 총합계)	65
〈표 3-10〉 가구특성별 세부분석 정리	74
〈표 3-11〉 원도심 순이동 및 아파트 입주물량	78
〈표 3-12〉 가구특성별 세부분석 정리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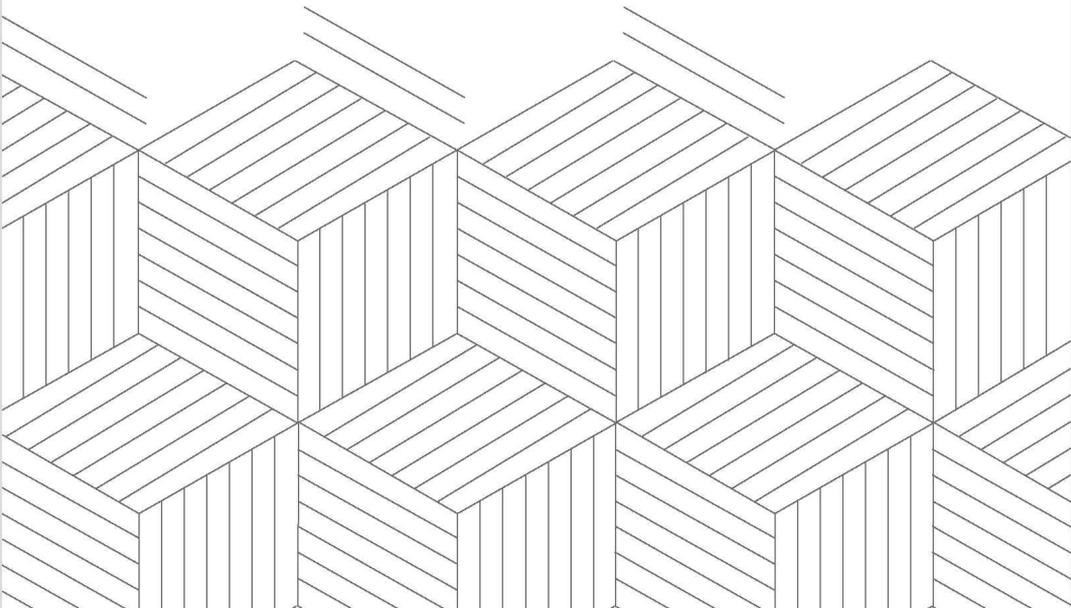
그림 차례

〈그림 1-1〉 수원시 주민등록인구 추이	3
〈그림 1-2〉 수원시 행정구별 주민등록인구 추이	4
〈그림 1-3〉 분석의 구성과 흐름	6
〈그림 2-1〉 수원시 전출입 인구(2001년~2020년)	13
〈그림 2-2〉 행정구역별 전입·전출인구 총합	16
〈그림 2-3〉 행정구역별 전입전출인구 추이	17
〈그림 2-4〉 시기별 인구이동 특성	19
〈그림 2-5〉 이주사유별 인구이동 추이	20
〈그림 2-6〉 가구원수별 인구이동 추이	24
〈그림 2-7〉 가구주 연령별 인구이동 추이	27
〈그림 2-8〉 수원시 인구이동 특성 간 교차분석	28
〈그림 2-9〉 가구원수별 인구이동 추이	30
〈그림 2-10〉 가구주 연령별 이주사유 추이	33
〈그림 2-11〉 직업사유 시기별 인구이동 추이	34
〈그림 2-12〉 청년1인가구 직업사유 시기별 인구이동 추이	35
〈그림 2-13〉 중장년1인가구 직업사유 시기별 인구이동 추이	36
〈그림 2-14〉 노인1인가구 직업사유 시기별 인구이동 추이	37
〈그림 2-15〉 수원시 순 인구이동 및 수원시 인접지역 주택공급	38
〈그림 2-16〉 주택사유 시기별 인구이동 추이	38
〈그림 2-17〉 청년1인가구 주택사유 시기별 인구이동 추이	39
〈그림 2-18〉 중장년3·4인가구 주택사유 시기별 인구이동 추이	40
〈그림 2-19〉 노인1인가구 주택사유 시기별 인구이동 추이	41
〈그림 3-1〉 수원시 신도시 및 원도심 권역설정	47
〈그림 3-2〉 신도시 및 원도심 분석흐름도	48
〈그림 3-3〉 신도시 및 원도심 가구이동 비교	50
〈그림 3-4〉 신도시·원도심 행정구역별 전출입 추이	52
〈그림 3-5〉 신도시 이주사유별 가구이동	54

〈그림 3-6〉 원도심 이주사유별 가구이동	55
〈그림 3-7〉 신도시 가구원수별 이주사유 추이	57
〈그림 3-8〉 신도시 가구주 연령별 이주사유 추이	59
〈그림 3-9〉 원도심 가구원수별 이주사유 추이	61
〈그림 3-10〉 원도심 가구주 연령별 이주사유 추이	63
〈그림 3-11〉 원도심 가구주 연령별 이주사유	64
〈그림 3-12〉 수원시 신도시 순이동 및 광고지구 사업체수	66
〈그림 3-13〉 신도시 직업사유 시기별 가구이동 추이	66
〈그림 3-14〉 신도시 청년1인가구 직업사유 시기별 가구이동 추이	68
〈그림 3-15〉 수원시 및 인근지역의 시기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증감률	69
〈그림 3-16〉 수원시 신도시 순이동 및 영통구아파트 입주물량	70
〈그림 3-17〉 신도시 주택사유 시기별 가구이동 추이	70
〈그림 3-18〉 신도시 청년1인가구 주택사유 시기별 가구이동 추이	71
〈그림 3-19〉 신도시 중장년3·4인가구 주택사유 시기별 가구이동 추이	72
〈그림 3-20〉 신도시 노인1인가구 주택사유 시기별 가구이동 추이	73
〈그림 3-21〉 수원시 원도심 순이동 및 사업체수	75
〈그림 3-22〉 원도심 직업사유 시기별 가구이동 추이	75
〈그림 3-23〉 원도심 중장년1인가구 직업사유 시기별 가구이동 추이	76
〈그림 3-24〉 수원시 원도심 순이동 및 수원시 내 입주물량	77
〈그림 3-25〉 원도심 주택사유 시기별 가구이동 추이	77
〈그림 3-26〉 원도심 청년1인가구 주택사유 시기별 가구이동 추이	79
〈그림 3-27〉 원도심 중장년3·4인 주택사유 시기별 가구이동 추이	80
〈그림 3-28〉 원도심 노인1인가구 주택사유 시기별 가구이동 추이	8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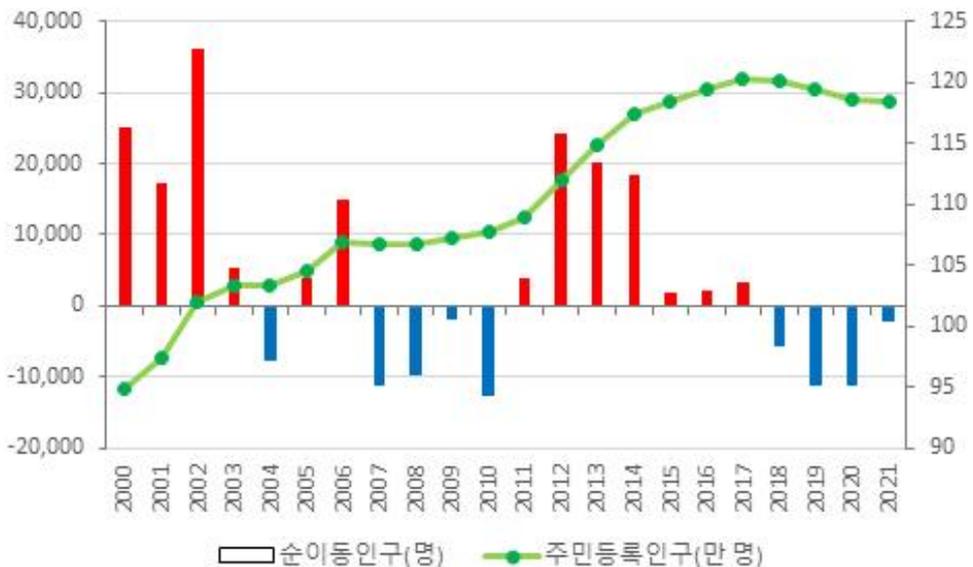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자 국내 지자체들은 이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적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사회적 인구 증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수원시도 2017년 120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¹⁾, 시 내부적으로도 원도심의 인구 유출 및 신도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지속되어 지역별 인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²⁾

〈그림 1-1〉 수원시 주민등록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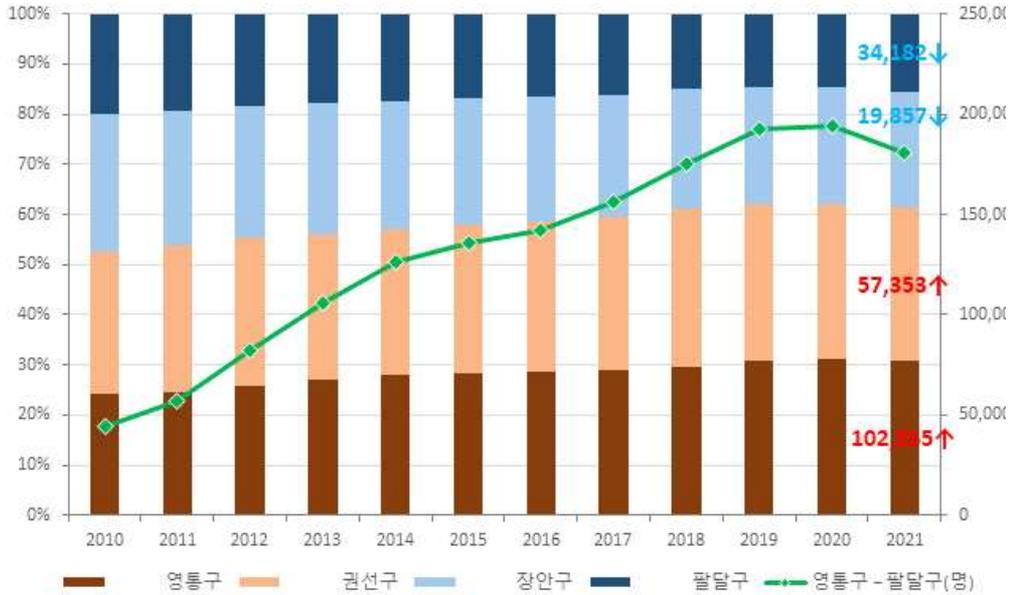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1) 주민등록인구 기준, 행정안전부.

2) 2010년 영통구와 팔달구의 주민등록인구 차이는 약 4만 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18만 명으로 증가함.

〈그림 1-2〉 수원시 행정구별 주민등록인구 추이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인구·가구³⁾ 이동 요을 파악함으로써 인구·가구 구조 변화 대응방안, 미래 도시전략 구상을 위한 기초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나 아직 해당 분야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구·가구 이동 현황 및 지역 차이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여 지역 별로 요구되는 도시계획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균형 발전과 지역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수원시도 지속가능한 균형도시 조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도시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별 인구 이동량 및 이동 방향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주택공급, 교통망 구축, 교육수요 예측 등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원시는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미래 도시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므로, 수원시 인구이동의 공간적 특성 분석과 이해를 기반으로 수원시 도시공간 정책의 원칙과 방향 설정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원도심 인구 유출 대응방안, 신도시 정주환경 안정화 등 시정 현안에 대응하고 향후 개발·정비사업, 군공항 이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3) 가구(동거·혈연 무관, 인구주택총조사 기반)와 세대(동거·혈연 기반, 지방세법 기반)의 정의가 다르나,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상 혼용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

활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따라 도시 구성요소의 수요가 변화하므로,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는 후속 연구들의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연구가 주목받고 있으며, 주거유형 다변화, 상업시설 재구조화, 생활SOC 재배치와 같이 수원시 도시계획 분야 수요자 중심 연구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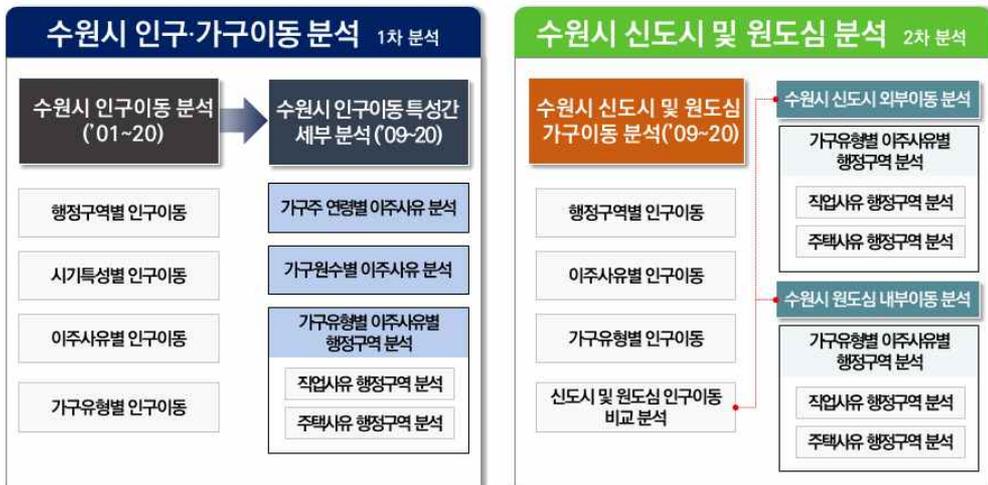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인구이동 분석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행정구역별, 시기별, 이주사유별, 가구유형별(가구주 연령별, 가구원수별)로 분류하였으며, 기초현황 분석을 통해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거나 주목할 만한 계층·이주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분류를 중심으로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경기 북부⁴⁾를 제외한 서울, 인천, 경기 남부⁵⁾ 위주로 한정하였다. 수원시 전출입 이동량의 약 90%가 수도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기 북부에서의 전출입량은 2% 미만으로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도시·원도심 분석에서는 공간적 범위를 더 축소하여 광교신도시⁶⁾와 팔달구 일부 원도심⁷⁾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전출입 특성에 맞추어 원도심의 전출입 분석은 수원시 내부 이동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분석에 사용한 자료에서 제공하는 2001~2020년까지 20년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2001~2008년의 8년 동안은 전입신고서 작성 시 전입사유를 입력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직업'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주사유가 포함되는 분석들의 시간적 범위는 2009~2020년까지의 12년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1-3〉 분석의 구성과 흐름



4)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5)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양평군
 6) 광교1동, 광교2동, 원천동
 7) 행궁동, 지동, 매교동

인구·가구 이동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의 원 자료인 MDIS(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내인구이동통계는 국민의 지역별 인구 이동량 및 이동방향 등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주택공급, 교통망 구축, 교통수요 예측, 노동시장 등), 지역 간의 균형적인 국토개발, 지역별 인구추계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해당 자료는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전입신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2001~2020년까지 전국 읍면동 단위의 전출입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다.

〈표 1-1〉 MDIS 제공 국내인구이동통계 데이터

구분	자료 항목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신고 연월일 • 전입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전출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입사유 (2020년 전국 응답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22.2%) • 주택 (35.6%) • 주거환경 (4.5%) • 기타 (7.7%) • 가족 (24.8%) • 교육 (3.9%) • 자연환경 (1.2%)
신고 대상자 및 세대 구성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주·세대원 여부 • 연령 • 성별

제3절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인구이동은 학계에서 꾸준히 연구해온 주제로 인구나 가구의 이동에 대해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어져 왔다. 기존 선행연구에 의하면 인구 및 가구의 이동의 결정요인은 크게 3가지 관점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인구이동의 중력적 특성, 가구의 생애주기적 관점, 사회경제적 관점을 들 수 있다(이외희, 2019).

인구이동을 총량적 특성으로 보면, 지역 간 이동 인구는 인구규모에 비례하고 지역 간 거리에 반비례한다(Ravenstein, 1885). 즉 도시의 인구규모가 크거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구 이동량이 많아지며, 도시의 인구규모가 작거나 거리가 멀수록 인구 이동량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구 규모가 큰 도시는 고용의 기회가 더 많으며, 기대효용이 커지므로 이동이 활발해지며,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동비용이 작아지므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동은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다르게 최근 국내연구에 따르면, 이주거리와 인구규모에 대한 저항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최성호, 2013).

한편 인구 및 가구의 이동과 가구의 생애주기와의 관련성도 많은 학자들에게 의해 밝혀졌다. 생애주기는 한 인간이 미혼에서부터 결혼하여 가구를 형성하고 가구가 해체되는 단계적 과정을 의미하며, 학계에서 정의하는 주거 이동상 생애주기는 특수한 가구구성을 제외한 일반적인 생애단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하성규, 2006; 김리영, 2013). 생애주기 가설에 의한 이동의 공간적 변화특성을 보면, 주택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한 20~30대의 청년층은 도심에 주거를 구하게 되며, 이후 자녀를 가지게 된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외곽의 보다 넓은 주택을 선택하고, 다시 자녀들이 분가한 이후 60대의 노년층은 외곽의 주택을 처분하고 자신의 소비규모에 맞춰 주택규모를 줄여 도심에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다(Rossi, 1995; 이정섭, 2011; 최성호 외, 2013⁸⁾). 홍성효(2012)는 20대 중반의 경우, 기대소득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81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인구밀도가 낮거나 사회복지예산이 높은 곳으로 이주하는 비중이 높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민보경(2018)은 전출입 사유를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는데, 청년층보다 중장년 및 노년층이 주택문제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으며, 청년층의 경우 직업과 같은 일자리 문제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20대의 젊은 사람들의 경우 생애주기에 따라 취

8) Rossi, Peter H., 1995, Why Families Move: A Study in the Social Psychology of Urban Residential Mobility, Free Press, Glencoe, IL.,

이정섭, 2011,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이동 모형에 대한 출생코호트 접근과 해석 : 진주시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1), pp. 75-95

최성호·이창무, 2013, 「연령대별 지역간 인구이동 특성의 시계열적 변화」, 『부동산학연구』 19(2), pp. 87-102

업의 기회 또는 문화적 기회 등이 이주에 주요한 요인이 되며, 중장년층은 우수한 주거환경 및 주택에 의해, 고령자들은 사회적 복지제도가 잘 정비되어있는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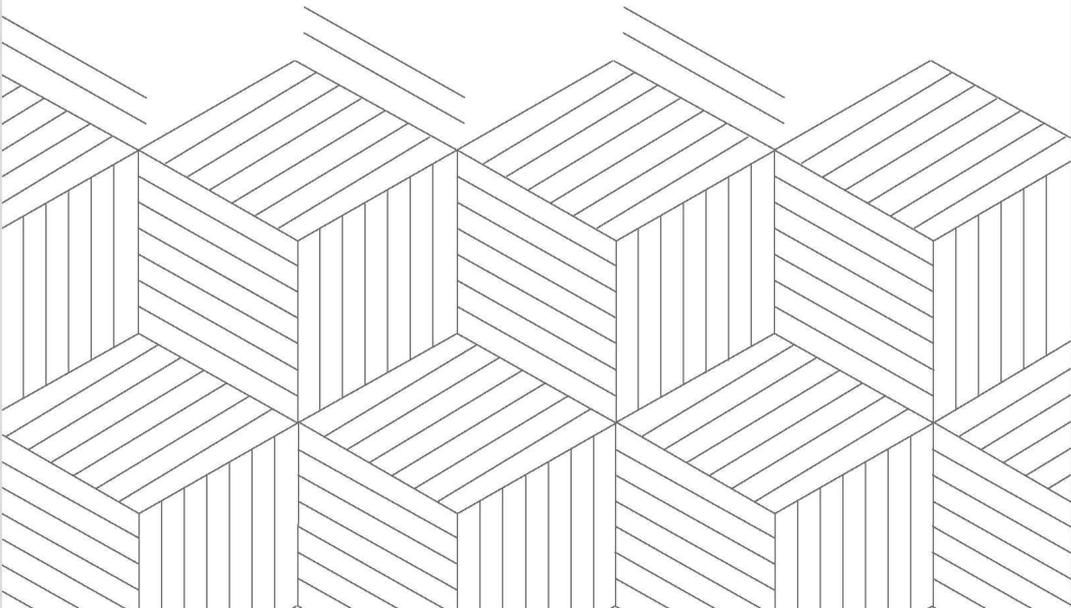
사회경제적 관점으로는 사업체 및 종사자수, 재정자립도 등 지역의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인구 및 가구의 이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민보경 외, 2017). 전입전출지의 아파트 매매가, 아파트전세가 상승률, 사업체당 종사자수, 3차 사업체당 종사자수 증가율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정희 외, 2017; 이재수 외, 2017).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은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어디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컨대, 일부 연구에서는 서울 전출가구는 문화시설이 많이 입지하고 증가율이 높은 경기, 인천의 시군구로 이동한다고 하였으나(이재수 외, 2017), 반면 도시기반 시설 지표는 인구가 동 결정요인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이정희 외, 2017).

기존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인구 및 가구이동은 중력적 특성에 의해, 가구의 생애주기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인구 및 가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원인 및 인과관계를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 세부 지역의 인구 및 가구이동 현상 및 특징을 시계열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인구 및 가구이동이 중력적 특징을 나타내는지, 가구의 생애주기별(예컨대 청년1인가구, 중장년3·4인가구 등과 같이 가구주 연령별·가구원수별) 어떤 목적으로 어디로 이동하는지, 인근 지역의 주택공급과 사업체 및 종사자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장기간의 흐름과 이동패턴을 살펴보고 수원시 인구 및 가구이동의 종합적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제2장 수원시 인구이동 특성

- 제1절 수원시 인구이동
- 제2절 행정구역별 인구이동
- 제3절 시기별 인구이동
- 제4절 이주사유별 인구이동
- 제5절 가구유형별 인구이동
- 제6절 수원시 인구이동 특성 간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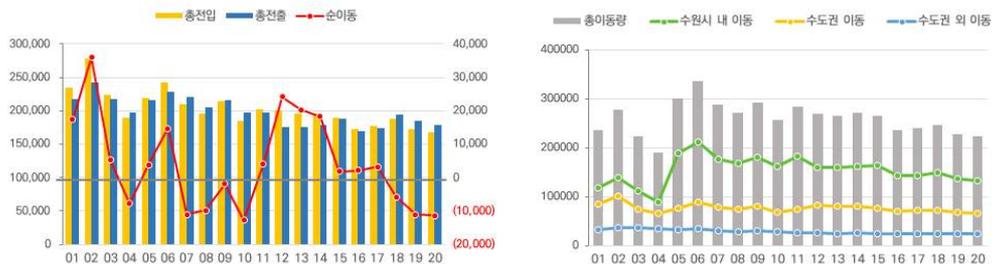
제2장 수원시 인구이동 특성

제1절 수원시 인구이동

수원시 총 전입량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약 20.3만 명으로, 가장 많았던 해는 2002년 약 27.9만 명이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20년 약 16.8만 명까지 감소하였다. 총 전출량은 연평균 19.9만 명으로 평균 전입량(20.3만 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 이후 최근 3년간은 전출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순이동인구는 시기별로 상이하나 2012년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1.1만 명이 순유출하였다.

수원시 인구이동은 동 내 이동, 수원시 내 이동, 경기도 내 시군 간 이동, 타 시도 간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1년 이후 수원시 인구이동 총량(9)은 연평균 약 26.0만 명으로 나타났다으며, 2006년까지 증가하여 가장 많은 336,005명까지 발생하였다.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20년에는 223,676명까지 줄어들어 2006년 대비 약 33% 감소하였다. 수원시 내 이동은 동내 이동이 약 22%, 수원시 내 구간 이동이 약 37%로 전체 총 이동량의 약 60%를 차지하며, 수도권 내 이동은 약 30%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원시 인구이동의 범위가 기존생활권을 고려한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타 시도

〈그림 2-1〉 수원시 전출입 인구(2001년~2020년)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표 2-1〉 수원시 인구이동량 추이

(단위 : 명)

구분	총이동	총전입	총전출	수원시 내 이동		경기도내시군간이동		타 시도 간 이동		순이동
				동내이동	구간이동	전입	전출	전입	전출	
2001	235,357	235,357	218,015	-	117,647	57,497	59,201	60,213	41,167	17,342
2002	278,809	278,809	242,760	-	139,780	69,534	62,470	69,495	40,510	36,049
2003	223,558	223,558	218,052	-	111,317	50,923	60,647	61,318	46,088	5,506
2004	189,642	189,642	197,471	-	88,469	45,414	67,008	55,759	41,994	-7,829
2005	299,938	219,890	215,958	80,048	109,421	53,056	62,987	57,413	43,550	3,932
2006	336,005	242,882	228,130	93,123	119,884	62,501	62,028	60,497	46,218	14,752
2007	287,248	209,455	220,550	77,793	98,962	54,050	74,560	56,443	47,028	-11,095
2008	270,548	195,997	205,775	74,551	92,919	51,093	68,893	51,985	43,963	-9,778
2009	293,387	213,885	215,699	79,502	101,816	55,468	67,871	56,601	46,012	-1,814
2010	257,429	184,392	197,078	73,037	88,278	46,784	64,636	49,330	44,164	-12,686
2011	283,814	202,025	198,050	81,789	101,482	53,142	53,041	47,401	43,527	3,975
2012	269,297	200,093	175,835	69,204	90,347	60,301	44,906	49,445	40,582	24,258
2013	265,168	195,490	175,204	69,678	90,180	58,012	45,654	47,298	39,370	20,286
2014	270,878	196,453	178,185	74,425	88,697	58,787	46,251	48,969	43,237	18,268
2015	265,832	189,627	187,765	76,205	88,293	53,042	56,952	48,292	42,520	1,862
2016	236,911	172,210	169,975	64,701	78,344	47,232	51,922	46,634	39,709	2,235
2017	239,779	177,059	173,747	62,720	81,027	49,412	54,459	46,620	38,261	3,312
2018	247,179	187,806	193,564	59,373	90,347	50,395	64,734	47,064	38,483	-5,758
2019	227,524	173,336	184,404	54,188	82,194	46,339	64,325	44,803	37,885	-11,068
2020	223,676	168,194	179,508	55,482	78,042	46,163	62,091	43,989	39,375	-11,314
평균	260,099	202,808	198,786	57,291	96,872	53,457	59,732	52,478	42,182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주1: 총이동량은 동 내 이동, 수원시 내 이동, 경기도 내 시군 간 이동(전입), 타 시도 간 이동(전입)의 양을 합산

주2: 통계청 MDIS 자료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동 내 이동량 제외

간 이동의 전입과 전출, 경기도 내 시군 간 이동의 전입의 이동량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경기도 내 시군 간 이동의 전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원시 인구이동이 수원시 인근 경기도 지역의 신도시개발 및 주택공급 등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9) 총이동량은 동 내 이동, 수원시 내 이동, 경기도 내 시군 간 이동(전입), 타시도 간 이동(전입)의 양을 합산

제2절 행정구역별 인구이동

수원시 인구이동은 지난 20년간(2001년~2020년) 수원시 내에서 약 60% 발생하였고, 경기도 내에서 약 22%¹⁰⁾, 그 외의 지역에서 약 18%¹¹⁾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주거리나 인구규모에 따라 이동량이 변화되는 증력적 특성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증명되었으나(최성호 외, 2013), 여전히 수원시는 수원시와 거리가 가깝고 인구규모가 큰 곳일수록 인구이동이 많아지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그림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행정구역별 인구이동 추이

지난 20년간 수원시로의 전입·전출량을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약 80%가 전입, 84%가 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수원시로의 전입·전출량이 많은 지역은 서울(전입 7.6%, 전출 6.0%), 충남(전입 1.6%, 전출 1.7%), 인천(전입 1.5%, 전출 1.3%)인

〈표 2-2〉 시도 간 평균 전입·전출량

(단위 : 명, %)

구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시
전입량	207,621	19,778	3,862	2,295	1,834	1,624	2,012	770	143
(%)	79.82	7.6	1.48	0.88	0.7	0.62	0.77	0.3	0.05
구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전입량	2,702	2,477	4,246	2,833	2,372	2,797	2,160	574	
(%)	1.04	0.95	1.63	1.09	0.91	1.08	0.83	0.22	
구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시
전출량	213,895	15,452	3,388	1,493	1,095	1,141	1,679	503	293
(%)	83.53	6.03	1.32	0.58	0.43	0.45	0.66	0.2	0.11
구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전입량	2,385	2,373	4,299	2,232	1,730	1,905	1,596	619	
(%)	0.93	0.93	1.68	0.87	0.68	0.74	0.62	0.24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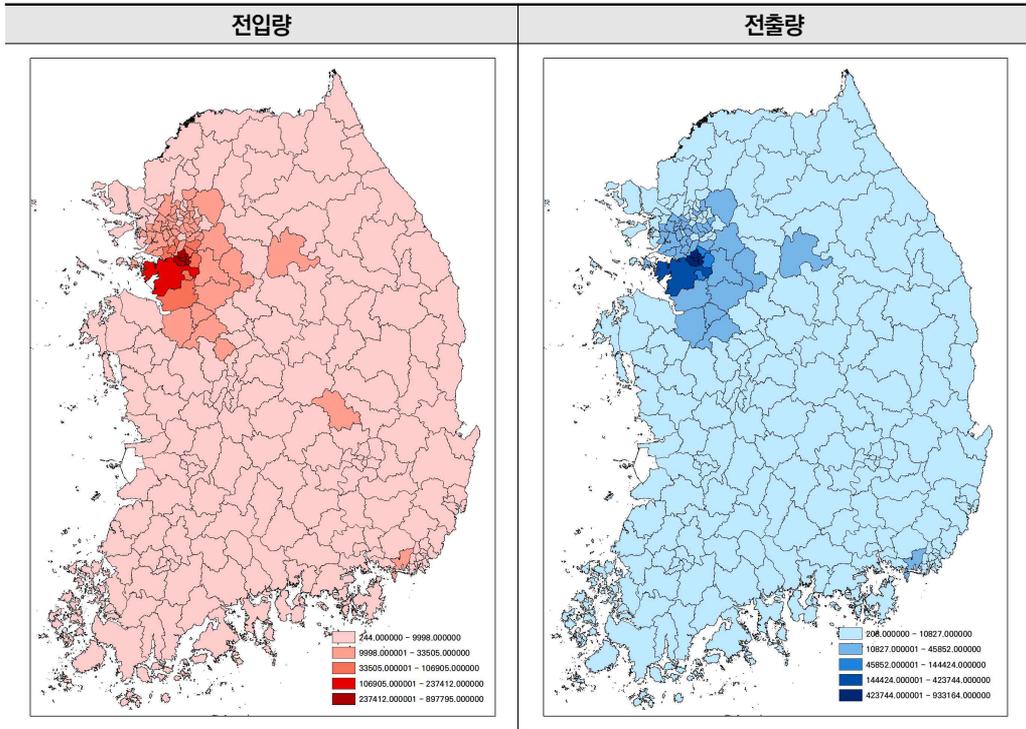
주: 20년간 평균 전입·전출량을 산정

10) 경기도 내 시군 간 이동의 전입 전출의 평균값(전입평균 21%, 전출평균 23%)

11) 타 시도 간 이동의 전입 전출의 평균값(전입평균 20%, 전출평균 16%)

〈그림 2-2〉 행정구역별 전입·전출인구 총합

(단위: 명)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주: 20년간 전입·전출량 총합계로 나타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및 인천은 수원시로부터 전출하는 이동량보다 전입하는 이동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도 및 충청남도는 전입량보다 전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전입·전출량의 총합(〈그림 2-2〉)을 살펴보면, 수원시 인접지역에서 인구가 많이 일어났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화성시 및 용인시 기흥, 처인, 수지구 등과 같은 경기남부지역에서 대부분 전입·전출이 발생하였으며, 서울 및 인천에서도 인구가 원활하게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수도권 인구이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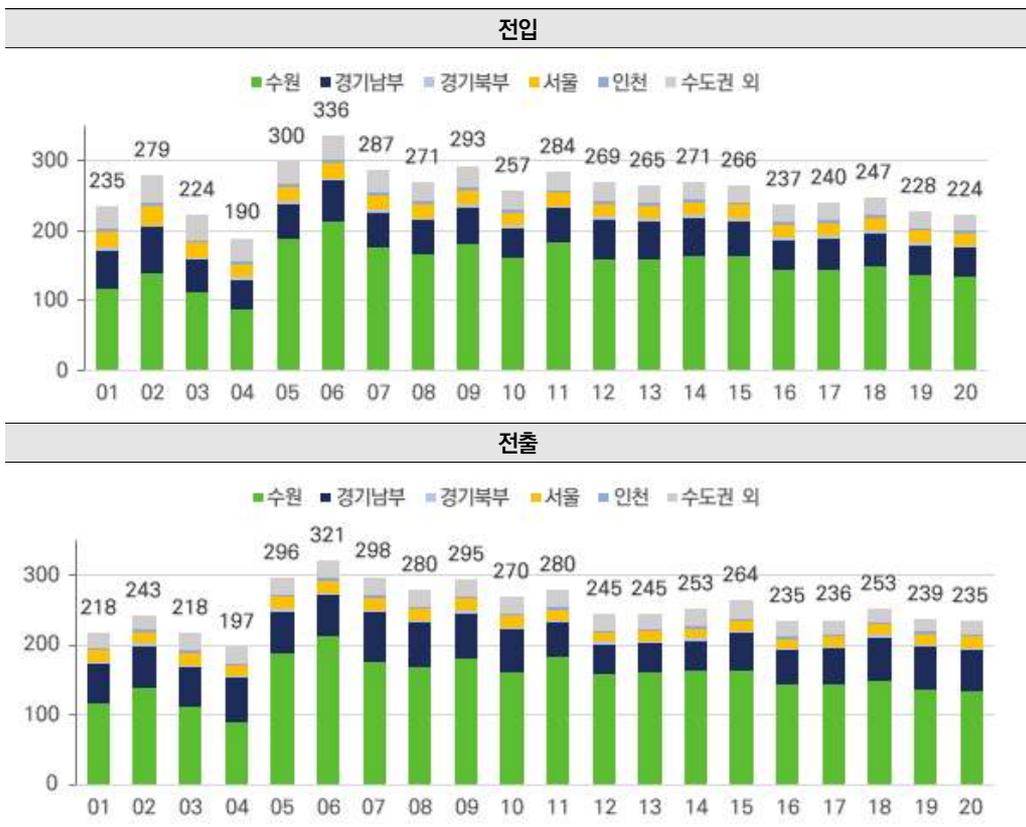
수도권 내에서 수원시로의 전입·전출량을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경기남부지역에서는 평균 49.7천 명이 수원시로 전입하였으며, 56.4천 명이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 약 6.8천 명이 매년 수원을 제외한 경기남부지역으로 순유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경기북부지역에서는 평균 3.8천 명이 전입, 3.3천 명이 전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남부지역과는 정반대

로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매년 평균 19.8천 명이 전입, 15.5천 명이 전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 4.3천 명이 매년 순유입하며, 인천시의 경우, 매년 평균 3.9천 명이 전입, 3.4천 명이 전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 0.5천 명이 순유입하였다. 수도권 내에서 경기남부를 제외한 경기북부, 서울시, 인천시에서는 대부분 순유입의 영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남부지역에서는 순유출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남부지역은 수원시 내 대규모 주택공급(2011년 이후)이 일어난 시기(2012년~2014년)를 제외하고는 모두 순유출이 발생하였다.

한편, 수도권 내 지역에서 인구이동의 크기를 비교하면, 경기남부>서울>인천>경기북부 순으로 인구이동량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 고찰에서 언급했듯이 거리에 따라 인구이동이 반비례한다는 이론과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림 2-3〉 행정구역별 전입전출인구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표 2-3〉 수도권 인구가동

(단위 : 천 명, %)

구분	전입						전출					
	수원시	경기남부	경기북부	서울시	인천시	기타	수원시	경기남부	경기북부	서울시	인천시	기타
2001	117.6	53.8	3.7	22.9	4.6	32.7	117.6	56.1	3.1	15.6	3.4	22.2
2002	139.8	65.2	4.3	27.1	5	37.4	139.8	59.3	3.2	15.9	3.6	21
2003	111.3	47	3.9	20.5	4.2	36.6	111.3	56.9	3.7	17	3.4	25.6
2004	88.5	42.1	3.4	18	3.5	34.2	88.5	63.9	3.1	14.3	3	24.7
2005	189.5	49.4	3.6	20	4	33.4	189.5	59.4	3.5	16.3	3.2	24
2006	213	58.4	4.1	22.2	4.2	34	213	58.2	3.8	17.5	3.5	25.3
2007	176.8	50	4.1	20.5	4.2	31.7	176.8	70.9	3.7	17.3	4	25.7
2008	167.5	47.3	3.8	19.6	3.8	28.5	167.5	65.6	3.3	16.2	3.4	24.4
2009	181.3	51.5	4	21.2	3.8	31.5	181.3	64.6	3.3	17.5	3.2	25.4
2010	161.3	43.2	3.6	18	3.4	27.9	161.3	60.6	4	16.2	3.4	24.5
2011	183.3	49.4	3.7	18.5	3.2	25.7	183.3	49.7	3.4	15	3.5	25
2012	159.6	56	4.3	19	3.5	27	159.6	41.6	3.3	13.8	3.4	23.4
2013	159.9	54	4	18.5	3.6	25.2	159.9	42.7	3	13.8	3.5	22.1
2014	163.1	54.7	4.1	19	3.8	26.2	163.1	43	3.2	14.4	3.4	25.4
2015	164.5	49.1	3.9	19.6	3.9	24.9	164.5	53.6	3.4	14	3.3	25.2
2016	143	43.7	3.6	19	3.7	23.9	143	48.9	3	13.8	3.3	22.6
2017	143.7	45.8	3.6	18.8	3.7	24	143.7	51.7	2.7	13.9	3.3	21.1
2018	149.7	46.7	3.7	18.9	3.8	24.4	149.7	61.7	3	14.7	3.4	20.5
2019	136.4	42.9	3.4	17.3	3.7	23.8	136.4	61.4	3	15.4	3.2	19.3
2020	133.5	42.8	3.4	16.7	3.4	23.9	133.5	58.8	3.3	16.4	3.4	19.6
평균	154.2	49.7	3.8	19.8	3.9	28.8	154.2	56.4	3.3	15.5	3.4	23.4
비율	59.3	19.1	1.5	7.6	1.5	11.1	60.2	22.0	1.3	6.0	1.3	9.1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가동통계」

주: 수원시 내 전입·전출은 동일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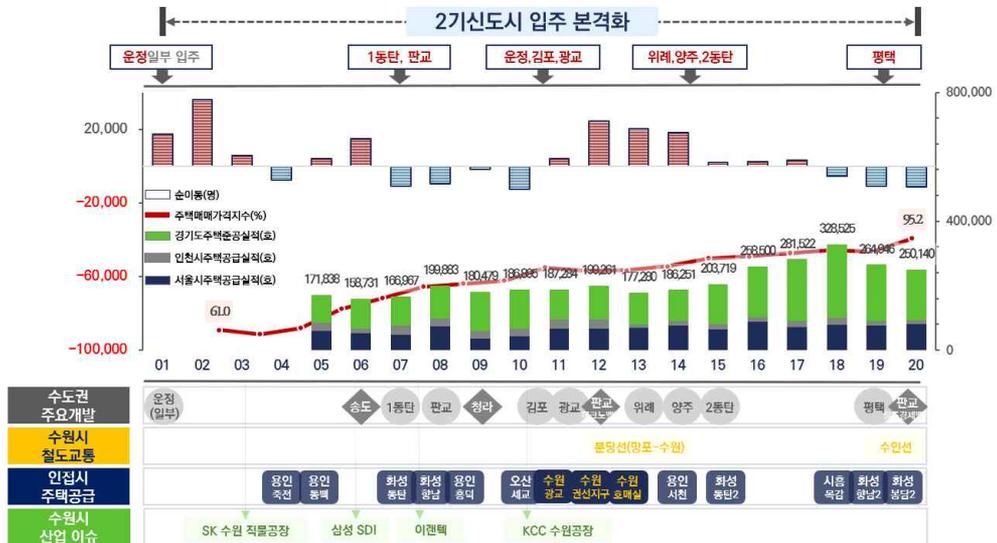
제3절 시기별 인구이동

선행연구에 의하면 인구 및 가구의 이동결정요인은 크게 가구의 생애주기적 관점, 사회경제적 관점, 그리고 중력적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외희, 2019). 특별히 수원시의 경우, 용인·화성·오산·안양·의왕·성남 등의 경기남부지역과 연계해 있어 인근 지역의 주택공급, 도로 및 교통체계 구축, 산업단지 조성 및 사업체 변화 등 지역경제적 요인에 따라 인구이동의 유출입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0년간 수원시 순이동을 수도권 지역의 주요개발, 수원시 철도교통, 인접 도시 주택공급, 산업 이슈 등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특히 인접 도시의 주택공급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용인 죽전 및 동백지구의 입주시기였던 2003년에 일부 순유출이 발생하였으며 화성 동탄 및 향남지구 등의 입주가 시작되었던 2007년에도 상당히 많은 인구가 유출되었다. 한편, 수원 광고, 권선, 호매실 지구 등 수원시 내부 주택개발사업의 입주시기인 2011년 이후로는 7년간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 이후 3년간 시흥 및 화성 봉담지구 등의 개발로 재유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4〉 시기별 인구이동 특성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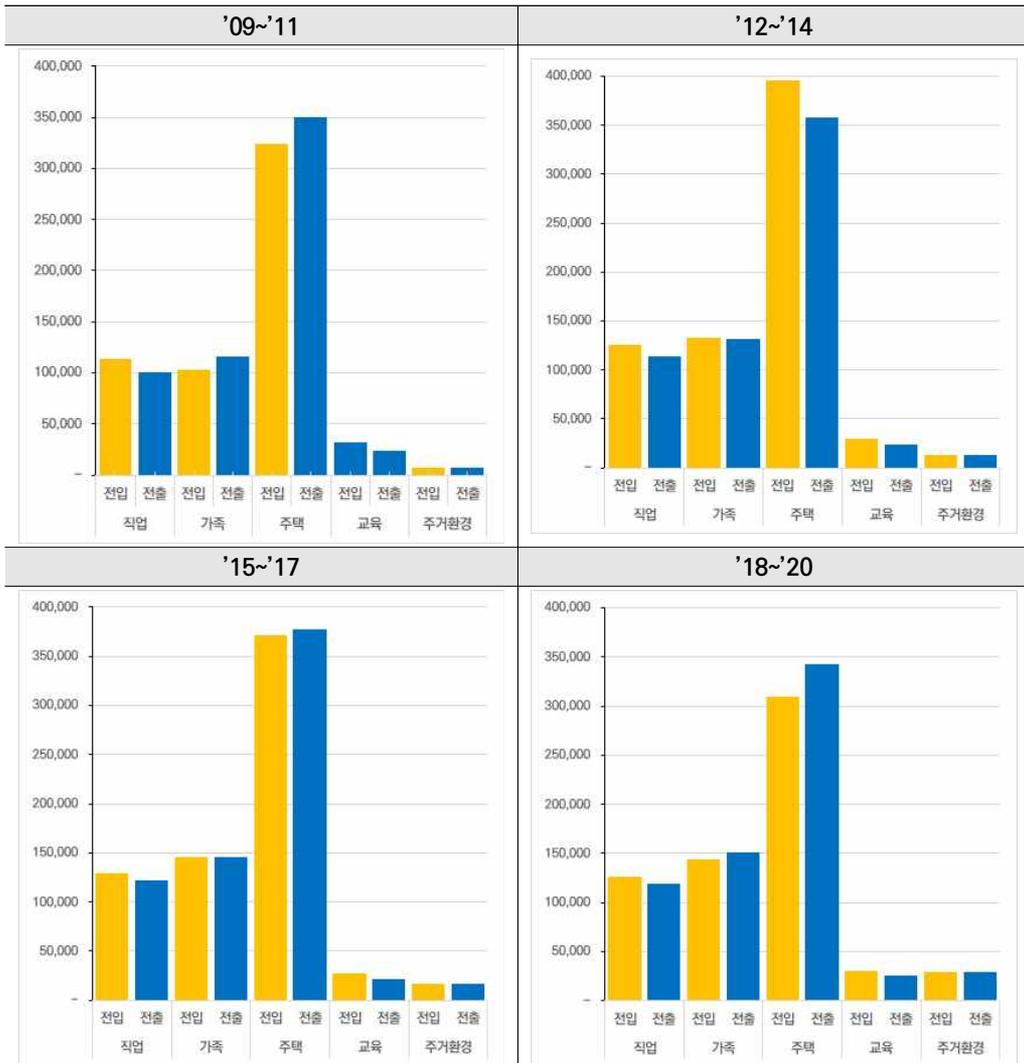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제4절 이주사유별 인구이동

수원시의 시도 간 이동인구의 전입과 전출목적을 비교하면, 직업·가족·주택·교육·주거환경 6개의 항목의 비중과 규모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수원에서 다른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주택’요인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 수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직업’요인이 더 높게 형성되

〈그림 2-5〉 이주사유별 인구이동 추이

(단위: 명)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주: 2001~2008년은 전입사유 미입력 시 기본값으로 “직업”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2009~2013년까지는 상세한 설명 부족 등으로 인한 무응답 비중이 높아 담당 공무원이 “기타”로 일괄 입력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이후를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기타사유는 제외하여 분석을 진행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원시에서 외부로의 이동은 수원시 인접지역에서 진행된 다양한 개발사업에 의해 공급된 신규주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수원시로 들어오는 경우 수원시 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특별히 주택사유로 인한 이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원시 내부의 대규모 주택사업으로 주택공급이 많아진 2011년~2014년에는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시기에서는 모두 순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사유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 8,574명에서 2020년 1,883명으로 순유입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동요인 중 총량은 크지 않지만 ‘교육’요인에서도 수원으로 전입하는 경우가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원시 내 대학교 등이 밀집되어 있어 보이는 현상이라 추정된다.

〈표 2-4〉 이주사유별 인구이동 추이

(단위: 명)

구분	직업사유		가족사유		주택사유		교육 사유		주거환경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2009	44,611	36,037	35,620	39,766	111,172	125,015	11,244	7,543	2,308	2,103
		8,574		-4,146		-13,843		3,701		205
2010	37,040	33,643	34,487	39,518	93,088	103,186	12,333	9,129	2,587	2,413
		3,397		-5,031		-15,098		3,204		174
2011	32,260	30,469	33,134	37,321	119,387	117,179	9,078	7,183	2,445	2,293
		1,791		-4,187		2,208		1,895		152
2012	37,893	33,868	39,220	39,654	117,815	103,073	9,832	7,090	2,671	2,565
		4,025		-434		14,742		2,742		106
2013	41,023	36,714	45,073	43,953	135,424	123,505	9,598	8,010	5,292	4,933
		4,309		1,120		11,919		1,588		359
2014	46,525	42,823	48,522	48,109	142,092	131,419	10,593	8,341	5,806	5,712
		3,702		413		10,673		2,252		94
2015	46,201	44,812	50,225	49,997	137,936	139,340	9,135	7,671	5,113	5,170
		1,389		228		-1,404		1,464		-57
2016	42,306	40,267	47,845	48,020	118,046	119,002	8,600	6,815	4,830	4,690
		2,039		-175		-956		1,785		140
2017	40,511	36,715	47,892	47,749	115,733	118,663	10,169	7,677	7,287	6,906
		3,796		143		-2,930		2,492		381
2018	42,755	39,786	49,235	50,573	115,246	124,446	10,289	8,166	8,777	8,649
		2,969		-1,338		-9,200		2,123		128
2019	40,526	38,665	45,944	48,939	103,059	115,074	10,616	8,480	9,755	9,825
		1,861		-2,995		-12,015		2,136		-70
2020	43,154	41,271	49,238	51,396	90,667	103,198	10,103	8,601	10,704	10,515
		1,883		-2,158		-12,531		1,502		189
합계	494,805	455,070	526,435	544,995	1,399,665	1,428,100	121,590	94,706	67,575	65,774
		39,735		-18,560		-28,435		26,884		1,801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제5절 가구유형별 인구이동

인구이동은 생애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선호하는 지역과 이주선택 결정요인이 차별적인 것으로 다양한 연구들에 의해 증명되었다. 생애주기 가설에 의한 공간적 변화특성을 살펴보면, 20~30대의 경우는 문화적 기회가 많은 지역, 고용기회가 높은 지역, 주거비용이 낮은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지역 등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이며, 40대 이후의 중장년은 자녀를 가지면서 외곽의 좀 더 넓은 주택을 선호하며 이주거리에 대한 저항감이 높다. 자녀들이 분가한 60대 이상의 노년층의 경우 외곽의 주택을 처분하고 자신의 소비규모에 맞춰 주택규모를 줄여 도심에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다(Rossi, 1995; 이정섭, 2011; 최성호 외, 2013).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MDIS 인구이동통계는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등의 정보를 구득할 수 있으나, 해당 가구가 미혼 청년 1인 가구인지, 신혼부부 2인 가구인지의 여부를 구분할 수는 없다. 가구 생애주기를 정교하게 구분하여 분석을 실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별 분석을 진행한 후 세부 교차분석에서는 가구원수와 가구주 연령을 교차하여 각 분류별 특징을 도출하였다. 가구주 연령기준은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년·중장년·노인 기준¹²⁾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1. 가구원수별 인구이동

수원시 가구원수별 이동을 살펴보면, 1인가구의 이동은 지난 20년간 평균 5.5(전출)~6.1(전입)만 가구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이동가구의 약 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가구는 3·4인 가구로 연평균 3.0(전출)~3.1(전입)만 가구가 이동하며, 2인가구는 약 1.4만 가구 가량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이동은 지난 20년간 모두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7년을 기준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는 시기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순이동이 비슷한 추이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4년부터 2005년, 2007년부터 2010년에는 순유출하는 경향을 보이며, 수원시 내 주택공급이 활발했던 2011년 이후부터 순유입이 진행되다가 2015년부터는 모든 가구에서 순유출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2) 청년: 만 40세 미만, 중장년: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 만 65세 이상

〈표 2-5〉 가구원수별 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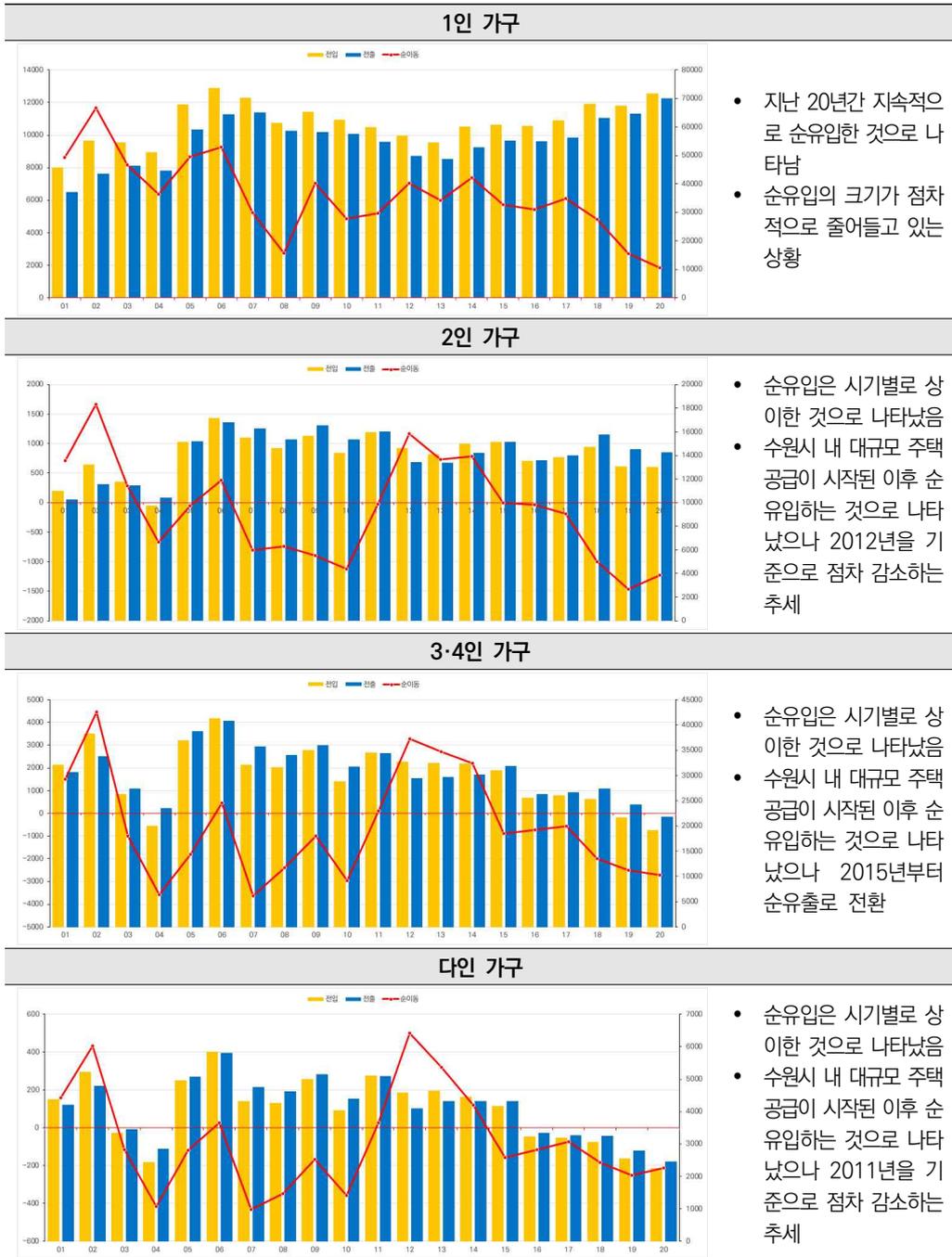
(단위 : 가구)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4인 가구			다인가구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2001	45,821	37,200	8,621	10,987	10,279	708	32,154	30,654	1,500	4,371	4,211	160
2002	55,217	43,560	11,657	13,224	11,555	1,669	38,246	33,778	4,468	5,219	4,785	434
2003	54,556	46,379	8,177	11,770	11,486	284	26,356	27,362	-1,006	3,341	3,455	-114
2004	51,039	44,683	6,356	9,737	10,405	-668	20,019	23,590	-3,571	2,436	2,852	-416
2005	67,833	59,152	8,681	15,141	15,192	-51	37,007	38,810	-1,803	4,966	5,084	-118
2006	73,741	64,479	9,262	17,161	16,780	381	41,328	40,861	467	5,842	5,814	28
2007	70,309	65,057	5,252	15,482	16,280	-798	32,120	35,758	-3,638	4,321	4,752	-431
2008	61,396	58,628	2,768	14,629	15,364	-735	31,683	34,073	-2,390	4,273	4,621	-348
2009	65,363	58,307	7,056	15,667	16,565	-898	34,987	35,971	-984	4,991	5,157	-166
2010	62,492	57,614	4,878	14,234	15,355	-1,121	28,837	31,804	-2,967	4,033	4,391	-358
2011	59,911	54,703	5,208	15,989	16,015	-26	34,495	34,385	110	5,114	5,087	27
2012	56,911	49,863	7,048	14,612	13,442	1,170	32,722	29,453	3,269	4,594	4,093	501
2013	54,657	48,663	5,994	14,106	13,374	732	32,455	29,725	2,730	4,646	4,326	320
2014	60,171	52,788	7,383	15,008	14,224	784	32,395	30,195	2,200	4,446	4,325	121
2015	60,861	55,115	5,746	15,157	15,159	-2	30,987	31,861	-874	4,163	4,322	-159
2016	60,440	55,002	5,438	13,541	13,578	-37	25,595	26,317	-722	3,227	3,343	-116
2017	62,400	56,287	6,113	13,831	14,016	-185	26,103	26,675	-572	3,192	3,266	-74
2018	68,097	63,265	4,832	14,739	15,742	-1,003	25,369	27,364	-1,995	3,065	3,247	-182
2019	67,412	64,690	2,722	13,051	14,520	-1,469	21,751	24,260	-2,509	2,547	2,797	-250
2020	71,870	70,000	1,870	13,023	14,250	-1,227	19,181	21,894	-2,713	2,247	2,460	-213
평균	61,525	55,272		14,054	14,179		30,190	30,740		4,052	4,119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2-6〉 가구원수별 인구이동 추이

(단위: 가구)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2. 가구주 연령별 인구이동

가구주 연령별로 이동을 살펴보면, 청년 가구의 이동은 지난 20년간 평균 5.6(전출)~6.3(전입)만 가구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이동가구의 약 5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가구는 중장년 가구로 연평균 4.1(전입)~4.2(전출)만 가구가 이동하며, 노인가구는 연평균 0.5만 가구가 전입·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가구는 지난 20년간 수원시로 지속적으로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0.6만 가구가 순유입하였다. 청년가구의 순이동 이주패턴은 1인 가구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데, 가장 순유입이 많았던 2002년 15,575가구에서 2020년에는 1,888가구로 감소하여 총 13,687가구가 감소하였다. 특히, 2017년을 기준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장년가구는 지난 20년간 수원시로 순유입한 시기보다 순유출이 발생한 시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유출이 많았던 시기는 2020년으로 최근 들어 순유출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중장년가구의 순유입이 발생했던 시기는 2012년에서 2014년으로 수원시 내의 광고지구, 호매실지구, 권선지구 등의 택지개발사업으로 타 시도에서 많이 유입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노인가구의 경우, 청년·중장년 가구와 비교할 때 이동량의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가구유형이 2017년을 기점으로 순이동이 급격히 감소하듯이 노인가구도 최근 3년간 급격히 순유출이 발생하였다.

최근 3년간 청년·중장년·노인 가구 모두 순유출이 급격히 발생하였다. 연접지역의 주택개발, 수원시 내 재개발 이슈, 연접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일자리 등의 문제로 많은 가구들이 이주한 것으로 파악되어 지며, 가구주 연령별로 어느 지역으로 이주하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수원시 아주패턴은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2-6〉 가구주 연령별 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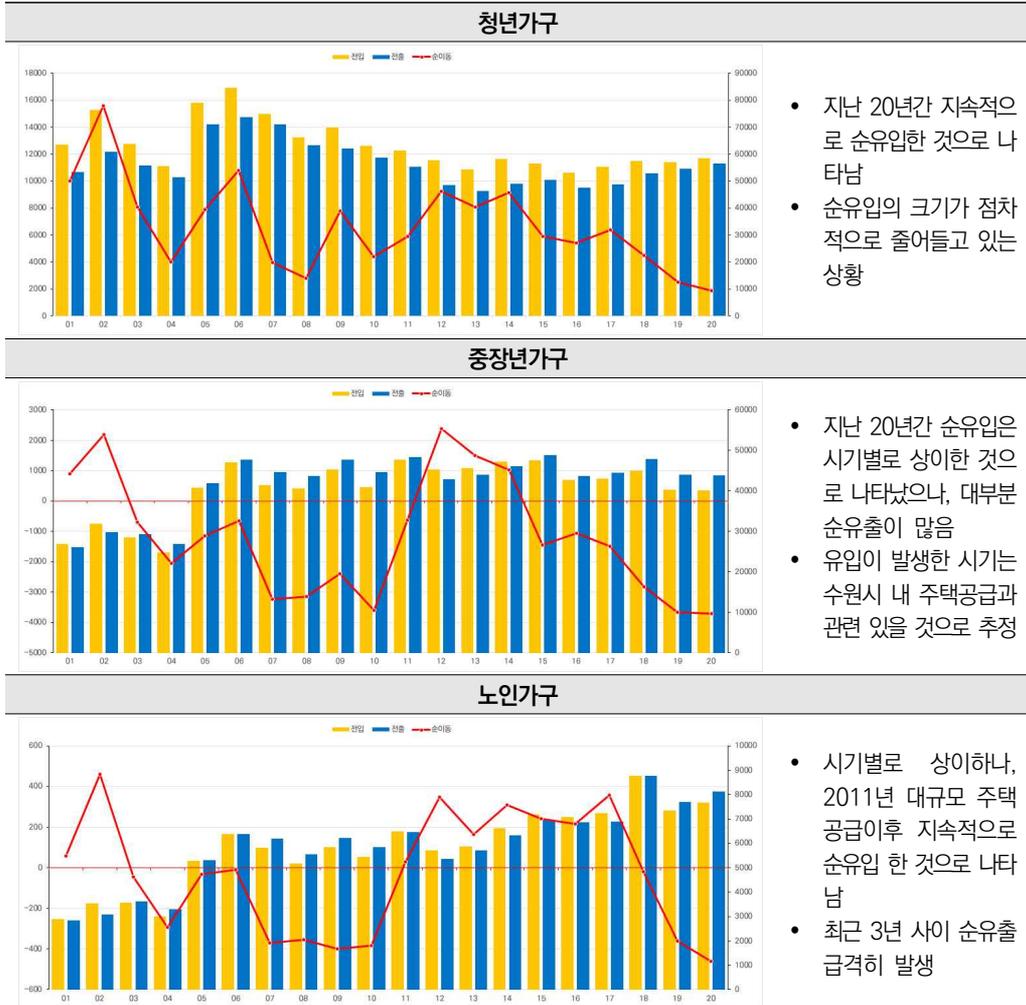
(단위 : 가구)

구분	청년 가구			중장년 가구			노인 가구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2001	63,540	53,500	10,040	26,899	26,009	890	2,894	2,835	59
2002	76,417	60,842	15,575	31,946	29,755	2,191	3,543	3,081	462
2003	63,895	55,821	8,074	28,552	29,239	-687	3,576	3,622	-46
2004	55,446	51,412	4,034	24,776	26,815	-2,039	3,009	3,303	-294
2005	78,955	71,071	7,884	40,702	41,845	-1,143	5,290	5,322	-32
2006	84,589	73,801	10,788	47,104	47,746	-642	6,379	6,387	-8
2007	74,979	70,995	3,984	41,425	44,655	-3,230	5,828	6,197	-369
2008	66,225	63,428	2,797	40,569	43,717	-3,148	5,187	5,541	-354
2009	69,805	62,013	7,792	45,365	47,751	-2,386	5,838	6,236	-398
2010	63,166	58,752	4,414	40,979	44,577	-3,598	5,451	5,835	-384
2011	61,306	55,388	5,918	47,707	48,336	-629	6,496	6,466	30
2012	57,855	48,600	9,255	45,278	42,892	2,386	5,706	5,359	347
2013	54,398	46,297	8,101	45,593	44,083	1,510	5,873	5,708	165
2014	58,209	49,057	9,152	47,176	46,148	1,028	6,635	6,327	308
2015	56,487	50,575	5,912	47,485	48,928	-1,443	7,196	6,954	242
2016	53,025	47,611	5,414	42,695	43,762	-1,067	7,083	6,867	216
2017	55,256	48,844	6,412	43,014	44,503	-1,489	7,256	6,897	359
2018	57,482	52,988	4,494	45,027	47,850	-2,823	8,761	8,780	-19
2019	57,133	54,608	2,525	40,285	43,955	-3,670	7,343	7,704	-361
2020	58,449	56,561	1,888	40,190	43,902	-3,712	7,682	8,141	-459
평균	63,331	56,608		40,638	41,823		5,851	5,878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2-7〉 가구주 연령별 인구이동 추이

(단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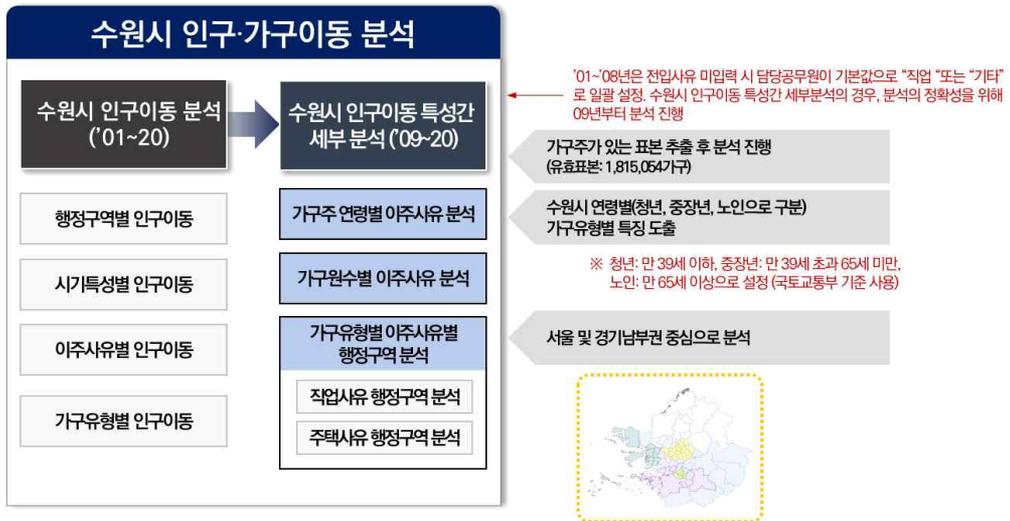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제6절 수원시 인구이동 특성 간 교차분석

수원시 내 인구이동의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가구주 연령별 이주사유, 가구원수별 이주사유 특성을 교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인구이동의 이주사유의 경우, 데이터 부정확성의 문제로 2009년 이후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주사유 중 직업 및 주택사유의 변동폭이 다른 사유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해당 목적으로 이주를 선택하는 가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2-8〉 수원시 인구이동 특성 간 교차분석



1. 가구원수별 이주사유

가구원수별 이주사유를 살펴보면, 1인가구는 다른 가구들과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인가구는 2009년 이후 직업사유로 모두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상당히 많은 양의 1인가구가 직업사유로 순유입하였다. 한편, 1인가구의 주택사유로의 순이동을 살펴보면, 수원시 대규모 주택공급이 시작되었던 2011년 이후 순유입으로 전환되어 2014년에 정점을 보이고 그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가 2018년부터는 주택사유로 순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인가구의 경우, 지난 십여 년간 이주사유별 순이동 합계를 살펴볼 때, 직업과 주택 모두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사유에서는 지난 10년간 497가구가 순유출하였으며, 주택사유에서는 3,214가구가 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2인 가구는 직업에 비해 주택사유에

의한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4인가구는 지난 십여 년간 직업 및 주택사유의 순이동 합계를 살펴보면, 직업사유로는 전입이 우세하고 주택사유로는 전출이 우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4인가구의 경우, 2009년, 2012년~2014년 직업사유로의 순전입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에는 순유출로 전환되었다.

모든 가구유형의 주택사유로의 이동은 수원시 내부 주택공급시기(2012년~2014년)에는 순유입이, 그 외의 시기에는 순유출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화성 동탄(2007년)·용인 판교, 흥덕지구(2008년)·오산 세교지구(2010년) 등의 주택공급이 있었던 시기에 대거 순유출이 발생하여 2010년까지 순유출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시 내 광교·호매실·권선 지구의 개발로 2011년~2014년 순유입하였으나, 이후 화성 및 시흥 등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재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가구원수별 직업 및 주택사유 가구이동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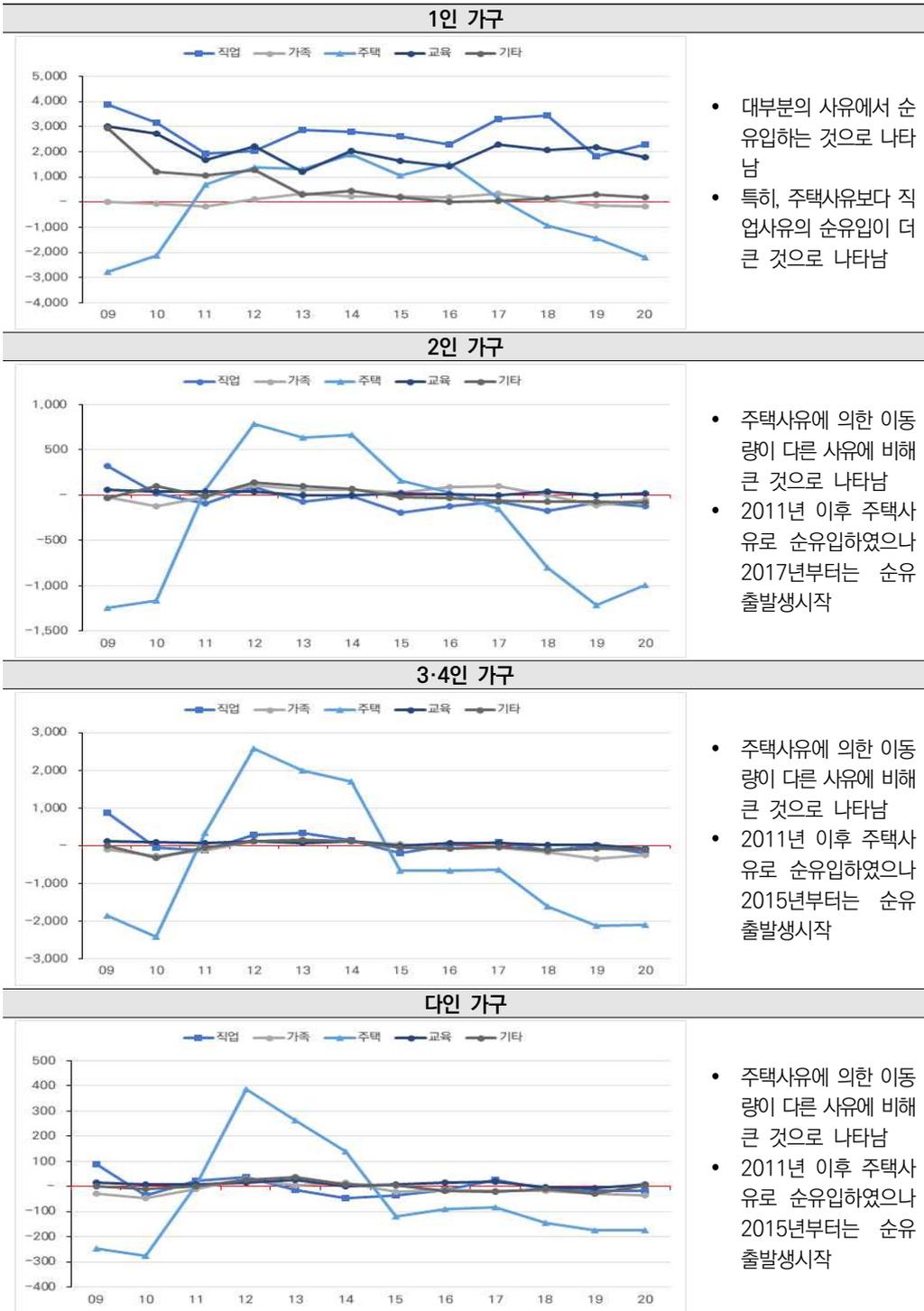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4인 가구		다인가구	
	직업	주택	직업	주택	직업	주택	직업	주택
2009	3,864	-2,755	327	-1,242	867	-1,861	87	-245
2010	3,159	-2,136	18	-1,157	-49	-2,418	-36	-274
2011	1,938	704	-94	60	-122	329	23	4
2012	2,040	1,379	95	787	284	2,592	38	388
2013	2,852	1,317	-69	637	344	2,003	-14	265
2014	2,783	1,892	-15	669	144	1,700	-45	139
2015	2,595	1,061	-195	159	-205	-651	-34	-119
2016	2,299	1,520	-124	28	16	-668	-12	-90
2017	3,299	139	-76	-151	89	-636	25	-83
2018	3,432	-938	-168	-802	-121	-1,613	-10	-143
2019	1,815	-1,438	-77	-1,215	-5	-2,111	-16	-173
2020	2,271	-2,189	-119	-987	-199	-2,093	-18	-173
합계	32,347	-1,444	-497	-3,214	1,043	-5,427	-12	-504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주: 국내인구이동통계의 이주사유 항목은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장에서는 직업 및 주택 사유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 진행

〈그림 2-9〉 가구원수별 인구이동 추이

(단위: 가구)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2. 가구주 연령별 이주사유

가구주 연령별 이주사유를 살펴보면, 직업 및 주택사유로의 이주 패턴은 가구주 연령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순이동량의 합계를 산정해보면, 다음 <표 2-8>과 같이 청년가구의 직업사유, 노인가구의 주택사유만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항목은 모두 순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사유로 지난 십여 년간 순유입된 청년가구는 40,947가구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전입하였으나,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청년가구에서 주택사유로의 순이동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3,312가구가 순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내부개발이 있던 시기 2011년 이후에는 전입하였으나, 2017년 이후부터는 순유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중장년과 노인가구는 대부분 직업사유에서 지난 십여 년간 순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가구는 주택사유로 수원시 개발시기 이외에는 모두 순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인가구는 2011년 수원시 주택공급이후 오랫동안 순전입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2019년부터는 노인가구를 포함한 모든 가구들이 주택사유에서 순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청년가구는 직업사유로 순전입하였으며, 중장년·노인가구는 직업사유로 대부분 순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사유의 경우, 수원시 내부개발이 있었던 2011년 이후부터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순유입이 몇 년간 지속되다가 최근에는 순유출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8〉 가구주 연령별 직업 및 주택사유 가구이동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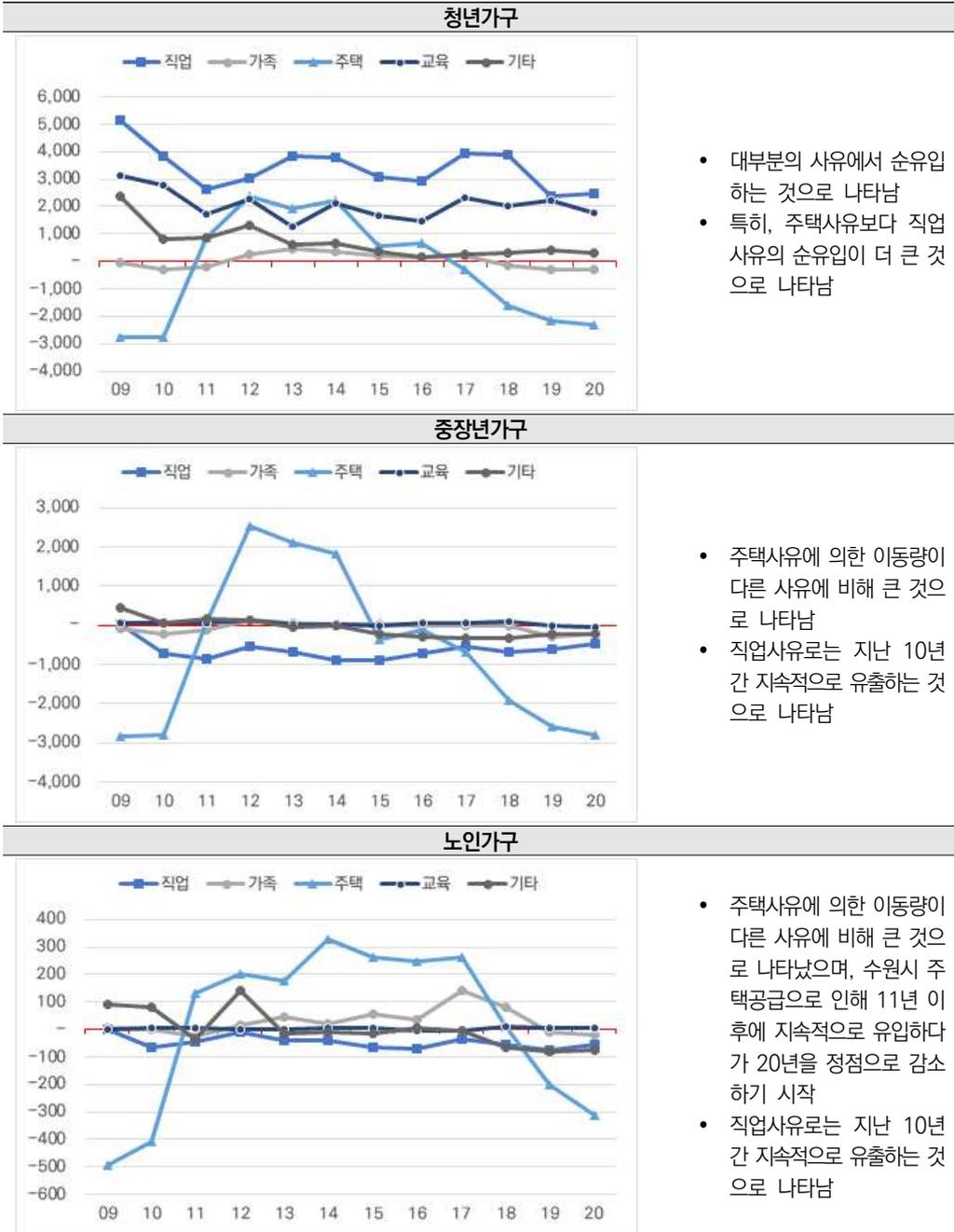
구분	청년가구		중장년가구		노인가구	
	직업	주택	직업	주택	직업	주택
2009	5,126	-2,771	20	-2,839	-1	-493
2010	3,858	-2,778	-703	-2,799	-63	-408
2011	2,643	867	-853	100	-45	130
2012	3,010	2,399	-542	2,546	-11	201
2013	3,837	1,925	-682	2,119	-42	178
2014	3,784	2,237	-876	1,833	-41	330
2015	3,101	544	-875	-358	-65	264
2016	2,951	660	-704	-117	-68	247
2017	3,925	-300	-552	-692	-36	261
2018	3,868	-1,603	-680	-1,902	-55	9
2019	2,390	-2,162	-598	-2,572	-75	-203
2020	2,454	-2,330	-464	-2,799	-55	-313
합계	40,947	-3,312	-7,509	-7,480	-557	203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주: 국내인구이동통계의 이주사유 항목은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장에서는 직업 및 주택 사유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 진행

〈그림 2-10〉 가구주 연령별 이주사유 추이

(단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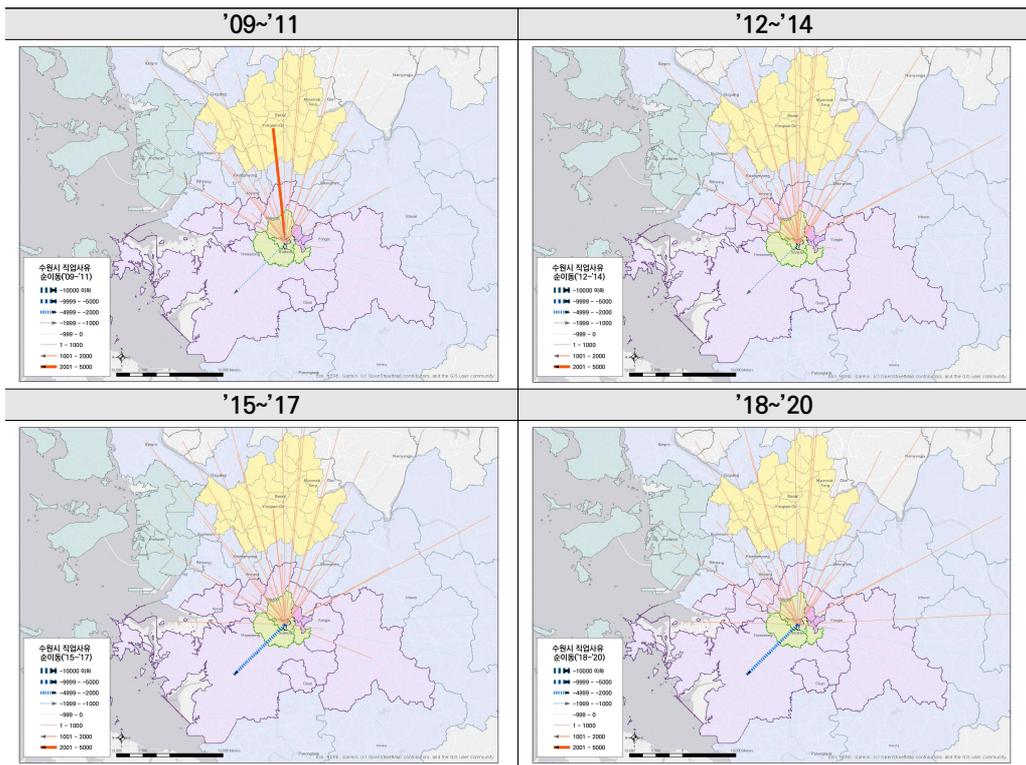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3. 이주사유별·가구유형별 상세 분석

1) 직업사유 이동패턴

수원시에 직업사유로 이동하는 가구를 살펴보면, 지난 십여 년간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중부지역에서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부터 2020년에는 서울 및 경기북부지역으로 순유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화성시로는 지난 십여 년간 지속적으로 직업사유로 순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규모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1〉 직업사유 시기별 인구이동 추이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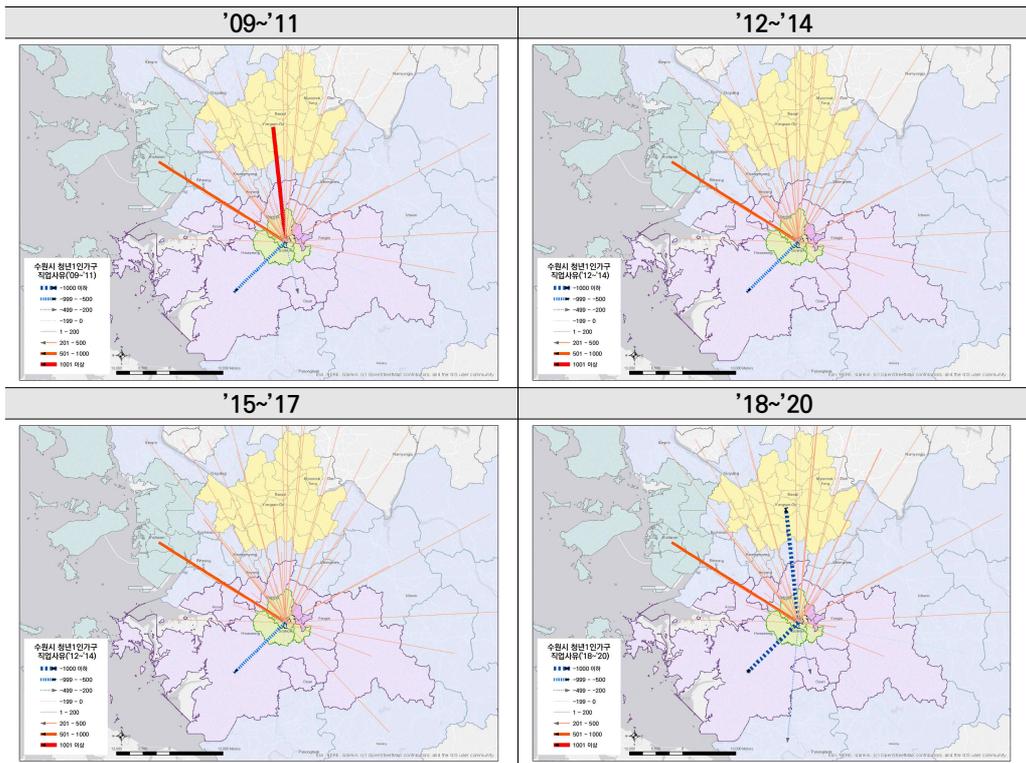
범례: 가구단위

■ ■ ■ ■ ■	-10000 이하	—	1 - 1000
■ ■ ■ ■ ■	-9999 ~ -5000	←	1001 - 2000
■ ■ ■ ■ ■	-4999 ~ -2000	→	2001 - 5000
■ ■ ■ ■ ■	-1999 ~ -1000		
■ ■ ■ ■ ■	-999 ~ 0		

(1) 청년1인가구 직업사유 이동

청년 1인가구의 경우, 2017년까지는 서울·인천 및 수도권 중부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 이후 서울로 순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십여 년간 화성·오산·평택으로는 지속적으로 순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히 화성시로의 순유출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2〉 청년1인가구 직업사유 시기별 인구이동 추이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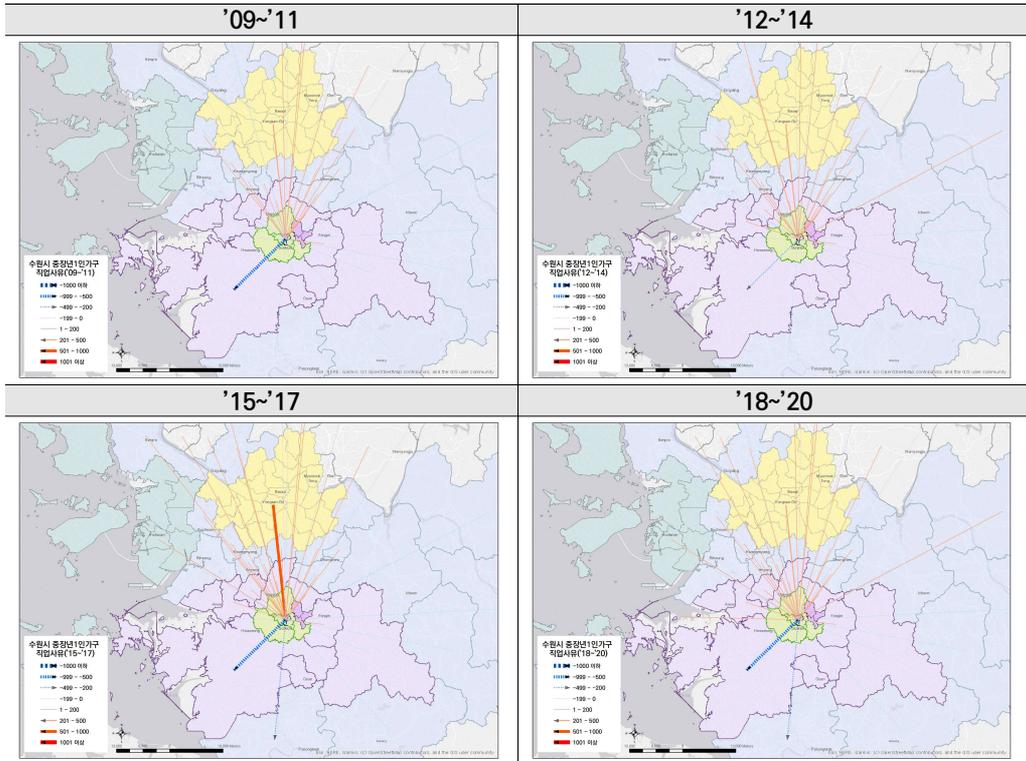
범례: 가구단위



(2) 중장년 1인가구 직업사유 이동

중장년 1인가구의 경우, 지난 십여 년간 서울 및 수도권 중부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주한 이동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화성·오산·평택시로 지속적으로 순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3〉 중장년1인가구 직업사유 시기별 인구이동 추이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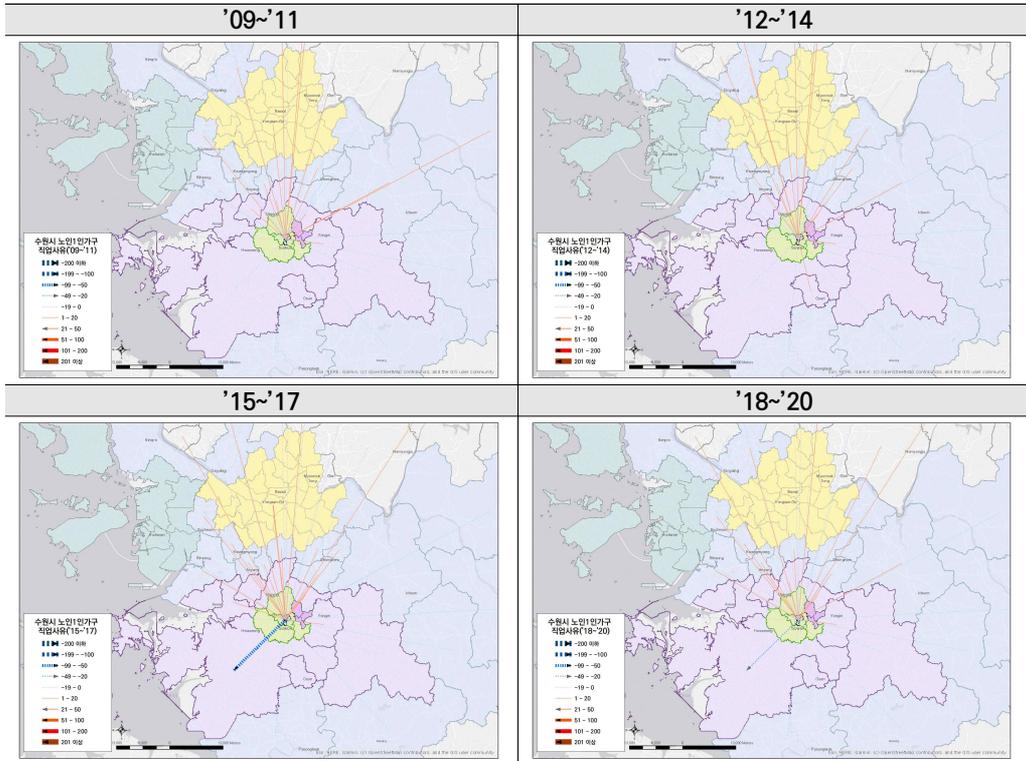
범례: 가구단위



(3) 노인 1인가구 직업사유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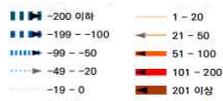
노인 1인가구는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직업사유로 이주하는 이동량이 작은 편이나, 전반적으로 수원시보다 남측에 위치한 경기남부지역으로 주로 유출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5년 이후 직업사유로 화성시로 순유출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한편, 2018년부터는 서울시로 직업사유로 순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4〉 노인1인가구 직업사유 시기별 인구이동 추이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범례: 가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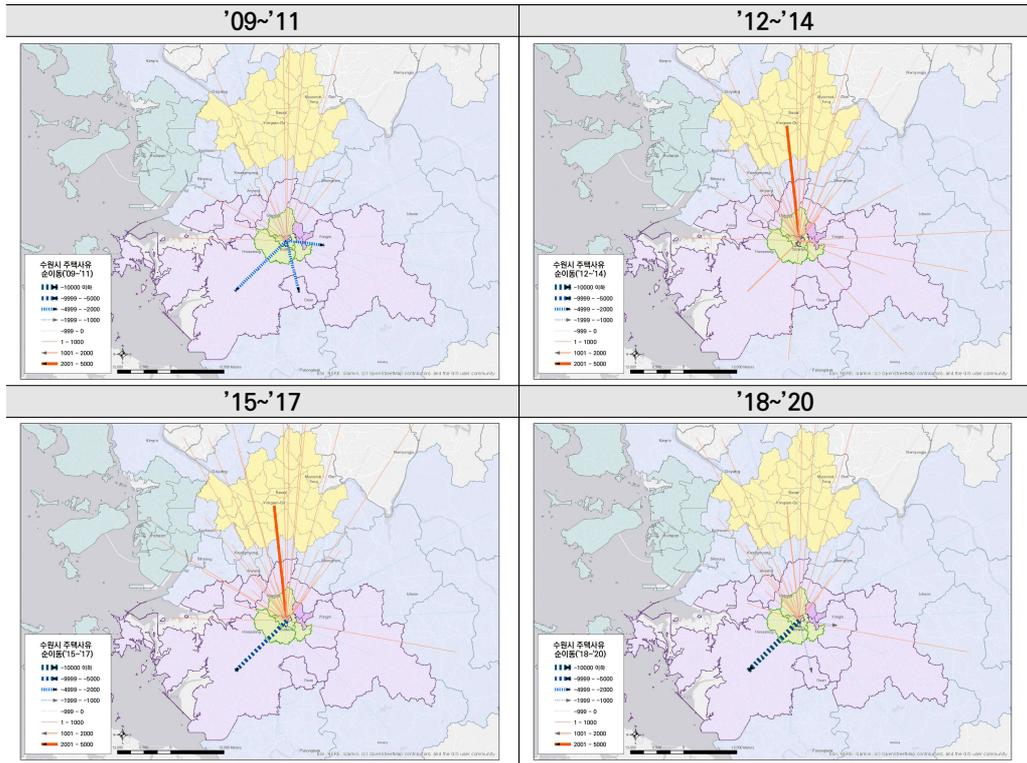


2) 주택사유 이동패턴

〈그림 2-15〉 수원시 순 인구이동 및 수원시 인접지역 주택공급



〈그림 2-16〉 주택사유 시기별 인구이동 추이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범례: 가구단위

■ ■ ■ ■ -10000 이하	— 1 - 1000
■ ■ ■ ■ -9999 - 5000	— 1001 - 2000
■ ■ ■ ■ -4999 - 2000	— 2001 - 5000
■ ■ ■ ■ -1999 - 1000	
■ ■ ■ ■ -999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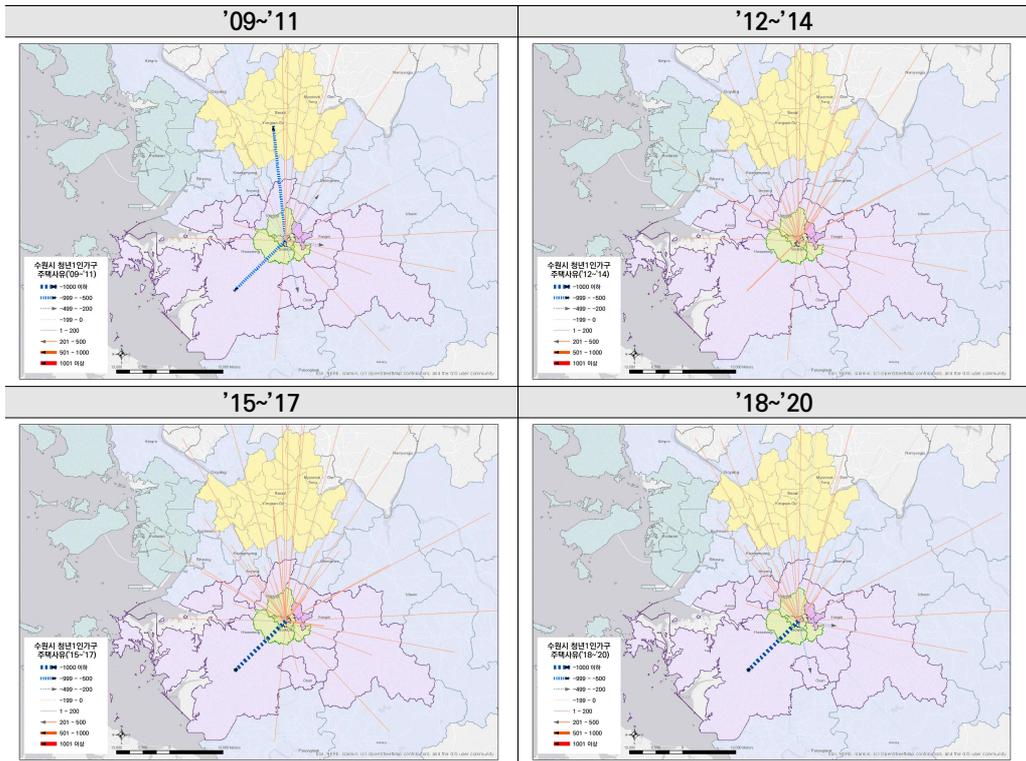
2011년 이전에는 인접지역 화성 동탄지구, 오산 세교지구, 용인 흥인지구의 주택개발로 인해 순유출 발생하나 수원시 내 대규모 주택공급이 있었던 2011년~2014년은 주택사유로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화성시로는 2012년~2014년 사이를 제외하고는 지속적 순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청년1인가구 주택사유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전반적인 주택사유 이주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2011년 이전에는 주택공급이 있었던 인접지역 화성·오산·용인뿐만 아니라 성남, 용인 등의 지역까지 이주하는 패턴을 보여 타 가구유형에 비해 이동반경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내 개발이 활성화된 2011년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부터는 화성·용인·오산 등 경기남부지역으로 순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7〉 청년1인가구 주택사유 시기별 인구이동 추이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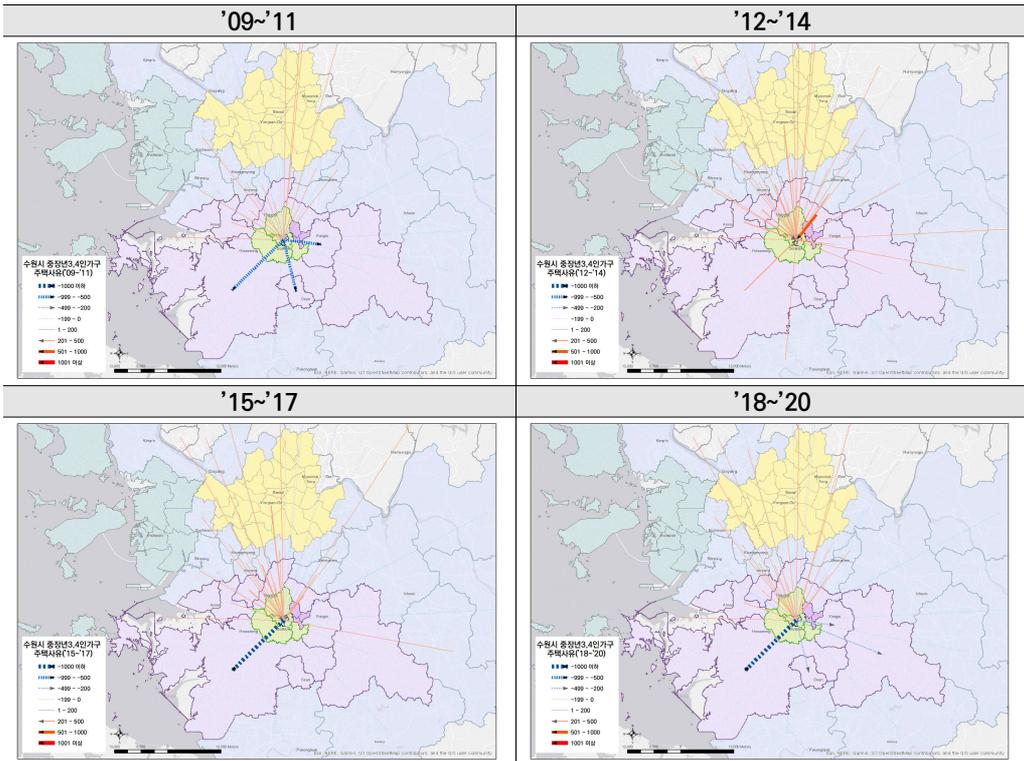
범례: 가구단위



(2) 중장년3·4인가구 주택사유

중장년 3·4인가구의 경우, 2011년 이전에는 인접지역 주택개발로 인해 순유출이 발생하나, 수원시 주택개발 등으로 2011년 이후 순유입량이 많아졌다. 특히 용인시 수지구 및 화성시 등에서 순유입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는 화성시로 지속적으로 유출되며, 점차 용인 기흥구 및 처인구, 오산 등 경기남부지역으로 순유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2-18〉 중장년3·4인가구 주택사유 시기별 인구이동 추이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범례: 가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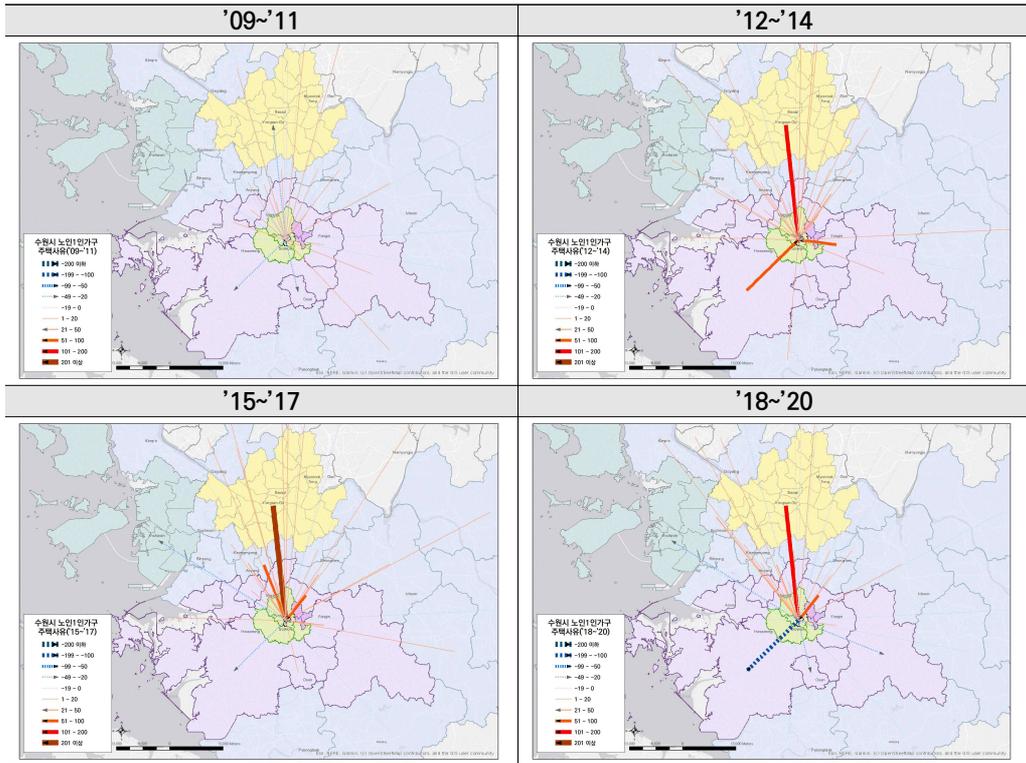


(3) 노인1인가구 주택사유

노인 1인가구의 주택사유로의 이동은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절대적 규모는 작으나, 이주패턴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내 주택공급이 일어나기 전에는 서울, 화성, 오산시 등으로 순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다가, 수원시 내 주택공급이 많아지기 시작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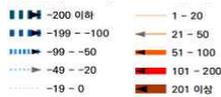
다.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서울 및 용인으로부터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타 가구유형에 비해 서울에서 순유입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이후부터는 화성, 오산, 용인, 인천 등으로 비교적 넓은 영역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9〉 노인1인가구 주택사유 시기별 인구이동 추이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범례: 가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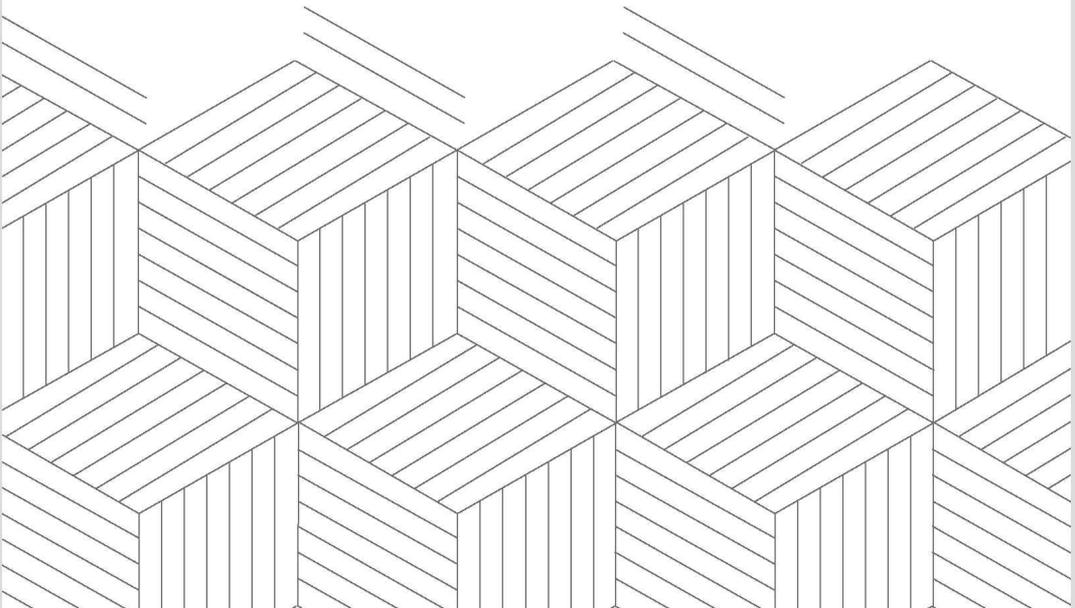
3) 총괄정리

〈표 2-9〉 가구특성별 세부분석 정리

이주사유	구분		특징
	이주사유	가구유형	
직업사유		청년1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가구에 비해 청년가구는 수원시로부터 반경이 넓은 지역까지도 전입전출이 원활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 및 수도권 중부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2018년 이후부터는 서울시로의 순유출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 한편, 화성시 등 수원의 남단에 위치한 오산, 평택 등 경기남부 지역으로는 지속적으로 순유출
		중장년1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년 1인가구는 지난 20년간 서울 및 수도권 중부지역에서 유입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화성시로 대거 순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5년부터 2017년 서울시에서 일시적으로 순유입이 일어났으며, 2015년부터는 화성시 외에 평택 등으로도 순유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노인1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사유로 이동하는 노인가구는 타 가구에 비해 전입전출 절대량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주로 서울 및 수도권 중부지역에서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이한 것은 2015년부터 상당한 양이 화성시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남
주택사유		청년1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시 내 대규모 주택공급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서울 및 경기남부지역으로 순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공급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5년부터는 화성시로 순유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 이후부터는 화성, 오산, 용인 등으로 순유출이 발생하기 시작
		중장년3·4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시 내 대규모 주택공급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화성, 오산, 용인 등의 주택개발사업으로 해당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2012년부터 2014년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용인 수지에서 유입되는 이동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15년부터는 화성시로 대거 순유출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점차 오산시, 용인 기흥·처인구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노인1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시 내 주택공급이 일어나기 전에는 서울, 화성, 오산시 등으로 순유출 수원시 내 주택공급이 많아지기 시작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 및 용인으로부터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타 가구유형에 비해 서울에서 순유입하는 비중이 높음 2018년 이후부터는 화성, 오산, 용인, 인천 등으로 비교적 넓은 영역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신도시·원도심 인구이동 특성

- 제1절 신도시·원도심 권역 설정 및 인구이동
- 제2절 신도시 지역여건과 이동 요인
- 제3절 원도심 지역여건과 이동 요인



제3장 신도시·원도심 인구이동 특성

제1절 신도시·원도심 권역 설정 및 인구이동

1. 원도심 및 신도시 권역 설정

본 연구에서 신도시는 2011년 수원시 내 대규모 주택공급이 일어났던 광교신도시로 설정하였으며, 원도심의 경우, 수원시 내 낙후재생지역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설정하였다. 광교신도시는 광교1동, 광교2동, 원천동을 신도시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원도심은 매향동, 지동, 행궁동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3-1〉 수원시 신도시 및 원도심 권역설정



〈표 3-1〉 수원시 원도심 및 신도시 설정

구분	행정동 권역	비고
원도심	매교동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쇠퇴지역으로 구분된 행정동을 선정 ¹³⁾
	지동	
	행궁동	
신도시	광고1동	광고신도시 개발구획도 참고
	광고2동	
	원천동	

〈그림 3-2〉 신도시 및 원도심 분석흐름도



13) 최석환, 이설희. (2017). 「수원시 쇠퇴구역 현황 및 분석방안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최석환, 조규만. (2013). 「수원시 구시가지 쇠퇴현황 및 도시재생 정책 대응방안」, 수원시정연구원.
 위의 연구를 참고하여 공통적으로 쇠퇴지역으로 분석된 행정구역을 도출하여 원도심 권역으로 설정

2. 원도심 및 신도시 인구이동 비교분석

수원시 신도시의 전입가구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20.6천 가구로, 가장 많았던 해는 2012년 약 29.5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출가구는 연평균 13.0천 가구로, 약 7.6천 가구가 수원시에 매년 순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교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된 2011년에 순이동량이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2020년까지 순유출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원시 원도심 전입가구는 연평균 6.2천 가구, 전출가구는 연평균 7.1천 가구로 매년 약 1천 가구가 순유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도심의 전출량은 특히 2018년도에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이는 수원시 원도심 내의 재개발 사업¹⁴⁾으로 원주민의 일시적인 이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3-2〉 신도시 및 원도심 가구이동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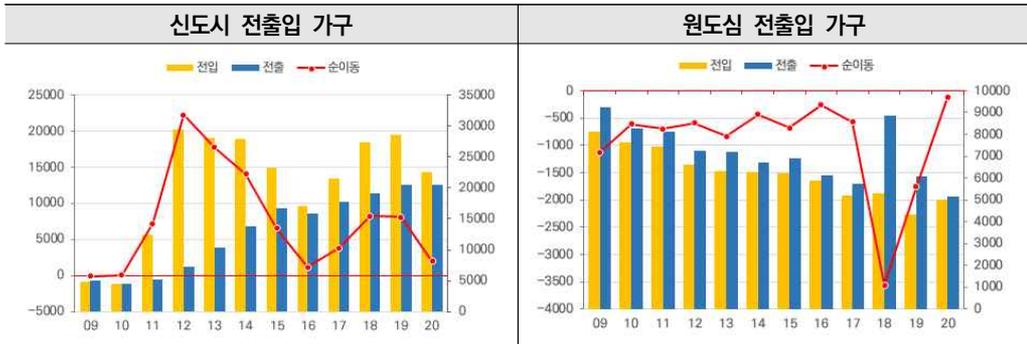
구분	신도시			원도심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2009	4,909	4,992	-83	8,101	9,227	-1,126
2010	4,528	4,464	64	7,657	8,269	-612
2011	12,408	5,204	7,204	7,449	8,143	-694
2012	29,453	7,224	22,229	6,627	7,223	-596
2013	27,995	10,288	17,707	6,341	7,173	-832
2014	27,910	13,827	14,083	6,292	6,732	-440
2015	23,192	16,666	6,526	6,228	6,910	-682
2016	17,012	15,797	1,215	5,873	6,137	-264
2017	21,554	17,702	3,852	5,178	5,753	-575
2018	27,276	19,053	8,223	5,296	8,857	-3,561
2019	28,522	20,440	8,082	4,321	6,077	-1,756
2020	22,549	20,522	2,027	5,028	5,150	-122
평균	20,609	13,015		6,199	7,138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14) 권선6구역, 팔달6·8·10구역.

〈그림 3-3〉 신도시 및 원도심 가구이동 비교

(단위: 가구)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1) 신도시 및 원도심 행정구역별 이동 비교

수원시 신도시의 인구이동은 지난 십여 년간 수원시 내에서 약 50% 발생하였고 경기도에서 30%, 그 외 지역에서 약 20%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원도심의 경우, 수원시 내에서 약 70%, 경기도에서 약 15%, 그 외 지역에서 15%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에서 신도시로의 전입·전출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경기남부지역에서는 평균 6.4천 가구가 수원시로 전입하였으며, 3.8천 가구가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 약 2.6천 가구가 매년 수원을 제외한 경기남부지역으로 순유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평균 0.4천 가구가 전입, 0.2천 가구가 전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년 0.2천 가구가 순전입한다. 서울시는 매년 평균 2.0천 가구가 전입, 1.0천 가구가 전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 1.0천 가구가 매년 순유입하며, 인천시의 경우, 매년 평균 0.3천 가구가 전입, 0.2천 가구가 전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 0.1천 가구가 순유입하였다. 수도권 내의 모든 지역 경기남부, 경기북부, 서울시, 인천시에서는 순유입의 영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기남부지역에서의 순유입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이동의 크기를 비교하면, 경기남부>서울>경기북부>인천 순으로 가구 순유입이 발생하였다.

한편 원도심의 전입·전출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경기남부지역에서는 평균 0.1천 가구가 수원시로 전입하였으며, 0.2천 가구가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 약 0.1천 가구가 매년 수원을 제외한 경기남부지역으로 순유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평균 0.01천 가구가 전입·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는 매년 평균 0.05천 가구가 전입, 0.04천 가구가 전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 0.01천 가구가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심의 경우, 신도시와 다르게 경기북부 및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순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심의 순유출은 경기남부지역에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이동의 절대적 크기는 경기남부>서울>경기북부>인천 순으로 가구 이동이 발생하였다.

〈표 3-3〉 신도시 및 원도심 행정구역별 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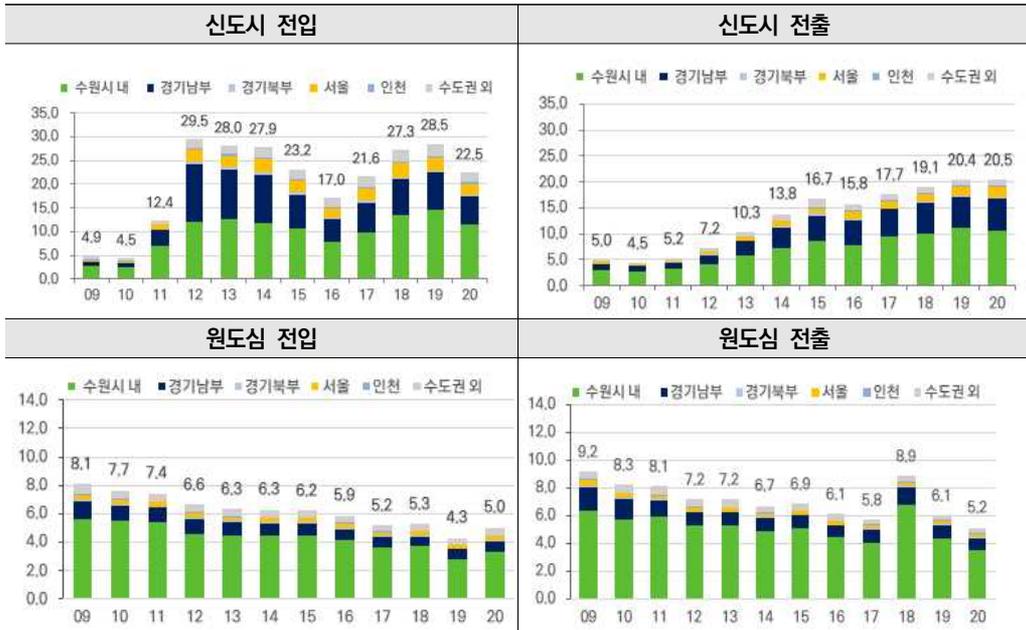
(단위 : 천 가구)

구분	신도시 전입						신도시 전출					
	수원시	경기남부	경기북부	서울시	인천시	기타	수원시	경기남부	경기북부	서울시	인천시	기타
2009	2.76	0.76	0.08	0.43	0.08	0.8	3.03	1.17	0.05	0.39	0.04	0.32
2010	2.50	0.74	0.06	0.38	0.08	0.76	2.65	1.08	0.04	0.29	0.06	0.35
2011	7.08	3.20	0.23	0.91	0.15	0.84	3.36	1.04	0.05	0.3	0.07	0.39
2012	12.13	12.02	0.59	2.51	0.37	1.84	4.13	1.77	0.09	0.53	0.1	0.6
2013	12.61	10.45	0.51	2.45	0.36	1.62	5.77	2.76	0.14	0.8	0.14	0.69
2014	11.7	10.34	0.55	2.66	0.41	2.25	7.31	3.74	0.34	1.05	0.21	1.18
2015	10.81	7.00	0.43	2.47	0.37	2.12	8.73	4.81	0.38	0.98	0.28	1.49
2016	7.79	4.74	0.32	2.15	0.25	1.77	7.81	4.89	0.27	1.23	0.23	1.37
2017	9.95	6.10	0.42	2.59	0.34	2.17	9.37	5.36	0.19	1.29	0.2	1.3
2018	13.37	7.65	0.43	2.95	0.4	2.49	9.96	6.06	0.21	1.47	0.21	1.15
2019	14.71	7.75	0.4	2.64	0.48	2.54	11.05	5.95	0.25	1.78	0.26	1.16
2020	11.56	5.89	0.38	2.28	0.32	2.13	10.48	6.31	0.26	2.12	0.25	1.1
평균	9.75	6.39	0.37	2.04	0.3	1.78	6.97	3.75	0.19	1.02	0.17	0.93
구분	원도심 전입						원도심 전출					
	수원시	경기남부	경기북부	서울시	인천시	기타	수원시	경기남부	경기북부	서울시	인천시	기타
2009	5.59	1.25	0.11	0.38	0.07	0.7	6.35	1.68	0.10	0.42	0.09	0.59
2010	5.57	1.02	0.08	0.35	0.08	0.56	5.78	1.40	0.09	0.33	0.08	0.58
2011	5.45	0.95	0.09	0.33	0.08	0.54	5.95	1.15	0.09	0.29	0.09	0.58
2012	4.6	1.00	0.08	0.33	0.09	0.53	5.28	0.95	0.09	0.27	0.11	0.53
2013	4.49	0.92	0.08	0.27	0.08	0.5	5.29	0.95	0.07	0.24	0.09	0.54
2014	4.46	0.84	0.09	0.32	0.06	0.53	4.94	0.92	0.07	0.27	0.08	0.46
2015	4.45	0.88	0.07	0.31	0.07	0.45	5.13	0.9	0.07	0.24	0.07	0.51
2016	4.15	0.77	0.06	0.34	0.09	0.46	4.48	0.83	0.05	0.25	0.07	0.47
2017	3.68	0.70	0.05	0.26	0.07	0.42	4.06	0.96	0.06	0.23	0.06	0.38
2018	3.71	0.70	0.08	0.26	0.07	0.48	6.75	1.33	0.06	0.23	0.07	0.41
2019	2.86	0.65	0.06	0.25	0.06	0.45	4.36	1.01	0.05	0.23	0.07	0.35
2020	3.36	0.73	0.06	0.3	0.07	0.51	3.56	0.84	0.08	0.22	0.08	0.38
평균	4.36	0.87	0.08	0.31	0.07	0.51	5.16	1.08	0.07	0.27	0.08	0.48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3-4〉 신도시·원도심 행정구역별 전출입 추이

(단위: 천 가구)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2) 신도시 및 원도심 이주사유별 이동 비교

수원시 신도시와 원도심의 시도 간 이동인구의 전입과 전출목적을 비교하면, 신도시는 대부분의 사유에서 전입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도심의 경우 주택사유로 전출이, 직업사유로 전입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순이동 합계를 살펴보면, 신도시의 경우 직업사유로 총 1.3만 가구, 주택사유로 총 6.1만 가구가 순유입되었고, 원도심은 직업사유로 8백 가구가 순유입, 주택사유로 1.1만 가구가 순유출되었다.

권역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원시 신도시는 광교지구의 입주시기인 2011년 이후 대부분의 사유에서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이후 주택사유로의 순이동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18,731가구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순유출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직업사유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1천 가구가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요인 중 총량은 크지 않지만 교육사유로 인한 이동도 매년 5백 가구 가량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도심의 경우, 직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유에서 전출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심 직업사유의 경우, 2014년에 234가구가 순유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나다가, 2020년에 371가구가 순유입되어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순유입이 발생하였다. 주택사유의 경우,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순유출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2018년에는 순유출량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 시기에 진행되었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일시적 유출로 판단된다.

〈표 3-4〉 이주사유별 가구이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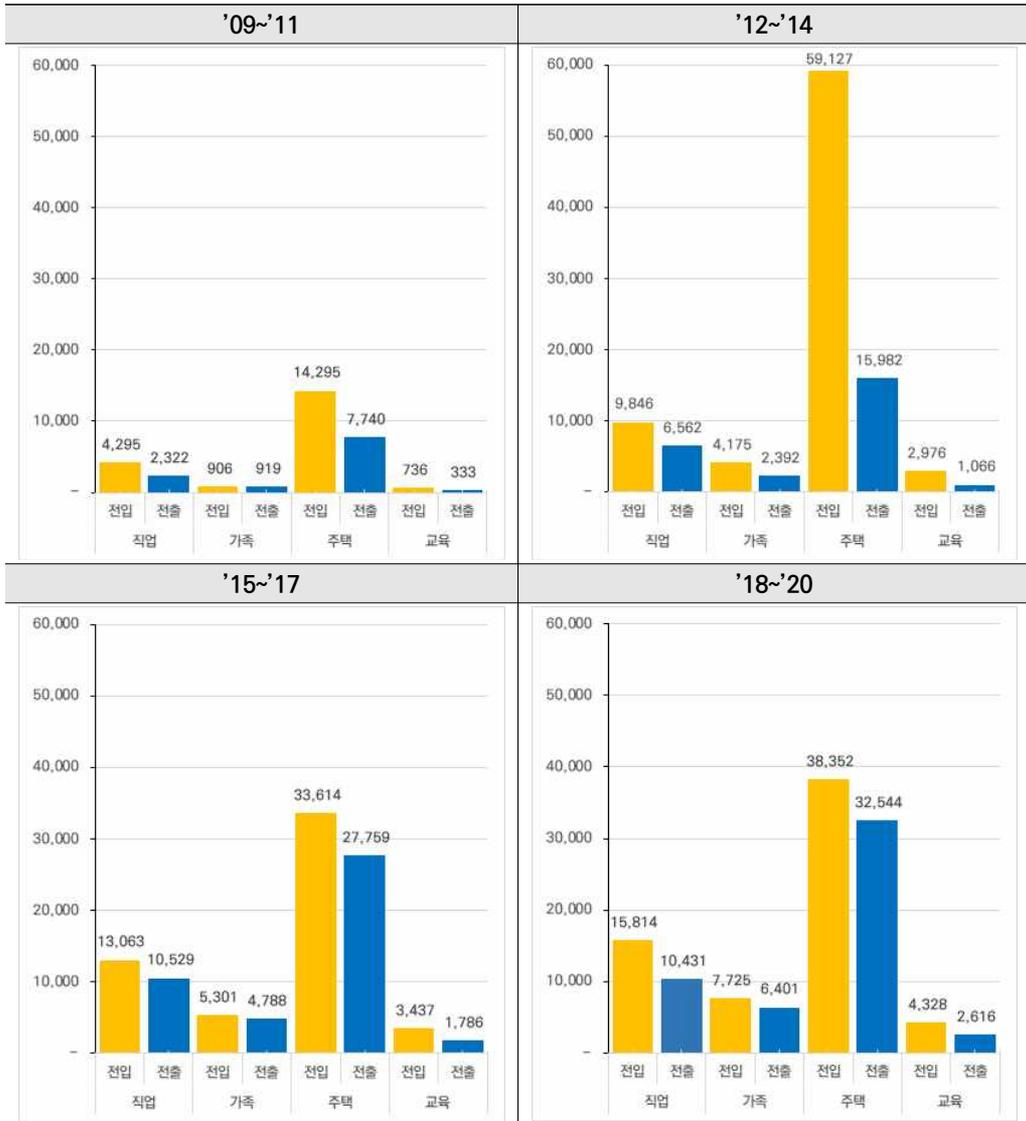
(단위: 가구)

신도시	직업사유			가족사유			주택사유			교육 사유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2009	1646	693	953	244	283	-39	2057	2757	-700	306	127	179
2010	1432	825	607	293	319	-26	2063	2234	-171	261	103	158
2011	1217	804	413	369	317	52	10175	2749	7426	169	103	66
2012	3225	1567	1658	1476	546	930	21936	3205	18731	1152	219	933
2013	3201	2101	1100	1429	769	660	19507	5195	14312	781	332	449
2014	3420	2894	526	1270	1077	193	17684	7582	10102	1043	515	528
2015	4481	3777	704	1566	1461	105	13992	9295	4697	983	512	471
2016	4206	3612	594	1566	1526	40	8677	8568	109	721	559	162
2017	4376	3140	1236	2169	1801	368	10945	9896	1049	1733	715	1018
2018	5437	3309	2128	2661	2041	620	13896	10369	3527	1517	775	742
2019	5227	3387	1840	2586	2158	428	14677	11356	3321	1661	881	780
2020	5150	3735	1415	2478	2202	276	9779	10819	-1040	1150	960	190
합계	43018	29844	13174	18107	14500	3607	145388	84025	61363	11477	5801	5676
원도심	직업사유			가족사유			주택사유			교육 사유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2009	1236	1296	-60	447	465	-18	2970	3944	-974	235	183	52
2010	1150	1145	5	363	447	-84	1862	3222	-1360	174	183	-9
2011	1107	991	116	348	411	-63	2665	3415	-750	118	80	38
2012	1005	1035	-30	365	510	-145	2429	3059	-630	140	147	-7
2013	1180	1326	-146	601	634	-33	3094	3828	-734	137	170	-33
2014	1629	1395	234	864	760	104	3105	3865	-760	150	166	-16
2015	1589	1387	202	851	730	121	3014	3963	-949	126	179	-53
2016	1277	1157	120	649	601	48	3534	3783	-249	86	92	-6
2017	1121	1084	37	527	622	-95	2690	3190	-500	125	123	2
2018	1290	1273	17	372	795	-423	2582	5603	-3021	79	112	-33
2019	1046	1087	-41	376	575	-199	1927	3408	-1481	85	114	-29
2020	1536	1165	371	545	642	-97	1915	2351	-436	134	116	18
합계	15166	14341	825	6308	7192	-884	31787	43631	-11844	1589	1665	-76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3-5〉 신도시 이주사유별 가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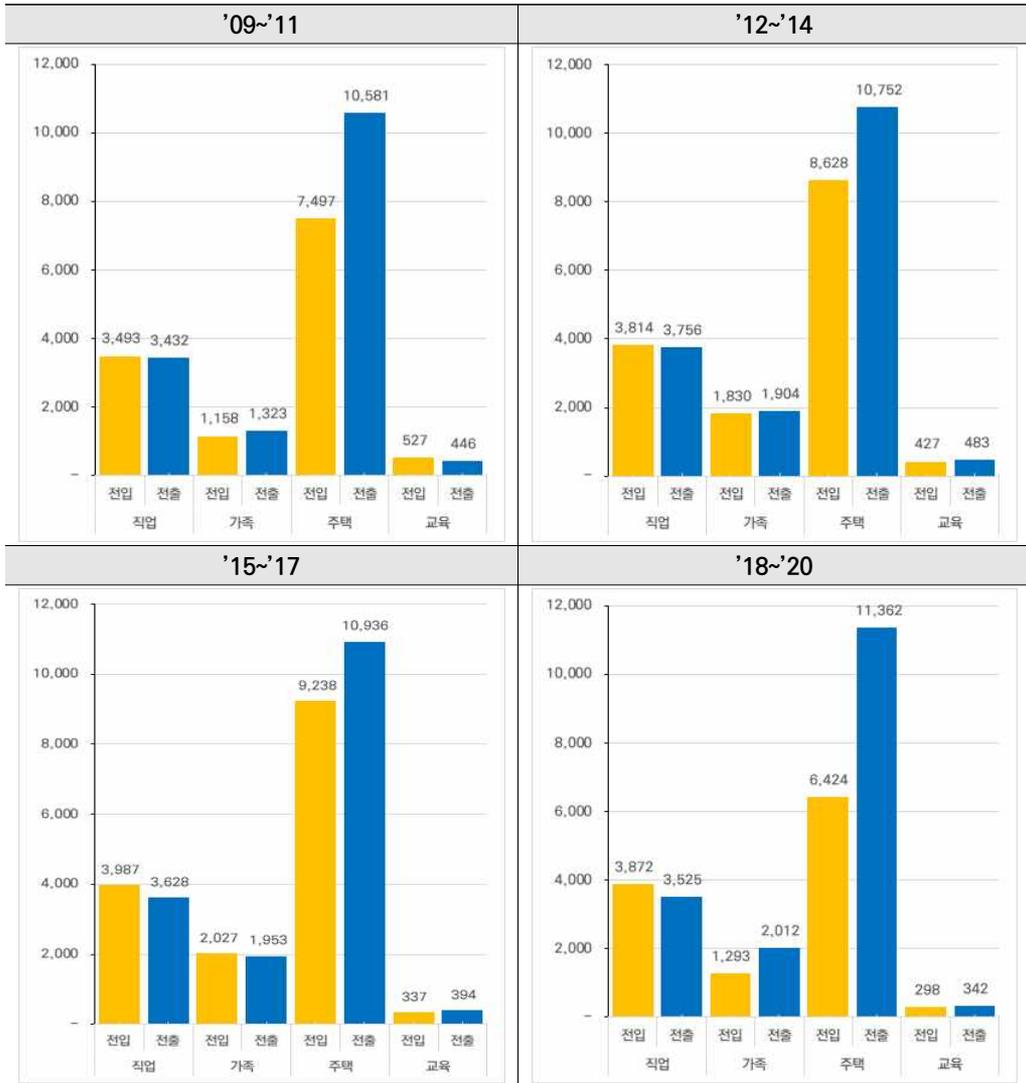
(단위: 가구)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3-6〉 원도심 이주사유별 가구이동

(단위: 가구)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3) 신도시 및 원도심 가구특성별 이동 비교

(1) 신도시 가구특성별 가구이동

① 가구원수별 가구이동

신도시의 가구원수별 이동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 1인 가구는 모두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연평균 3.8(전출)~5.9(전입)천 가구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4인 가구는 연평균 6.2(전출)~10.1(전입)천 가구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가구 유형 모두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인 가구와 3·4인 가구만큼의 비중은 아니지만, 2인 가구는 연평균 1.8(전출)~2.6(전입)천 가구, 다인 가구는 연평균 1.1(전출)~2.0(전입)천 가구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시기에서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교신도시 입주시기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모든 가구유형에서 순유입하였으나, 그 이후 2016년에는 1인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유출되었다가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 2016년 순유입량이 줄어든 이유는 광교신도시 내 입주물량 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추정되어진다.

〈표 3-5〉 신도시 가구원수별 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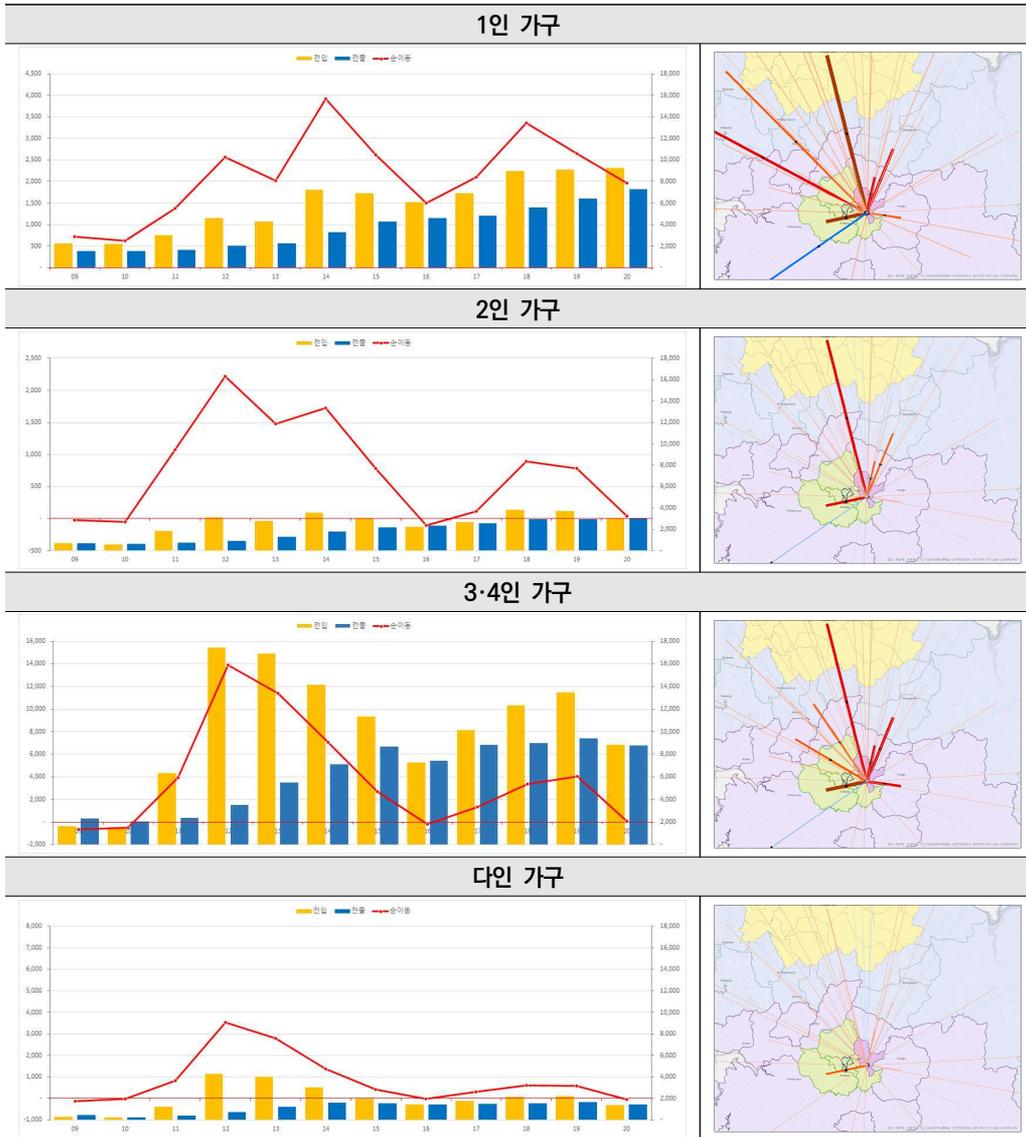
(단위 : 가구)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4인 가구			다인가구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2009	2,267	1,548	719	690	714	-24	1,659	2,299	-640	293	431	-138
2010	2,177	1,549	628	588	636	-48	1,543	2,035	-492	220	244	-24
2011	3,028	1,645	1,383	1,828	750	1,078	6,304	2,390	3,914	1,248	419	829
2012	4,632	2,061	2,571	3,116	892	2,224	17,444	3,539	13,905	4,261	732	3,529
2013	4,292	2,267	2,025	2,788	1,312	1,476	16,918	5,508	11,410	3,997	1,201	2,796
2014	7,215	3,296	3,919	3,518	1,794	1,724	14,165	7,106	7,059	3,012	1,631	1,381
2015	6,900	4,279	2,621	2,970	2,188	782	11,355	8,651	2,704	1,967	1,548	419
2016	6,104	4,600	1,504	2,236	2,346	-110	7,246	7,408	-162	1,426	1,443	-17
2017	6,925	4,817	2,108	2,686	2,570	116	10,146	8,820	1,326	1,797	1,495	302
2018	8,973	5,609	3,364	3,808	2,918	890	12,349	8,987	3,362	2,146	1,539	607
2019	9,068	6,420	2,648	3,734	2,956	778	13,495	9,429	4,066	2,225	1,635	590
2020	9,261	7,303	1,958	3,076	3,034	42	8,847	8,765	82	1,365	1,420	-55
평균	5,904	3,783		2,587	1,843		10,123	6,245		1,996	1,145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3-7〉 신도시 가구원수별 이주사유 추이

(단위: 가구)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② 가구주 연령별 가구이동

신도시의 가구주 연령별 이동을 살펴보면, 청년 가구는 지난 십여 년간 모두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는 연평균 6.5(전출)~9.9(전입)천 가구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약 3.4천 가구가 순유입하였다. 중장년 가구는 연평균 6.6(전출)~9.9(전입)천 가구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3.3천 가구가 순유입하였다. 한편, 노인가구는 청년 및 중장년 가구의 이동량에 비해 적은 수준이나, 연평균 0.5(전출)~0.8(전입)천 가구가 이동하며, 약 0.3천 가구가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별 가구이동은 앞서 살펴본 가구원수별 이동과 비슷하게 대부분의 가구유형에서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순이동은 2011년 급격히 늘어난 후, 2016년에 다소 순유입량이 줄어들었으나 다시 증가하였으며, 최근 2년 전부터는 감소추이로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이는 광고지구의 아파트 입주물량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3-6〉 가구주 연령별 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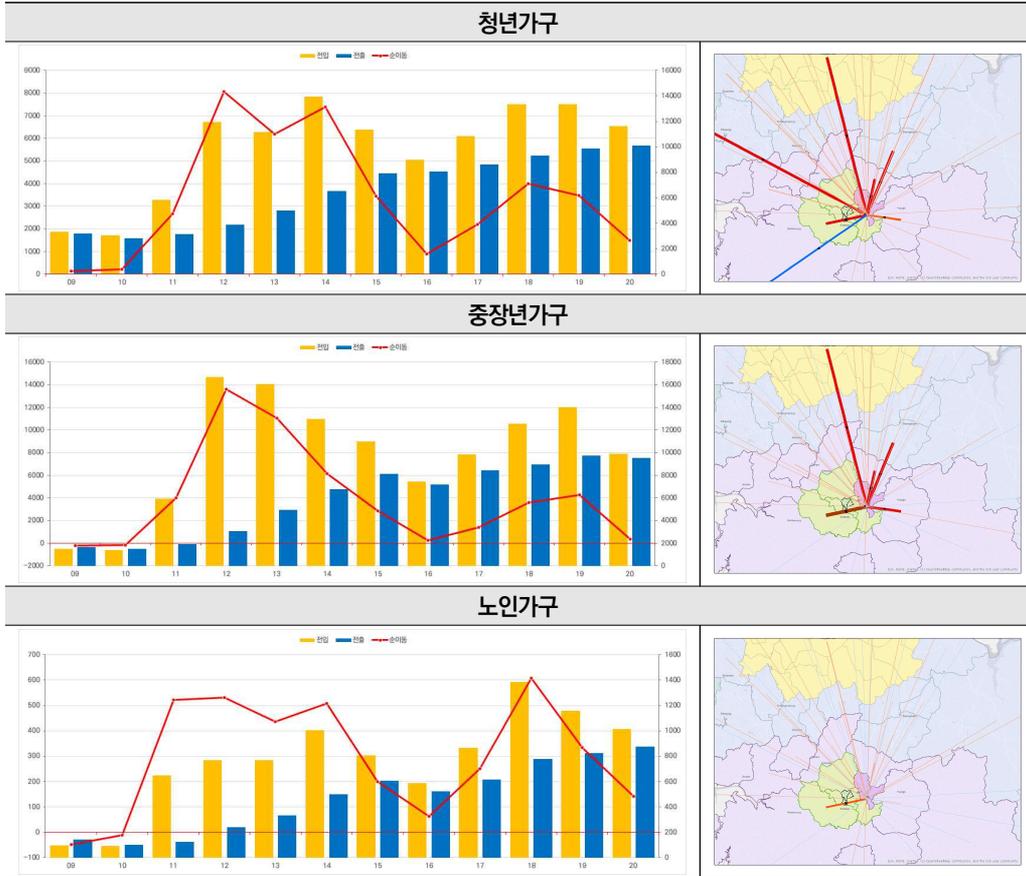
(단위 : 가구)

구분	청년 가구			중장년 가구			노인 가구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2009	3,329	3,179	150	1,484	1,669	-185	96	144	-48
2010	3,051	2,836	215	1,387	1,527	-140	90	101	-11
2011	5,833	3,158	2,675	5,928	1,922	4,006	647	124	523
2012	11,974	3,903	8,071	16,709	3,083	13,626	770	238	532
2013	11,190	4,997	6,193	16,036	4,958	11,078	769	333	436
2014	13,935	6,541	7,394	12,969	6,787	6,182	1,006	499	507
2015	11,362	7,906	3,456	11,026	8,155	2,871	804	605	199
2016	8,983	8,086	897	7,442	7,186	256	587	525	62
2017	10,838	8,639	2,199	9,850	8,448	1,402	866	615	251
2018	13,329	9,317	4,012	12,562	8,958	3,604	1,385	778	607
2019	13,362	9,882	3,480	14,002	9,735	4,267	1,158	823	335
2020	11,616	10,122	1,494	9,917	9,525	392	1,016	875	141
평균	9,900	6,547		9,943	5,996		766	472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3-8〉 신도시 가구주 연령별 이주사유 추이

(단위: 가구)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2) 원도심 가구특성별 가구이동

① 가구원수별 가구이동

원도심의 가구원수별 이동은 2009년 이후 1인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순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시기에 따라 순유입한 시기도 있었으나 평균적으로 산정하였을 때, 2.9(전입)~3.0(전출)천 가구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약 0.1천 가구가 순유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인 가구는 연평균 1.9(전입)~2.4(전출)천 가구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가구 유형 중에서 가장 순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인 가구는 1인 가구와 3·4인 가구만큼의 이동량을 차지하진 않지만, 연평균 1.0(전입)~1.3(전출)천 가구, 다인 가구는 연평균 0.4(전입)~0.5(전출)천 가구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모두 순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심은 2009년 이후 대부분의 가구유형에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8년에는 순유출의 정도가 모든 가구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시기에 이루어진 원도심 내 재개발사업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2018년 이후 순유출 가구는 점차 줄어든 추이를 보이며, 2020년은 1인 가구에서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원도심 가구원수별 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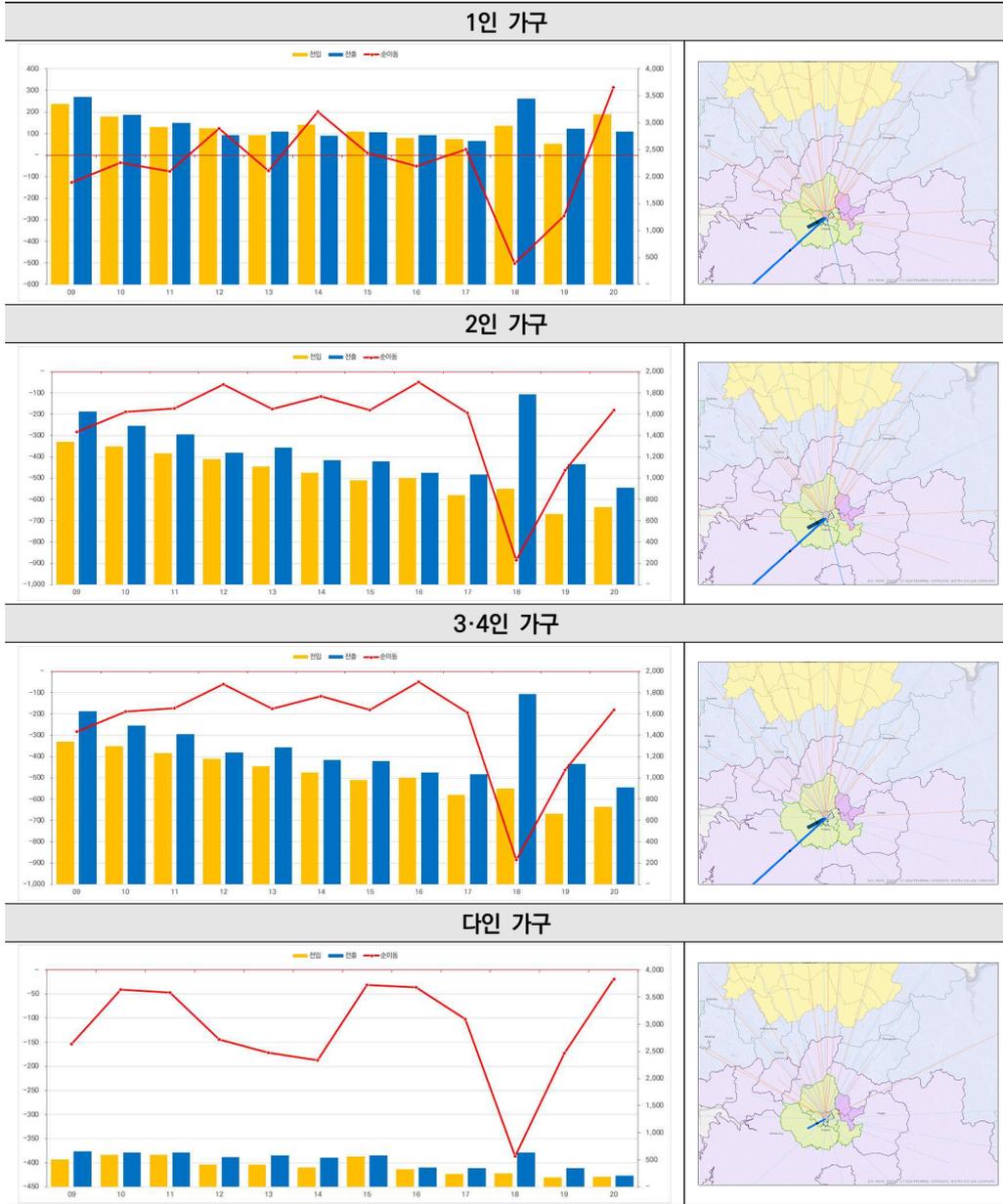
(단위 : 가구)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4인 가구			다인가구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2009	3,350	3,477	-127	1,342	1,624	-282	2,904	3,468	-564	505	658	-153
2010	3,115	3,149	-34	1,298	1,488	-190	2,656	3,004	-348	588	628	-40
2011	2,927	3,003	-76	1,234	1,408	-174	2,698	3,095	-397	590	637	-47
2012	2,901	2,777	124	1,178	1,238	-60	2,140	2,656	-516	408	552	-144
2013	2,770	2,841	-71	1,110	1,286	-176	2,051	2,465	-414	410	581	-171
2014	2,968	2,766	202	1,052	1,168	-116	1,919	2,258	-339	353	540	-187
2015	2,836	2,826	10	980	1,160	-180	1,858	2,339	-481	554	585	-31
2016	2,720	2,771	-51	1,002	1,050	-48	1,832	1,961	-129	319	355	-36
2017	2,694	2,666	28	842	1,036	-194	1,399	1,706	-307	243	345	-102
2018	2,947	3,450	-503	902	1,786	-884	1,198	2,986	-1,788	249	635	-386
2019	2,613	2,895	-282	664	1,128	-464	873	1,710	-837	171	344	-173
2020	3,154	2,839	315	726	908	-182	961	1,197	-236	187	206	-19
평균	2,916	2,955		1,028	1,273		1,874	2,404		381	506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3-9〉 원도심 가구원수별 이주사유 추이

(단위: 가구)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② 가구주 연령별 가구이동

원도심의 가구주 연령별 이동을 살펴보면, 2020년 청년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구 유형들은 순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심 청년 가구는 연평균 2.2천 가구가 전입하고 2.5천 가구가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약 0.3천 가구가 순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가구는 연평균 3.4(전입)~3.8(전출)천 가구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0.4천 가구가 순유출되었다. 한편, 노인가구는 연평균 0.6(전입)~0.8(전출)천 가구가 순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별 가구이동은 앞서 살펴본 가구원수별 이동과 비슷하게 대부분의 가구유형에서 순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에 급격히 모든 가구에서 순유출이 많아졌다가, 순유출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3-8〉 원도심 가구주 연령별 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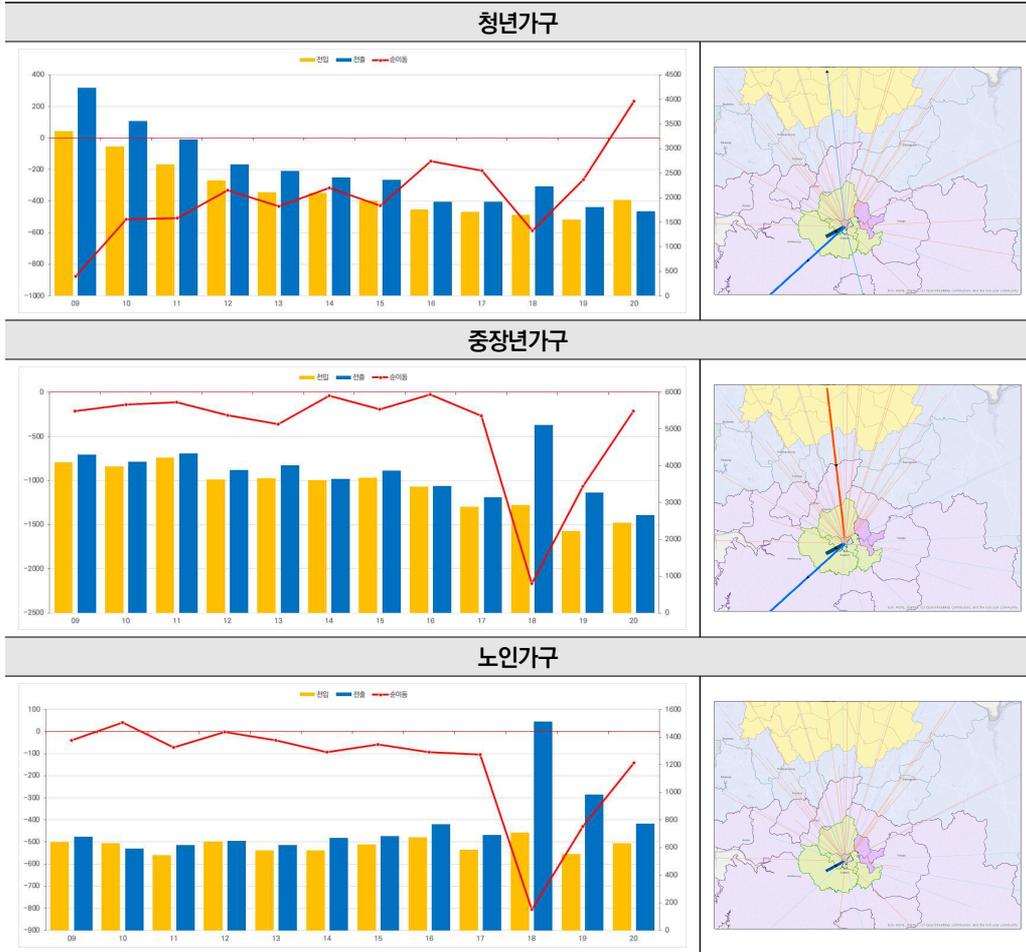
(단위 : 가구)

구분	청년 가구			중장년 가구			노인 가구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2009	3,358	4,233	-875	4,103	4,314	-211	640	680	-40
2010	3,044	3,560	-516	3,981	4,118	-137	632	591	41
2011	2,683	3,190	-507	4,222	4,336	-114	544	617	-73
2012	2,350	2,682	-332	3,632	3,893	-261	645	648	-3
2013	2,109	2,543	-434	3,655	4,013	-358	577	617	-40
2014	2,103	2,417	-314	3,610	3,644	-34	579	671	-92
2015	1,936	2,366	-430	3,670	3,863	-193	622	681	-59
2016	1,764	1,911	-147	3,435	3,458	-23	674	768	-94
2017	1,714	1,920	-206	2,880	3,144	-264	584	689	-105
2018	1,647	2,234	-587	2,942	5,111	-2,169	707	1,512	-805
2019	1,549	1,812	-263	2,218	3,282	-1,064	554	983	-429
2020	1,954	1,721	233	2,445	2,658	-213	629	771	-142
평균	2,184	2,549		3,399	3,820		616	769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3-10〉 원도심 가구주 연령별 이주사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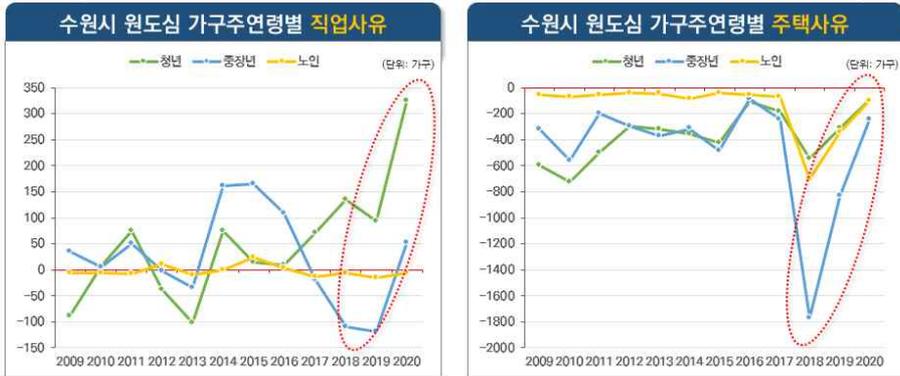
(단위: 가구)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3-11〉 원도심 가구주 연령별 이주사유

- 원도심 순이동은 지난 10년간 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2018년을 기점으로 반등하기 시작
- 가구주 연령별, 가구원수별로도 2018년을 기점으로 순이동이 증가하기 시작
- 가구주 연령별 이주사유를 살펴본 결과, 최근 직업 및 주택 사유에서 모두 증가하기 시작



4) 수원시 신도시 및 원도심 인구이동의 비교

이상의 분석에서 살펴본 것들을 종합하여 수원시 신도시와 원도심을 비교해보면, 신도시는 수원시 내 이동이 전체 이동량의 약 47.3%(전입기준)로 나타난 반면, 원도심은 수원시 내 이동이 70.4%(전입기준)로 대부분의 이동이 수원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도시의 경우 타 시도 간 이동이 전체의 이동량 중 약 20%, 경기도 내에서의 이동이 약 32.8%로 절반 이상이 외부이동에 의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원도심의 경우, 타 시도 간 이동이 14%, 경기도 내에서의 이동이 약 15%로 전체 중 30% 가량만 외부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후 권역별 세부 분석은 수원시 신도시와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도시는 수원시 외부이동, 원도심은 수원시 내부이동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표 3-9〉 신도시와 원도심 이동량 비교('09~'20 총합계)

(단위: 명, %)

신도시 이동량 비교			원도심 이동량 비교		
전 입 (D=A+B+C)	247,308	100.0	전 입 (D=A+B+C)	74,391	100.0
시도 간 이동 (A)	49,326	19.9	시도 간 이동 (A)	10,710	14.4
경기도 내 이동 (B)	81,029	32.8	경기도 내 이동 (B)	11,332	15.2
수원시 내 이동 (C)	116,953	47.3	수원시 내 이동 (C)	52,349	70.4
구간 이동	35,901	14.5	구간 이동	17,834	24.0
구내 이동	40,444	16.4	구내 이동	14,948	20.1
동내이동	40,608	16.4	동내이동	19,567	26.3
전 출 (D=A+B+C)	156,179	100.0	전 출 (D=A+B+C)	85,651	100.0
시도 간 이동 (A)	25,359	16.2	시도 간 이동 (A)	9,947	11.6
경기도 내 이동 (B)	47,191	30.2	경기도 내 이동 (B)	13,783	16.1
수원시 내 이동 (C)	83,629	53.5	수원시 내 이동 (C)	61,921	72.3
구간 이동	16,793	10.8	구간 이동	25,703	30.0
구내 이동	26,228	16.8	구내 이동	16,651	19.4
동내이동	40,608	26	동내이동	19,567	22.8
순 이 동 (D=A+B+C)	91,129	.	순 이 동 (D=A+B+C)	-11,260	.
시도 간 이동 (A)	23,967	.	시도 간 이동 (A)	763	.
경기도 내 이동 (B)	33,838	.	경기도 내 이동 (B)	-2,451	.
수원시 내 이동 (C)	33,324	.	수원시 내 이동 (C)	-9,572	.
구간 이동	19,108	.	구간 이동	-7,869	.
구내 이동	14,216	.	구내 이동	-1,703	.
동내이동	-	.	동내이동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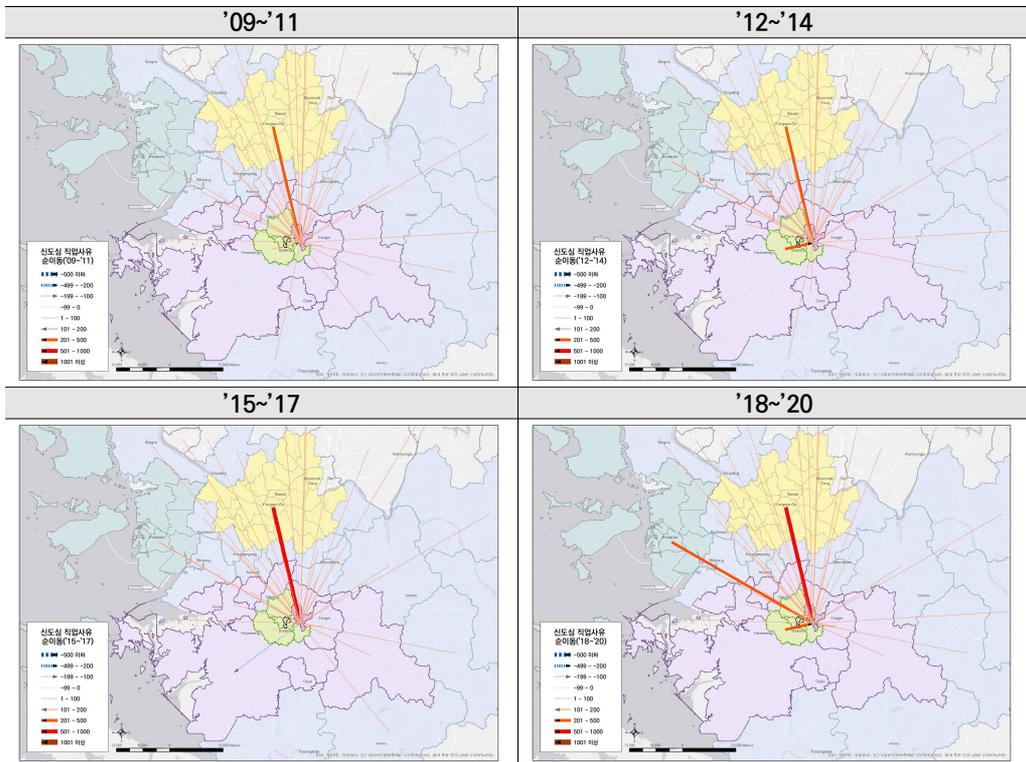
제2절 신도시 지역여건과 이동 요인

1. 신도시 직업사유 이동

〈그림 3-12〉 수원시 신도시 순이동 및 광교지구 사업체수



〈그림 3-13〉 신도시 직업사유 시기별 가구이동 추이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범례: 가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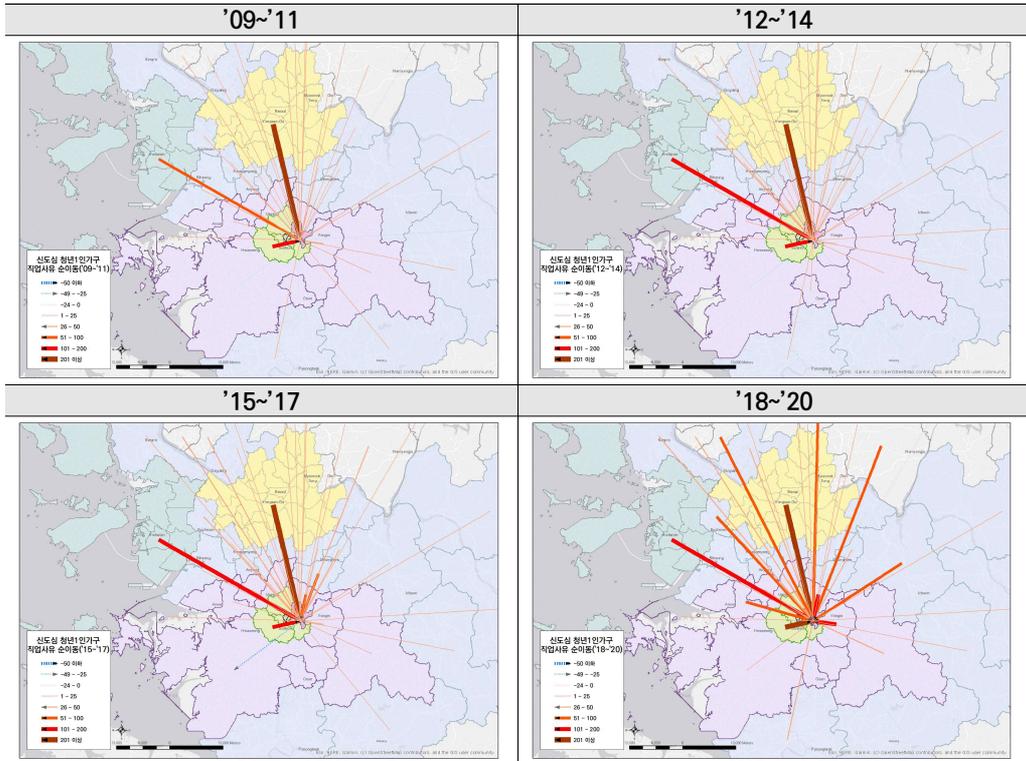
2009년 이후 수원시 신도시에 직업사유로 순이동 가구는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광교신도시 사업체와 비교한 결과 큰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은 것¹⁵⁾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직업사유로 신도시에 이동한 가구를 살펴보면, 서울 및 수도권 중부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순유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015년부터는 화성시 및 수원시 남단에 위치한 경기도 지역으로 순유출이 발생하였다.

1) 청년1인가구 직업사유 이동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서울, 인천 및 수도권 중부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순유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8년 이후에는 거의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순유입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로는 순유출하는 경향이 2017년까지 지속되다가 2018년부터는 화성시로부터 순유입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이 2018년 이후 급격히 수원시에 직업사유로 순이동하는 이유는 <그림 3-15>와 같이 성남 및 용인 판교 등의 정보통신업이 활성화됨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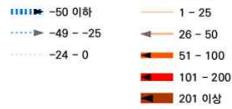
15) 광교지구 사업체수와 순이동가구의 상관도를 구해준 결과 0.51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3-14〉 신도시 청년1인가구 직업사유 시기별 가구이동 추이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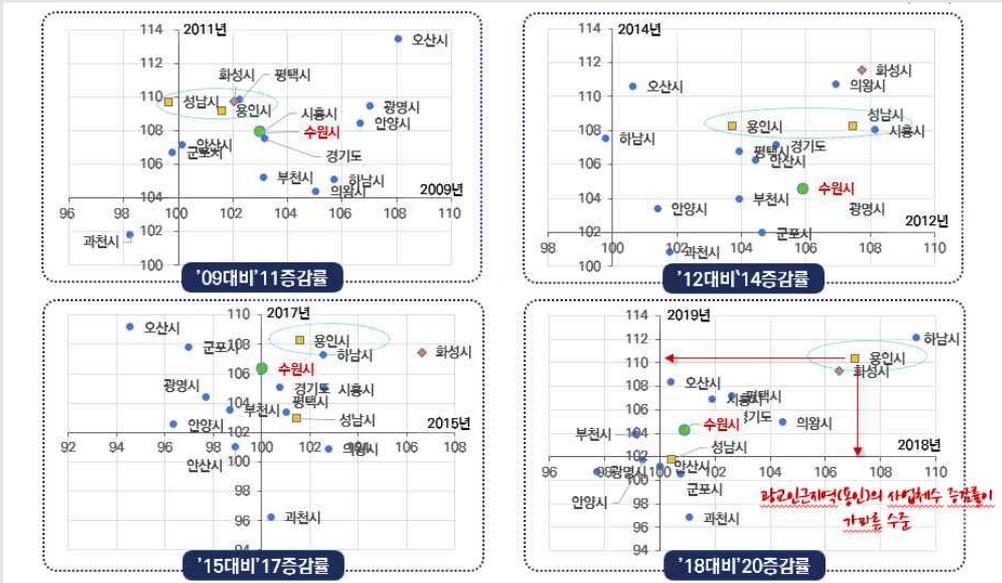
범례: 가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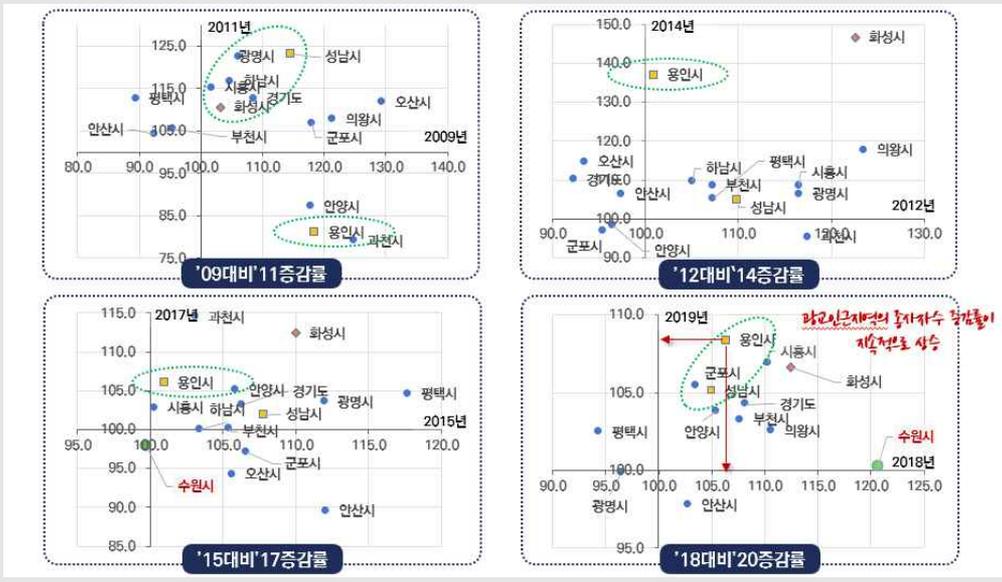
〈그림 3-15〉 수원시 및 인근지역의 시기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증감률

- 경기남부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전문화학기술서비스업 및 출판영상정보통신업 종사자로 한정)의 증감률을 파악해본 결과, 성남 및 용인지역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의 증감률이 급격히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경기남부지역의 사업체수 증감률



경기남부지역의 종사자수 증감률



자료: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고용노동부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J.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58~63), M.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0~73) 종사자수를 합산, 2012년 이전 수원시 종사자수는 자료 부정확성으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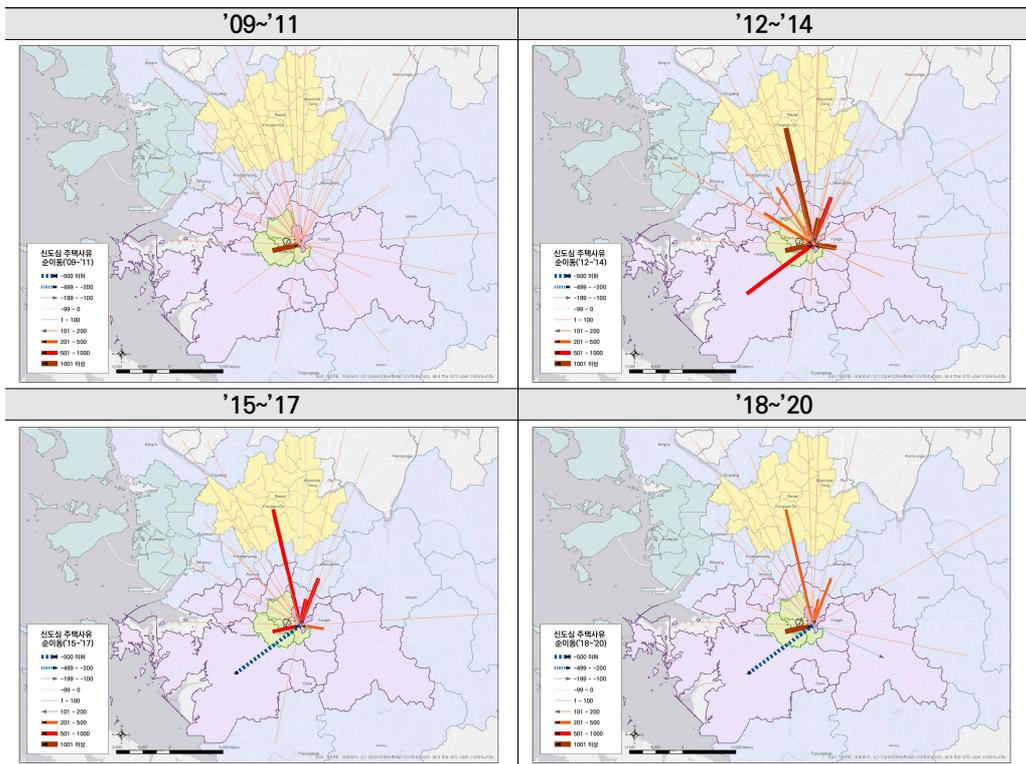
2. 신도시 주택사유 가구이동

신도시의 순이동을 살펴보면, 2011년 광고지구 입주시기 이후 주택사유로의 순유입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6〉 수원시 신도시 순이동 및 영통구아파트 입주물량



〈그림 3-17〉 신도시 주택사유 시기별 가구이동 추이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범례: 가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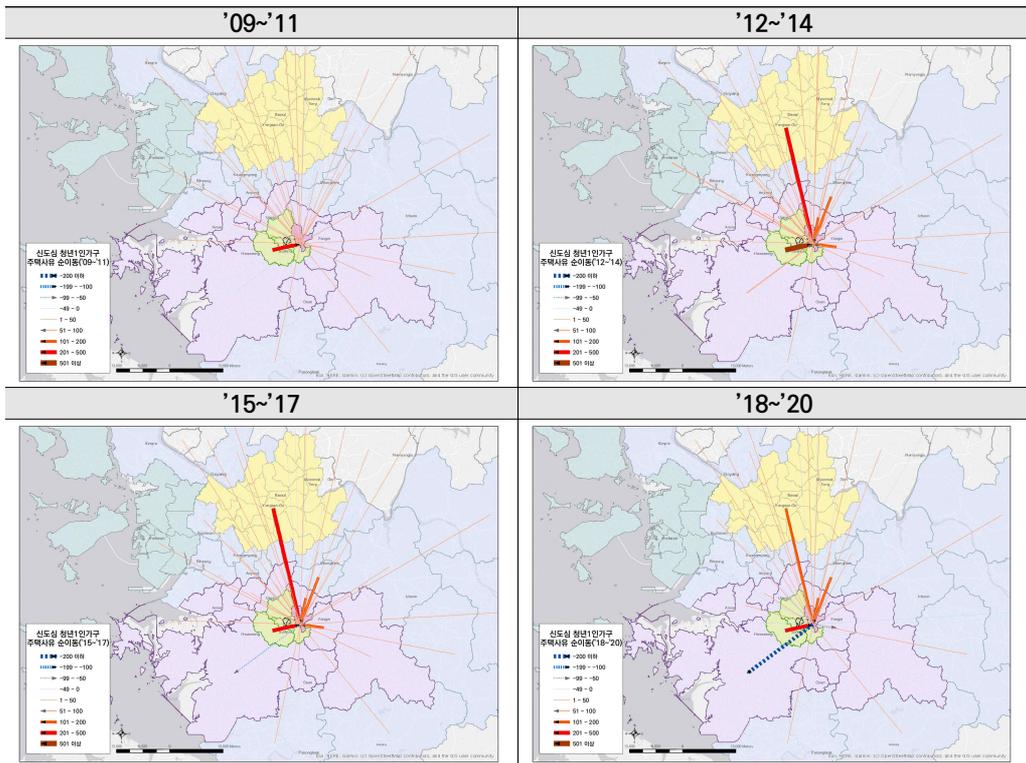


특히 영통구의 아파트 입주물량과 2009년 이후 순이동량을 비교해볼 때,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¹⁶⁾을 <그림 3-1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5년 화성 동탄지구, 2018년 시흥 목감지구, 2019년 화성 향남지구 등의 입주로 2015년 이후부터는 화성, 용인, 시흥 등의 방향으로 순유출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1) 청년1인가구 주택사유

청년 1인가구는 광교신도시 입주시점인 2011년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중부지역에서 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부터는 화성시로 유출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8년이후로는 용인 기흥구로의 순유출, 화성시로의 순유출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8> 신도시 청년1인가구 주택사유 시기별 가구이동 추이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범례: 가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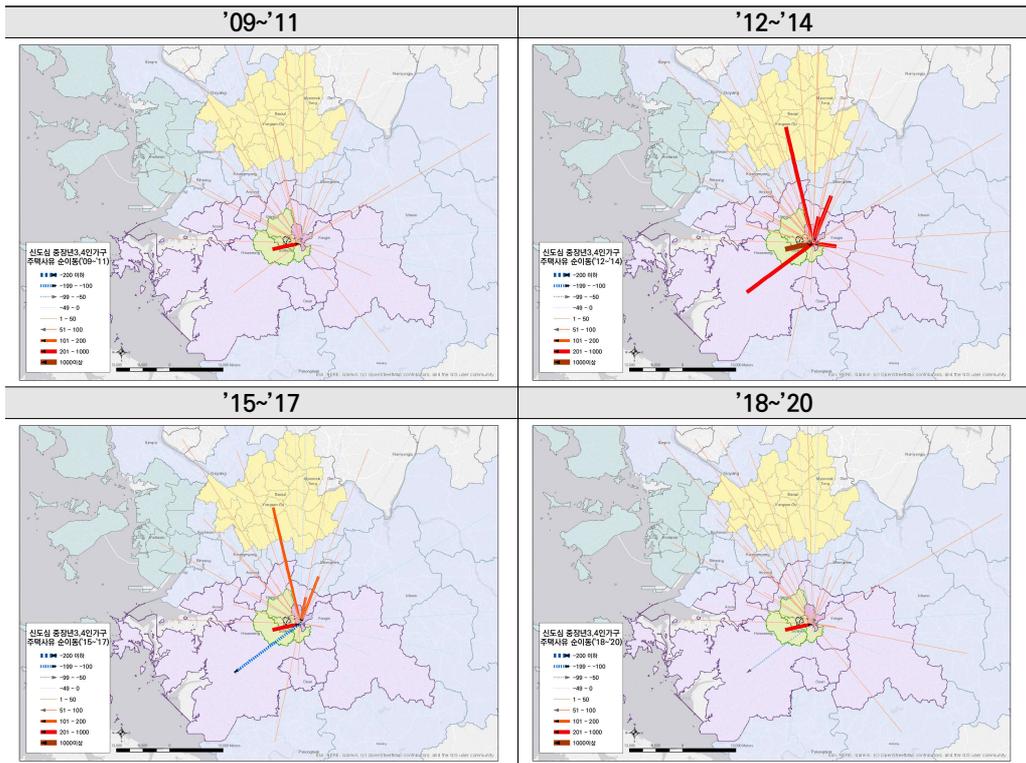
■ ■ ■ ■ ■	-200 이하	—	1 - 50
■ ■ ■ ■ ■	-199 - -100	←	51 - 100
■ ■ ■ ■ ■	-99 - -50	→	101 - 200
■ ■ ■ ■ ■	-49 - 0	→	201 - 500
■ ■ ■ ■ ■	1 - 50	→	501 이상
■ ■ ■ ■ ■	51 - 100	→	
■ ■ ■ ■ ■	101 - 200	→	
■ ■ ■ ■ ■	201 - 500	→	
■ ■ ■ ■ ■	501 이상	→	

16) 영통구 아파트입주물량과 수원시 신도시의 순이동의 상관정도는 0.71인 것으로 나타남

2) 중장년3·4인가구 주택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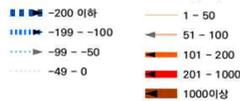
중장년 3·4인 가구의 경우, 광교신도시 개발('11년 입주) 이후 주택사유로 서울, 성남, 용인, 화성 등으로부터 대량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동탄신도시 개발이후에는 화성 시로의 순유출이 뚜렷하게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청년 1인가구와 달리 2020년까지 꾸준히 용인 수지에서 주택사유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9〉 신도시 중장년3·4인가구 주택사유 시기별 가구이동 추이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범례: 가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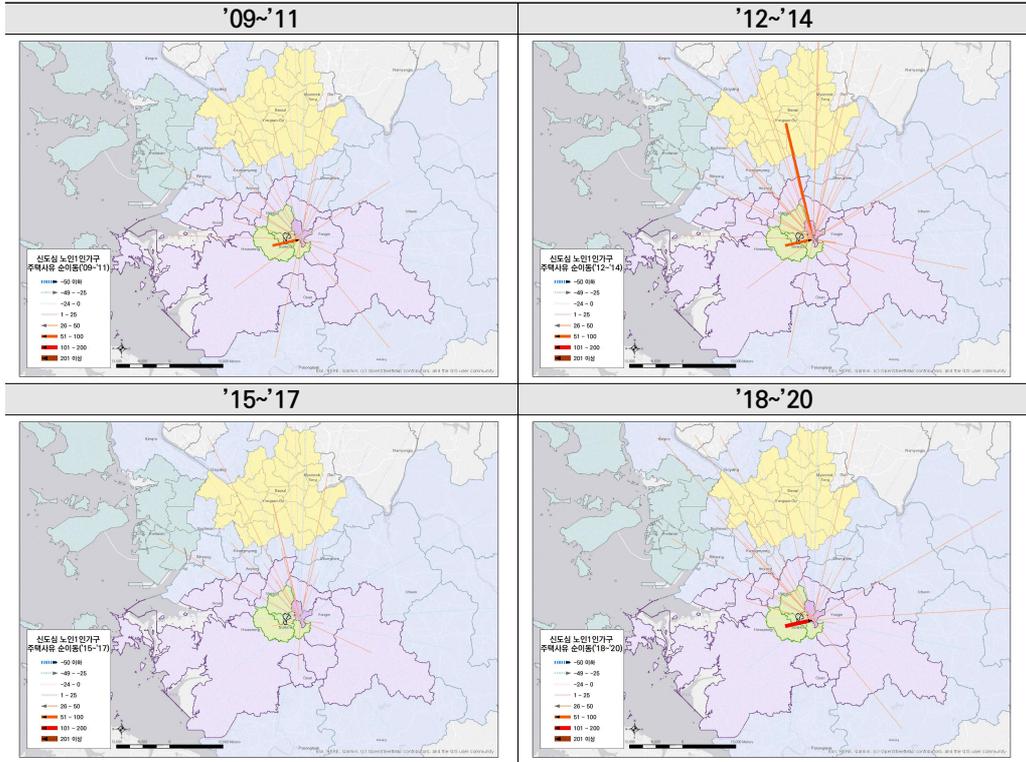


3) 노인1인가구 주택사유

지난 십여 년간 노인 1인가구는 서울, 인천, 수원시 내부, 용인 등에서 지속적으로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부터는 화성, 오산, 기흥, 평택 등 경기남부지역으로 순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 이후부터는 수원시 내부에서 광교신도시로 순유입한

이동량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0〉 신도시 노인1인가구 주택사유 시기별 가구이동 추이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범례: 가구단위

●●●●● -50 이하	1 - 25
●●●●● -49 - -25	26 - 50
●●●●● -24 - 0	51 - 100
	101 - 200
	201 이상

3. 신도시 분석 총괄정리¹⁷⁾

〈표 3-10〉 가구특성별 세부분석 정리

이주사유	구분		특징
	이주사유	가구유형	
직업사유	청년1인가구	청년1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1인가구는 서울, 인천, 수도권 중부지역에서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8년 이후 상당히 많은 청년1인가구가 직업사유로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용인 판교테크노밸리 등 인근지역의 산업단지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 • 한편, 화성·평택 등으로 일시적으로 순유출이 나타난 시기도 있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청년1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1인가구는 서울 및 수도권 중부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주택사유로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을 제외하고는 용인 및 성남에서 유입되는 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화성 동탄지구의 입주시기인 2015년 이후부터는 점차 화성시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주택사유	중장년3·4인가구	중장년3·4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3·4인가구는 타 가구유형에 비해 주택사유로 유입된 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2~2014년 가장 많이 유입됨 •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에서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용인, 성남, 화성 등에서 많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5년부터는 화성시로의 유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노인1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1인가구는 수원시 내부에서 가장 많이 유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이후 서울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입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이후부터는 이동량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수원시 남단에 위치한 화성, 오산, 평택 등으로 순유출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17) 가구유형분류(청년1인가구, 청년2인가구, 청년3·4인가구, 청년다인가구, 중장년1인가구, 중장년2인가구, 중장년3·4인가구, 중장년다인가구, 노인1인가구, 노인2인가구, 노인3·4인가구, 노인다인가구)는 총 12개의 가구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특별히 순이동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가구유형을 대상으로 결과를 정리함

제3절 원도심 지역여건과 이동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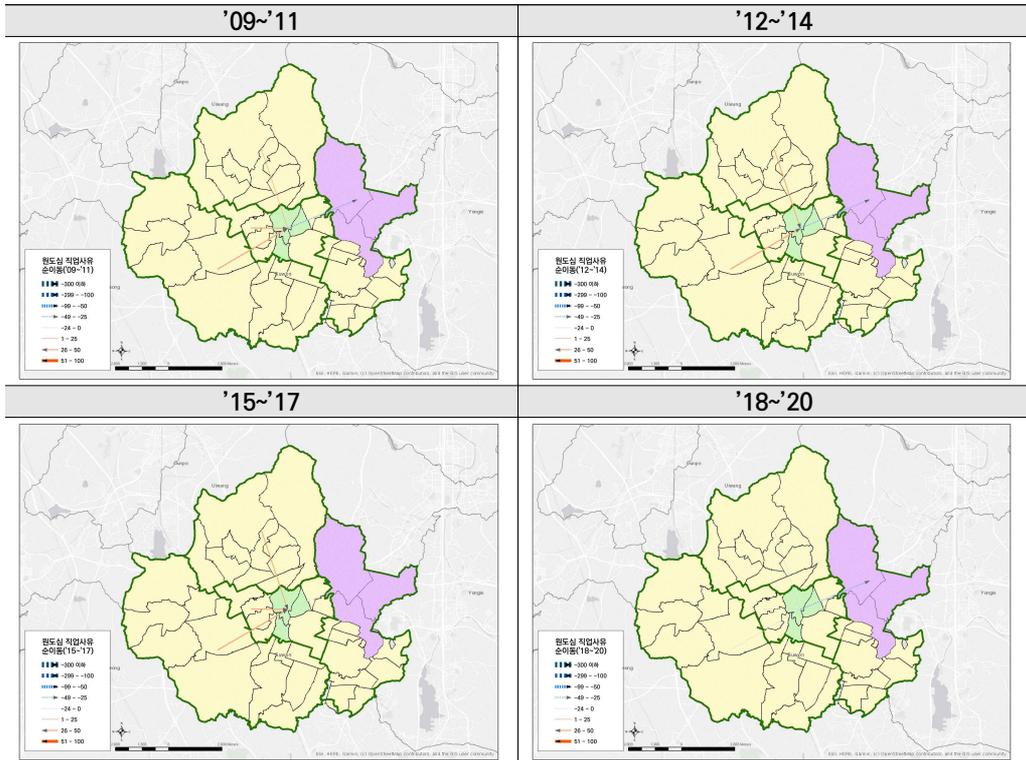
1. 원도심 직업사유 가구이동

〈그림 3-21〉 수원시 원도심 순이동 및 사업체수



주: 원도심 사업체수의 경우, 원도심으로 설정한 행정동(지동, 매교동, 행궁동)의 사업체수를 합산한 값임

〈그림 3-22〉 원도심 직업사유 시기별 가구이동 추이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범례: 가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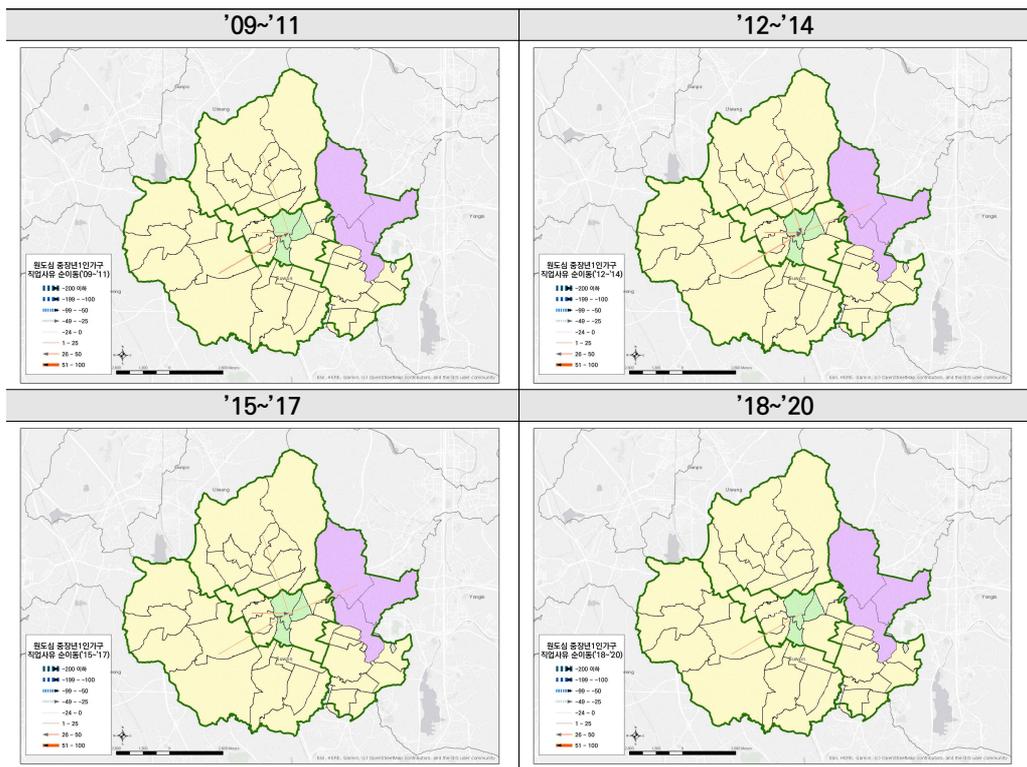
■ ■ ■ ■ -300 이하	— 1 ~ 25
■ ■ ■ ■ -299 ~ -100	— 26 ~ 50
■ ■ ■ ■ -99 ~ -50	■ ■ ■ ■ 51 ~ 100
■ ■ ■ ■ -49 ~ -25	
■ ■ ■ ■ -24 ~ 0	

수원시 원도심의 직업사유 이동은 시기별로 상이하나, 최근 순유출로 전환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원도심으로의 이동패턴을 보면 주로 권선구, 장안구에서 유입하며, 영통구로는 유출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18년 이후로는 수원시내 모든 구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중장년1인가구 직업사유

중장년 1인가구는 2017년까지 수원시 내 모든 구에서 순유입하며, 특히 권선구에서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0년에는 권선구를 제외한 팔달구, 장안구, 영통구로 순유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3〉 원도심 중장년1인가구 직업사유 시기별 가구이동 추이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범례: 가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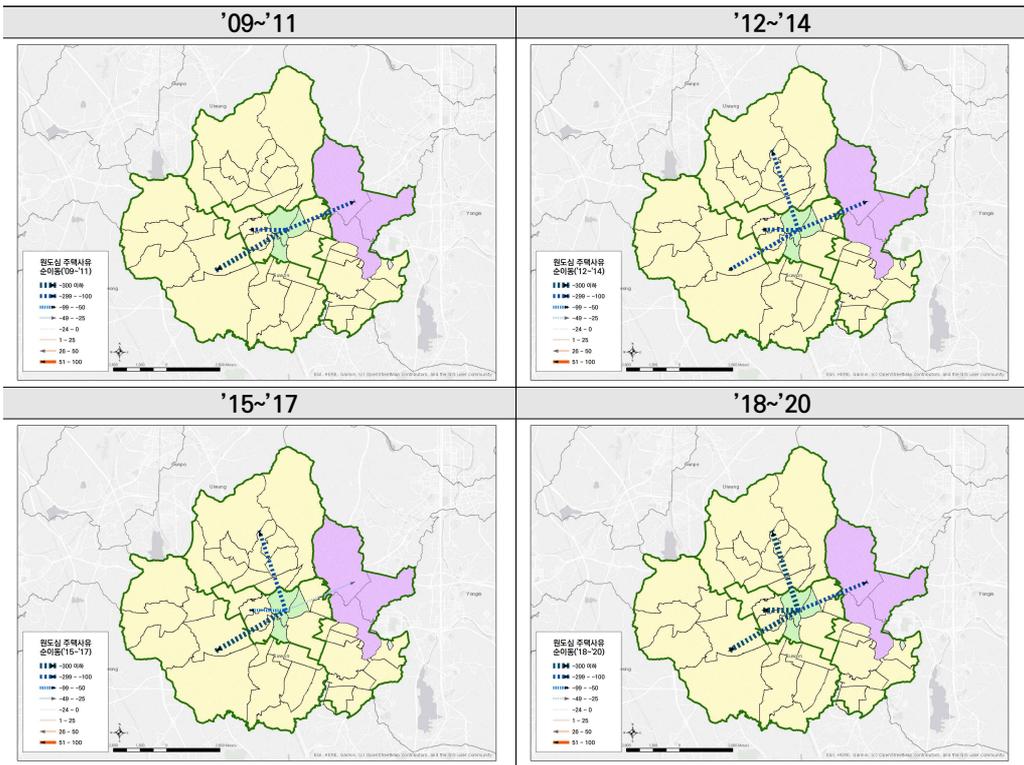
2. 원도심 주택사유 가구이동

〈그림 3-24〉 수원시 원도심 순이동 및 수원시 내 입주물량



주: 수원시 아파트 입주량 데이터는 부동산사인 홈페이지에서 구득

〈그림 3-25〉 원도심 주택사유 시기별 가구이동 추이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범례: 가구단위

■ ■ ■ -300 이하	— 1 - 25
■ ■ ■ -299 - -100	— 26 - 50
■ ■ ■ -99 - -50	— 51 - 100
■ ■ ■ -49 - -25	
■ ■ ■ -24 - 0	

수원시 원도심은 2009년부터 주택사유로 지속적으로 순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내의 광고·권선·호매실 지구는 2011년 모두 비슷한 시기에 공급되었으나, 수원시 원도심에서 주택사유로 다른 구로 이동한 패턴을 살펴보면, 권선구로의 유출이 광고지구가 위치한 영통구로의 유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원도심 순이동 및 아파트 입주물량

(단위: 가구, 호)

구분	원도심 주택사유 순이동	아파트 입주물량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2009	-974	1,394	-	2,794	4,665
2010	-1,360	209	2,001	880	505
2011	-750	8,666	5,849	185	66
2012	-630	2,904	7,575	927	645
2013	-734	447	5,217	4,445	466
2014	-760	3,526	2,294	34	960
2015	-949	5,555	1,904	59	62
2016	-249	3,814	1,372	93	236
2017	-500	5,982	4,141	1,691	697
2018	-3,021	5,917	4,117	100	638
2019	-1,481	582	5,989	99	851
2020	-436	164	300	162	1,025
합계	-11,844	39,160	40,759	11,469	10,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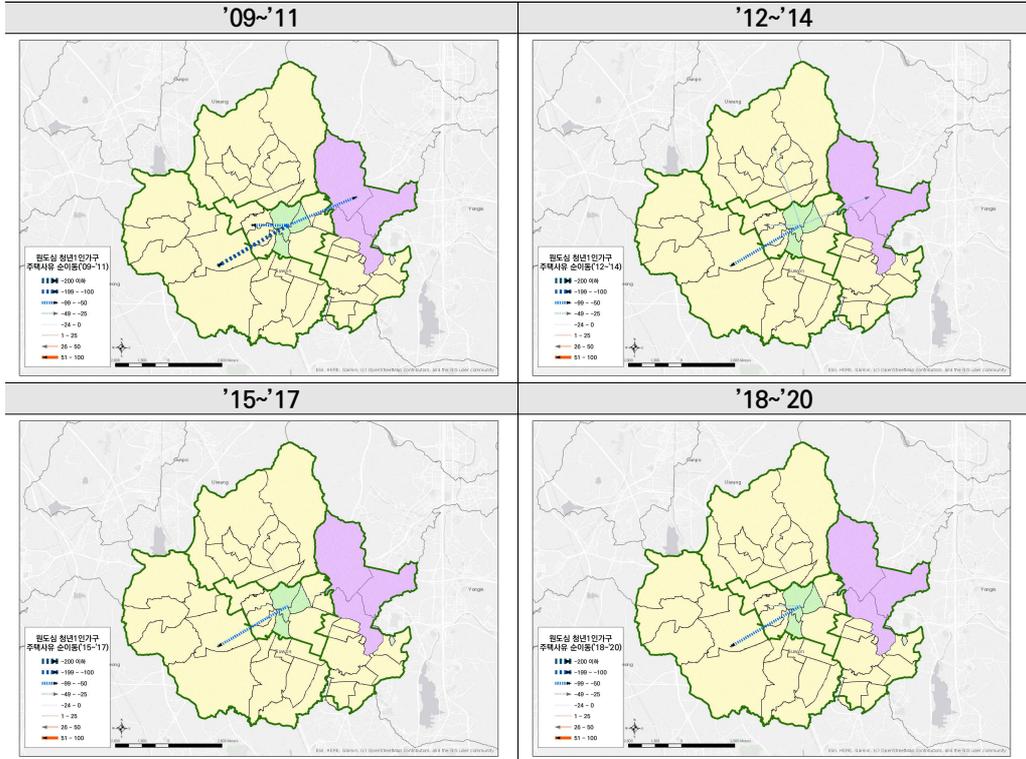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아파트 입주량은 부동산지인 홈페이지에서 구득하여 재작성(<https://aptgin.com/home/gin05/gin0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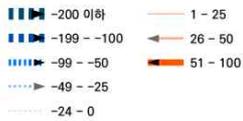
1) 청년 1인가구 주택사유 가구이동

원도심 청년 1인가구는 지난 십여 년간 지속적으로 권선, 호매실, 광고 등으로 순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고지구로의 순유출보다는 호매실 및 권선지구 방향으로 유출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볼 때는 2009년~2011년 사이에 이동한 순유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심 내 재개발 사업이 2018년에 지정되어 많은 가구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청년가구는 2018년~2020년이 다른 시기에 비해 더 많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림 3-26〉 원도심 청년1인가구 주택사유 시기별 가구이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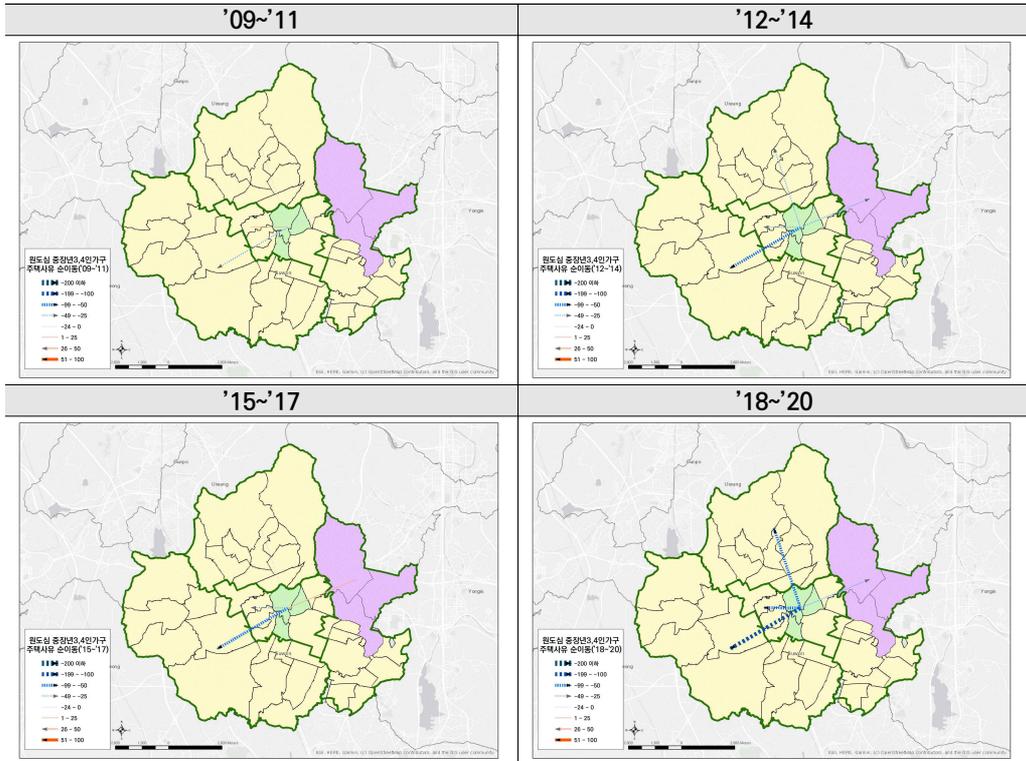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범례: 가구단위



2) 중장년 3·4인가구 가구이동

중장년 3·4인 가구는 지난 십여 년간 전반적으로 순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2011년 팔달구 내부에서 순유입, 광고지구에서도 2015년~2017년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권선구로 가장 많이 순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8년 이후 원도심 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권선구로 순유출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7〉 원도심 중장년 3·4인 주택사유 시기별 가구이동 추이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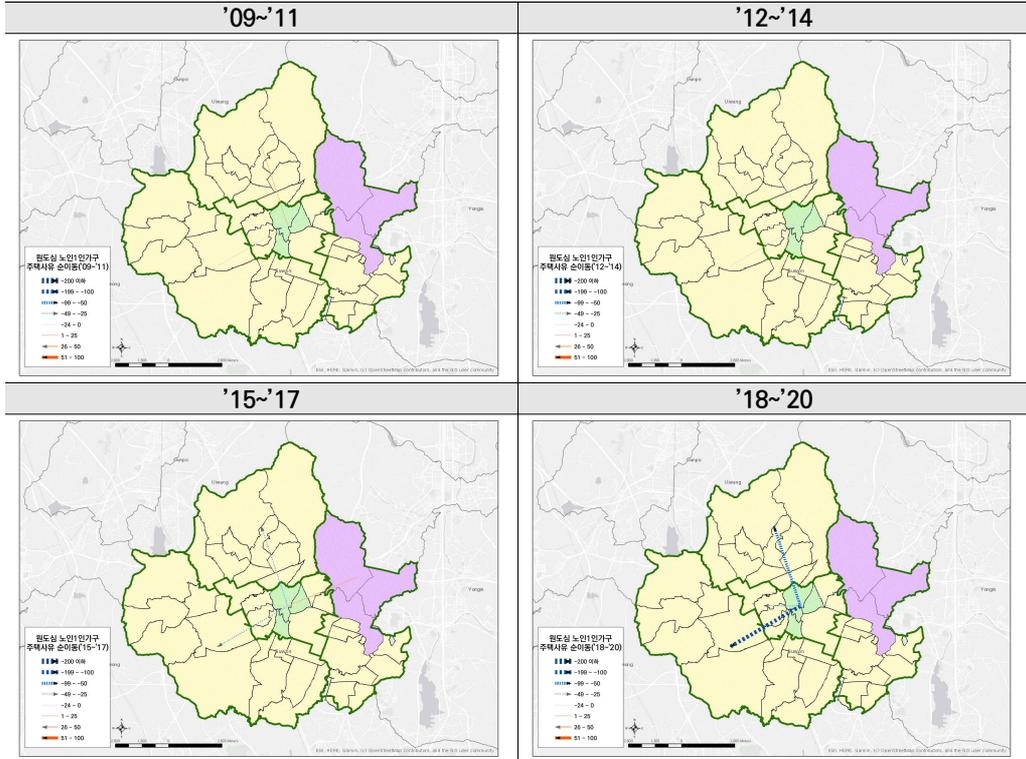
범례: 가구단위



3) 노인 1인가구 가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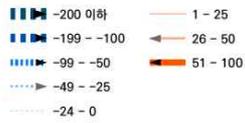
노인 1인가구도 다른 연령대 가구와 유사하게 권선구로 유출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및 중장년 가구는 수원시 내 개발시기인 '11년 이후 활발한 순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인가구의 경우, 개발사업의 영향보다 원도심 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유출량이 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2015년 2017년에는 중장년 3·4인가구와 유사하게 영통구에서 원도심으로 순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림 3-28〉 원도심 노인1인가구 주택사유 시기별 가구이동 추이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범례: 가구단위



4. 원도심 분석 총괄정리¹⁸⁾

〈표 3-12〉 가구특성별 세부분석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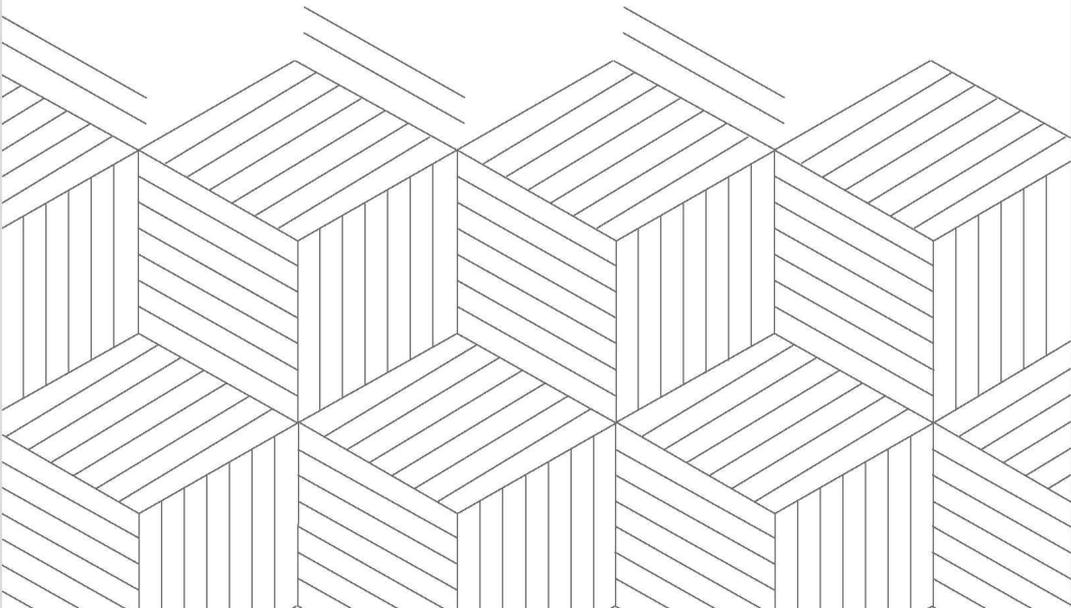
구분		특징
이주사유	가구유형	
직업사유	중장년1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시 원도심 이동은 대부분 순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장년1인가구는 일부 지역 및 시기에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권선구, 팔달구, 장안구에서 지속적으로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이후부터는 권선구를 제외한 모든 구로 순유출 발생 특히 권선구는 지난 십여 년간 지속적으로 원도심으로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택사유	청년1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도심 청년1인가구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순유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권선구로의 유출이 가장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수원시 내부이동의 크기는 권선구>팔달구>영통구>장안구 순으로 순유출한 것으로 나타남
	중장년3·4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년 3·4인가구는 전반적으로 순유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부터 2017년에는 영통구에서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권선구로의 유출이 가장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선구>장안구>팔달구>영통구 순으로 순유출 발생
	노인1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1인가구도 다른 연령대 가구와 유사하게 권선구로 유출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다른 가구유형과 같이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이주하기보다 원도심 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이동하는 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이후 순유출량이 크게 증가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인구이동통계」

18) 가구유형분류(청년1인가구, 청년2인가구, 청년3·4인가구, 청년다인가구, 중장년1인가구, 중장년2인가구, 중장년3·4인가구, 중장년다인가구, 노인1인가구, 노인2인가구, 노인3·4인가구, 노인다인가구)는 총 12개의 가구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특별히 순이동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가구유형을 대상으로 결과를 정리함

제4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4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수원시 인구는 2017년 12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더 이상 자연적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수원시의 사회적 인구 이동현상에 대해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2001년~2020년) 수원시의 인구 및 가구이동을 분석하여 언제, 어떤 가구유형이, 어디로, 어떤 이유로 이동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으며, 신도시와 원도심 권역 단위의 내·외부 이동패턴과 이동가구의 특성을 밝혀, 향후 수원시 공간구조 형성 및 수원시에 요구되는 도시계획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인구이동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① 지난 20년(2001년~2020년)간 수원시 인구이동을 행정구역별, 시기특성별, 이주사유별, 가구유형별로 분석하였고, ② 수원시 신도시 및 원도심의 내·외부 이동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원시 인구이동 특성

수원시 인구이동 중 수도권 내 이동이 전체 이동량의 약 90% 차지

수원시 인구이동 총량은 연평균(2001년~2020년 평균) 약 26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까지 증가한 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20년에는 223,676명까지 감소했다. 수원시 내 이동은 동내 이동이 약 22%, 수원시 내 구간 이동이 약 37%, 수도권 내 이동이 약 30%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내에서 발생하는 이동이 전체 이동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원시 내부이동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의 인구이동의 크기를 비교하면, 경기남부<서울>인천>경기북부 순으로 인구 이동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남부는 순유출의 영향이, 경기북부, 서울시, 인천시는 순유입의 영향이 우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도시 건설, 인접 도시 내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이 수원시 인구이동을 유발

지난 20년간 수원시 순이동을 수도권 지역의 주요개발, 수원시 철도교통, 인접 도시 주택 공급, 산업 이슈 등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특히 인접 도시의 주택공급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용인 및 화성시의 주택공급시기에 일부 순유출이 발생하였으며, 수원시 내부 택지개발사업(광교지구, 호매실지구, 권선지구)의 입주시기에는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원시의 철도교통 개통, 수원시 내 주요 사업체 이전, 주택매매가격 증감 등의 이슈가 있었으나, 인접 도시 주택공급만큼의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원시 인구 순유입은 직장 및 교육사유에서, 주택은 2011년~2015년을 제외하고 순유출

수원시의 시도 간 이동인구의 전입과 전출목적을 비교하면, 수원시에서 다른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주택'요인이 좀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 수원시로 들어오는 경우는 '직업' 및 '교육'요인이 좀 더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 수원시 내 주택 공급이 많아진 2011년~2014년에는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시기에서는 모두 순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사유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순유입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수원시 1인 가구 및 청년가구는 지난 20년간 순유입, 그 외 가구유형은 시기별로 상이

수원시 1인 가구의 이동은 전체 이동가구의 약 56%로, 지난 20년간 모두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7년을 기준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2인가구, 3·4인가구, 다인가구)는 시기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부터 2005년, 2007년부터 2010년에는 순유출하였으며, 수원시 내 주택공급이 활발했던 2011년 이후부터는 순유입이 진행되다가 2015년부터는 모든 가구에서 순유출이 진행되었다.

수원시 청년 가구의 순이동 이주패턴은 1인 가구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데, 전체 이동가구의 약 58%로 2001년 이후 모두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7년을 기준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장년가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순유입이, 노인가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두 가구유형 모두 2018년 이후 급격히 유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출입 패턴은 인접지역의 주택공급 및 산업단지 조성 등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2018년 이후 직업사유로 청년층은 서울로 유출, 중장년은 화성 및 평택으로 유출

수원시 직업사유로의 이동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중부지역에서 순유입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화성시로는 지속적으로 순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부터는 가구유형별로 이주패턴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년층의 경우는 2018년 이후 서울시로 순유출이 강하게 발생하였으나, 중장년층의 경우는 화성시 및 평택시 등으로 남하하는 방향으로 순유출이 강하게 발생하였다.

수원시 내 대규모 주택공급이 있었던 2011년에는 순유입, 인접지역 주택공급시 순유출 발생

수원시에서 주택사유로 이동한 가구를 살펴보면, 2011년 이전에는 인접지역 화성 동탄지구, 오산 세교지구, 용인 흥인지구 등의 주택개발로 인해 순유출 발생하나 수원시 내 대규모 주택공급이 있었던 2011년~2014년은 주택사유로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화성시로는 2012년~2014년 사이를 제외하고는 지속적 순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청년1인가구의 경우 타 가구에 비해 이동반경이 넓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장년 3·4인가구의 경우는 수원시 남단에 위치한 지역(오산, 평택, 용인 처인구 등)으로 유출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 1인가구의 경우, 2012년 이후부터는 서울, 용인 수지 등에서 상당히 많은 가구가 순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수원시 신도시 및 원도심 이동특성

수원시 신도시는 타 시도로의 외부이동이 약 53%, 원도심은 약 29%를 차지

수원시 신도시는 연평균(2009년~2020년) 약 7.6천 가구가 수원시에 매년 순전입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원도심은 매년 약 1천 가구가 순유출하였다. 신도시와 원도심의 시도 간 이동인구의 전입과 전출목적을 비교하면, 신도시는 대부분의 사유에서 전입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도심의 경우 주택사유로 전출이, 직업사유로 전입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의 경우 타 시도 간 이동이 전체의 이동량 중 약 20.0%, 경기도 내에서의 이동이 약 32.8%로 약 52.8%가 외부이동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원도심의 경우, 타 시도 간 이동이 14.4%, 경기도 내에서의 이동이 약 15.2%로 전체 중 29.6%가량만 외부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 가구이동은 인접지역 산업단지 및 주택공급에 의해 발생

2009년 이후 수원시 신도시에 직업사유로 이동한 가구를 살펴보면, 서울 및 수도권 중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순유입하였고, 2015년부터는 화성시 및 수원시 남단에 위치한 경기도 지역으로 순유출이 발생하였다. 한편, 청년1인가구에 대해서만 분석한 결과, 다른 가구유형

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으나, 특별히 2018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에서 순유입이 다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이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인한 사업체 증가와 정보통신업 관련 산업의 종사자 증가와 높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사유로의 순이동을 살펴보면, 모든 가구유형에서 2011년 광교지구 입주시기 이후 순유입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부터는 인접지역의 화성 동탄지구, 2018년 시흥 목감지구, 2019년 화성 향남지구 등의 입주로 해당지역으로의 순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심은 이주사유 중 주택목적으로 유출하는 가구가 가장 많으며, 광교지구 보다는 권선구로의 유출이 다

수원시 원도심의 직업사유 이동은 시기별로 상이하나, 주로 권선구, 장안구에서 유입하며, 영통구로는 유출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이후로는 수원시내 모든 구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원시 원도심은 주택사유로 지속적으로 순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내의 광교·권선·호매실 지구는 2011년 모두 비슷한 시기에 공급되었으나, 모든 가구에서 권선구로의 유출이 광교지구가 위치한 영통구로의 유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구체적인 이주사유 및 가구유형 확인 불가

이주 현상을 연구함에 있어 이주사유는 가장 중요한 분석 대상이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구체적인 이주사유를 알 수 없었다. 주택사유로 인한 이주는 더 넓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이사하기 위한 자의적인 이주인지 전월세 계약 만료로 인한 타의적 이주인지 알 수 없다. 교육사유로 인한 이주는 자신의 교육을 위한 이주인지 자식의 교육을 위한 이주인지 알 수 없으며, 직업사유 또한 이직으로 인한 것인지 직장이 이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렇듯 구체적인 이주사유 확인 불가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해석의 폭 또한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가구유형 또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는데, 가구 구성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만 구분되었기 때문에 해당 가구 구성이 부부인지 남매인지, 부모 자식 간인지 친척 지간인지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물론 보편적인 가구 구성이라는 가정 하에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었으나, 근래 만혼·비혼·딩크족 등 보편적인 가구 형성이 늦춰지거나 해체되는 사회 현상에 비추어 봤을 때 위험한 접근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위와 같은 구체적 현황에 대한 확인이 가능했다라면 본 연구보다 더 다양한 관점에서 더 풍부한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수원시 이주 현상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

인구·가구 이동을 분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양하게 언급할 수 있다. 예컨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은 지양하고 원도심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식이다. 본 연구에서도 주택사유는 가장 강력한 이주사유이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 넓은 주택규모, 더 안정적인 점유 형태, 더 쾌적한 정주환경을 위해 이주를 결정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은 굉장히 근시안적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규모 주택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은 인접 지역의 인구 유출과 불가결하고, 특히 현재와 같은 인구 감소 시대에는 상호간 출혈 경쟁(zero-sum)을 유발할 수 있다. 광교신도시, 호매실 지구 등 수원시 개발 시점에는 인구 유입이 있었지만 화성, 용인 등 연접한 지자체의 주택 개발로 인해 수원시 인구가 유출된 점이 그러하다. 비단 주택만이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도 같은 방식이 작동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생활권을 영위하는 지자체들이 광역권 내 도시들 간의 연계 수준을 파악하여 상호보완적인 도시정책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구·가구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쉽

게 언급하기 어렵다. 예컨대 지속적인 청년층 유출로 인해 노년층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을 가정한다면, 증가하는 노년층을 위해 양로시설을 공급할 것인지 아니면 빠져나가고 있는 청년층을 붙잡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공급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물론 예산과 인력이 풍부하다면 필요한 모두를 공급할 수 있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공급할 수 있는 생활SOC의 종류와 양도 한정되기 마련이다. 결국 단기적인 대안과 장기적인 미래상을 구상하여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언급되고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도시정책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수원시를 오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기초 자료는 비단 도시계획 분야에서만 주목할 대상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한 수원시 인구·가구 이동의 기초적 연구라고 하겠다.

후속 과제를 통해 연구의 확장 필요

이주를 유발하는 사유는 많을뿐더러 단일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주의 시기·장소·방법 등을 결정하게 된다. 주택공급, 일자리·소득 변화, 교통·여가 생활의 변화, 생활SOC 공급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며 가구 특성에 따라 작용하는 방향과 양도 변화한다.

인구 감소 시대에 위와 같은 현상은 도시계획 접근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는데, 도시 생애주기에 따른 도시 안정기 이후 성장지향 도시정책의 출구전략이 대표적이다. 고도성장 시기에 도시인프라 중심으로 공급되었던 도시계획시설 정책 방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인프라 위주로 선회하며, 그간 대량 공급된 도시인프라 노후화로 인해 재정비 및 유지관리 필요성이 대두된다. 인구·가구 이동에 따라 향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인구·가구 구조가 변화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또한 변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 일자리와 같은 도시 구성 요소 관련해서도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 교통의 발달과 접근성 향상으로 인해 직주근접 필요성이 과거에 비해 축소됨으로써 주거지는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출퇴근은 다른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하는 현상이 그러하다. 수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인해 인구 규모는 인접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반면 내부통근비율은 60% 미만(화성, 안산, 평택은 60% 이상), 주간활동인구 유입량은 화성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¹⁹⁾ 이러한 생활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측정은 경기도 남부 광역생활권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되며, 공간 구조와 도시 구성 요소들의 배치

19) 가구통행실태조사(2019)를 기반으로 산정

문제로 확장된다.

결국 도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따라 변화하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수원시 인구·가구의 이동 현상을 다룬 본 연구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분야와 지역으로 확장한 연구도,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수원 현안에 부합하는 세부적인 연구도 이어지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김경수, 허윤수, 서옥순, 최효비, 이우평, 이진숙, 최청락. (2022). 「부산 청년인구 유출입 특성과 청년인구 유지 방안」. 부산연구원.
- 김리영, 김도희. (2019). 「고양시 인구이동의 공간적 특성 연구」. 고양시정연구원.
- 김리영, 박선영. (2016). 「수원시 아파트단지 인구이동 특성과 유형별 정책방향」. 수원시정연구원.
- 김리영, 양광식. (2013). 인구 유입과 유출을 결정하는 지역 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 학회지」, 25(3), pp.1-20.
- 민보경, 박민진. (2018). 신도시의 세대별 주거이동 패턴 분석: 분당과 일산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0(4), pp.47-68.
- 민보경, 변미리. (2017). 서울인구는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 「서울도시연구」, 18(4), pp.85-102.
- 박상우, 권정미, 김리영, 김숙희, 안국진, 조영준. (2017). 「인구절벽시대에 대응하는 미래 전략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봉인식, 김민희, 신수임. (2009).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주거이동특성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봉인식, 옥진아, 최혜진. (2014). 「수도권 임차가구의 주거이동 특성 연구」. 경기연구원.
- 석호원, 김소담. (2021). 「고양시 인구의 이동요인 분석」. 고양시정연구원.
- 송용찬, 김민곤. (2016).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의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30(3), pp.151-179.
- 양은순, 김숙희, 한수민. (2019). 「도시교통체계 변화에 따른 원도심 상권 영향 고찰: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수원시정연구원.
- 양재섭, 김상일, 김정원. (2007). 「서울 대도시권의 주거이동 패턴과 이동가구 특성」. 서울연구원.
- 이병기, 김종업. (2003). 「인천광역시 인구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이보경, 이영주, 홍사흠, 박미선, 오창화. (2021).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이연경. (2017). 지방정부의 정책지향과 인구이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Peterson의 도시한계론의 발전적 수정.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왕기, 김효정. (2020). 「인천시 인구이동 특성 분석과 이해」. 인천연구원.
- 이외희, 이지은. (2007). 「수도권 제2기 신도시지역의 인구유입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이외희, 임지현. (2010). 「경기도 이동인구 및 가구 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 _____. (2019). 「경기도 가구이동과 유입가구 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 이정섭. (2011).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이동 모형에 대한 출생코호트 접근과 해석. 「한국지역지리학

회지」, 17(1), pp.75-95.

이정희, 이창수, 이상경. (2017). 수도권 도시권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전입률을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9(3), pp.141-150.

이재수, 원재용. (2017). 서울 전출입 가구의 주거이동 특성과 이동 요인 연구: 2001~2010년간

서울 대도시권의 가구이동. 「국토계획」, 52(5), pp.27-45.

조용준, 박민근, 김가연. (2016). 「2045 수원시 인구추계 모형 개발 및 예측연구」. 수원시정연구원.

채성주. (2016).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과 중심성 분석」. 충북연구원.

최석현, 이병호, 박정훈. (2016). 「수도권 인구이동 요인과 고용구조 변화」. 경기연구원.

최석환, 이설희. (2017). 「수원시 쇠퇴구역 현황 및 분석방안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최석환, 조규만. (2013). 「수원시 구시가지 쇠퇴현황 및 도시재생 정책 대응방안」. 수원시정연구원.

최성호 외(2013). 「연령대별 지역간 인구이동 특성의 시계열적 변화」. 부동산학연구 제19집 제2

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한영민, 정재훈, 남진. (2022). 서울시 1인 가구 주거이동량과 소형주택 재고량의 지역별 차이

분석. 「국토계획」, 57(1), pp.115-127.

Abstract



Analysis of Migration Characteristics and its Effect Factors in Suwon

Chapter 1. Introduction

- Section 1-1. Background and Purpose
- Section 1-2. Scope and Method
- Section 1-3. Theory and Precedent Research

Chapter 2. Migration Characteristics in Suwon

- Section 2-1. Migration in Suwon
- Section 2-2. Migration by Administrative District
- Section 2-3. Migration per Period
- Section 2-4. Migration by Reason
- Section 2-5. Migration by Household Characteristics
- Section 2-6. Crossover Analysis between Migration Characteristics in Suwon

Chapter 3. Migration Characteristics in New Town·Old Downtown

- Section 3-1. Zoning and Migration in New Town·Old Downtown
- Section 3-2. Regional Condition and Migration Factors in New Town
- Section 3-3. Regional Condition and Migration Factors in Old Downtown

Chapter 4. Conclusion

- Section 4-1.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
- Section 4-2. Limit of Research and Extended Suggestions

Analysis of Migration Characteristics and its Effect Factors in Suwon

As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continue to make it difficult to expect natural population growth, the importance of social population increase and decrease is emerging. Suwon's population has been declining since its peak in 2017 (with a population of 1.2 million).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conduct basic research for responding to changes in Suwon's population and household structure, estimating the demand for infrastructure such as living SOC and designing future strategies for cities by understanding the population and household movement.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population movement in Suwon is occurred with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movement occurred due to the construction of new towns, development in adjacent cities, and the creation of industrial complexes. Most of the population flowing into Suwon City moved for work and education purposes, and except for 2011-2015, outflow was occurred by housing purpose. On the other hand, the New Town of Suwon City showed a large amount of movement due to the supply of industrial complexes and housing in adjacent areas, and in the Old Town the outflow occurred for the purpose of housing. This basic study on the migration phenomenon of Suwon City will give help in making city policy decisions.

Keyword : Migration, Residential Mobility, Household Characteristics,
New Town·Old Downtown, Regional Condition

| 저자 약력 |

허경재

공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E-mail : kjhuh@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주거비 부담이 가구유형별 주거선택에 미치는 영향」(2021, 주택도시연구)

박관아

공학석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위촉연구원

E-mail : pka@suwon.re.kr

